2011.01.19 NO.94
gonggam.korea.kr

Weekly 공감

코리아 G20세대 "세계로, 미래로"

P23~45

공공요금 묶고 금리 올려 물가 잡는다 P8~9

한강·낙동강 이어 금강 소송도 기각 판결 P10~11

구제역 방역에

설 명절 기간 국민 여러분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구제역, 모두가 힘을 모으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차단방역과 소독으로 인한 불편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역초소를 지나갈 경우에는 원활한 방역활동과 안전을 위해 천천히 통과해 주십시오.

설 명절 기간 구제역 발생지역 방문을 자제합시다.

- 꼭 방문해야 할 때에는 반드시 차량 내 · 외부와 사람에 대한 소독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구제역 발생국가 여행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어쩔 수 없이 발생국가를 방문하고 귀국할 때에는 검역당국에 신고하고, 공항 · 항만의 검역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국 후 5일 동안에는 축산농가를 방문하시면 안됩니다.

구제역은 인체에 무해합니다.

- 우리 축산물은 안전하오니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 구제역에 감염된 가축의 고기는 시중에 유통되지 않습니다.

축산농가는 농장 소독을 강화하고, 출입자를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제역 의심증상이 있으면 신속하게 신고합시다.(☎1588-9060)
- **예방접종을 하더라도 면역력이 형성(2주 소요)되기 전에는 감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차단방역과 농장소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세계를 품을 '미래 지도자 포럼' 만들자

김은미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봉사활동을 위해, 외국어를 습득하기 위해, 직장의 현장 경험을 쌓기 위해 서슴없이 해외로 찾아 나서는 젊은이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필자의 제자 중에도 재학시절부터 해외진출을 위해 부지런히 준비하는 이들이 여럿 있다. 한국이 아니라 세계를 무대로 삼는다는 G20세대의 진면목을 느낄 수 있다.

그렇다면 G20세대가 세계에서 필요한 인재가 되기 위해서 어떤 경쟁력을 길러야 할까? 첫째는 세계에 대한 전문성이고, 둘째는 역설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한국에 대한 전문성이다. 원조 전문가를 예로 들어 보자. 한국에서 직장을 찾는다면 선진원조를 하는 유럽에 대해 잘 아는 것이 비교우위가 된다.

하지만 유럽에서 직장을 구한다면 유럽에 대한 전문성은 유럽학생에 비해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잘 모르는 한국과 아시아에 대한 전문지식이 비교우위가 된다.

G20세대에게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해줘야 한다. 이런 기회를 준다면 국경, 인종, 종교 등을 넘어 글로벌 시대의 미래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리더를 양성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무대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한국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세계와 외국에 대해 아는 것만큼 중요하다. 이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외국어 실력을 겸비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G20세대가 세계무대에서 활약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지원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한국이 세계적으로 비교우위에 있는 분야를 찾아 우리의 G20세대가 이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빈곤퇴치를 위한 원조, 녹색성장을 위한 친환경 공학, 재생 에너지, 한국 문화·한류·한식 등이 그런 분야들이 될 수 있다.

G20세대를 위한 해외 인턴십도 확대해야 한다. 여성가족부, 외교통상부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학생·대학원생 해외 인턴십을 대폭 확대하고, 대학을 다니지 않는 전문기능 분야와 농어촌과 소외계층의 젊은이들에게도 인턴십 기회를 주어서 급변하는 세계를 몸소 체험하고 외국의 젊은이들과 부딪히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세계의 G20세대와 네트워크를 구축해 줄 필요도 있다. 가칭 '21세기 미래 지도자 포럼'을 만들어 세계의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만들어 UN, G20 등에 제안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국경, 인종, 종교 등을 넘어 글로벌 시대의 미래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리더를 양성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성 인재에 대한 배려도 절실하다. G20세대 여성들이 결혼과 출산 후에도 일할 수 있는 제도적, 사회·문화적 환경을 만드는 데 국가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의 젊은 G20세대 여성들이 세계에서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기를 2011년 신묘년 새해에 소망해 본다.

contents

Weekly 공감
2011.01.19 NO.94 통권 195호

24

기획특집

비켜라! G20세대가 간다

때로는 배낭을 메고, 때로는 가슴 벅찬 꿈을 안은 채 세계로 향하는, 혜초의 꿈을 단박 실현하고 이준 열사의 비통함을 날려버린 글로벌(Global) 세대, 그린(Green) 세대의 심장이 뛰고 있다. 서울 G20 정상회의를 분기점으로 세계 최대의 경제영토를 가진 대한민국의 새로운 개척자로 나설 이들이 바로 G20세대다. 귀 기울여보라. G20세대 젊은이들의 가슴 뜀이 들리지 않는가.

표지 이야기
G20세대는 세계를 무대로 뛰고 경쟁을 주저하지 않으며 창조적 도전정신에 불타는 젊은이들이다. 이들은 외국어에 능통하고 주인의식과 봉사정신도 가지고 있다.

발행일 2011.1.19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인** 유인촌 **제작협력** 조선뉴스프레스 **인쇄제본** (주)타라티피에스 **문의** 02-3704-9668 **정기구독** 02-2625-3294
〈Weekly 공감〉에 수록된 내용은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알림 제작시스템 변경으로 인해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 바코드는 당분간 싣지 못합니다.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잡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정책을 빠르고 쉽게 알리기 위해 무료로 배포하는 주간지입니다.

TIME100
50

14

12

공감 라운지

Weekly 공감 편집실(gonggam@korea.kr)
홈페이지(gonggam.korea.kr)
대한민국 정책포털 공감 코리아(www.korea.kr)
정책공감(blog.daum.net/hellopolicy)
청와대(www.president.go.kr) 등에 올라온 독자의 편지와 댓글입니다.

〈Weekly 공감〉 93호(1월 12일자) 기획특집 ‘스마트워크’와 관련해 많은 독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편리해진 스마트워크 보며 기분 좋아

“지난 호 특집기사 중 ‘기업 스마트워크 대세’를 읽고 기계문명의 발달로 한없이 편리해지는 생활을 눈으로 직접 보는 것 같아 기쁘기 그지없었습니다. 각 기업에서도 스마트워크를 도입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고 비용은 줄이는 이중의 효과를 누리게 되어 더욱 좋으리라 봅니다. 근무도, 출퇴근도 편리해짐으로써 문명의 혜택을 최대한 누리는 것입니다. 적은 비용으로 편하고 쉽게, 효과는 최대로 거두는 스마트워크시대에 잘 적응해나가야 하리라 믿습니다.” **박지영**

스마트워크 저도 한번쯤 하고 싶네요

“스마크폰, 스마트TV, 스마트워크까지, 요즘 어딜 가나 ‘스마트’ 가 열풍인 것 같습니다. 개념에서부터 용어, 해외사례까지 소개해 주셔서 유용했습니다. 스마트워커 ‘나공감 씨의 하루’는 스마트워크의 장점을 확실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스마트워크 센터에 대해서도 처음 접했는데, 시설뿐만 아니라 근무환경이 인상적이라서 저도 이용해보고 싶습니다. 스마트워크 문화가 우리 사회에 빠른 시일 내에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김민경**

‘외국인이 본 코리아’ 기사를 읽고 독자가 보내온 의견입니다.
“한국(인)은 ‘5F의 흥미롭고 아름다운 나라’라는 칭찬에 덩달아 마음이 들떴습니다. 필자인 하리 반 우오든 님의 표현처럼 한국의 5F는 집중과 친근, 빠름과 유연함 외 즐기기까지 한다는 매우 긍정적이고 고무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국민 모두가 5F의 여유와 행복을 만끽하는 삶이 영원하길 소망합니다.” **홍경석**

‘평창 “우린 승리하리라”’ 기사를 보고 독자가 보내온 의견입니다.
“매번 탈락했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이렇게 아쉽게 개최를 실패한 줄 몰랐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위한 위원회와 정부의 노력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평창이 아시아 지역의 동계스포츠 허브가 될 수 있도록 개최지로 꼭 선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준호**

‘해양경찰 25년 생애 최고의 날’ 기사를 읽고 독자가 보내온 의견입니다.
“얼마나 생생한 기사였는지 제가 바로 현장에 있는 듯 박진감이 넘쳤습니다. 일전에 언론에 보도가 되었을 때 ‘해경의 본분을 다했구나’고 생각했는데 이번 기사를 보고 구조에 참여한 해경들이 얼마나 생사의 기로에 있었는지를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김준래**

기획특집 기업 스마트워크 대세

임대비용 줄이고 생산성은 높이고

기업과 근로자 모두 즐겁게 윈윈

스마트워크를 도입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업무의 효율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스마트폰을 비롯한 기술의 발전이 도화선이 됐다. 근로자들도 환영하고 있다. 근무여건이 개선되어서다. 비즈니스 모델로도 각광받고 있다. 스마트워크가 기업의 또 다른 성장동력이 되고 있다.

목포해경 3009함 김문홍 함장

“해양경찰 25년 생애 최고의 날”

목포해경 3009함은 악천후 속에서 침몰 화물선의 탑승 인원 15명 전원을 무사히 구조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3009함 함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연말 어려운 여건에서, 국민이 힘들어하는 과정에서 3009함이 국민에게 희망을 줘서 대통령으로서 뿌듯하게 생각하고, 해양경찰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격려했다.

공감퍼즐

빈칸의 답을 주소, 연락처와 함께 1월 26일까지
jjsmall@korea.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아이폰 〈정책투데이〉 앱에서도 응모하실 수 있습니다.

가로

1. 이 해 바로 앞의 해. 작년. 전년.
3. 백 살. 긴 세월. "바야흐로 건강 OO 시대가 열리고 있다."
4. 어머니의 오빠 또는 남동생.
5. 고구려 17대 임금. 불교를 도입하고, 태학을 설립해 교육에 힘썼으며, 율령을 반포하여 사회질서를 잡는 등 국가체제를 정비하여 5세기 고구려 전성기의 기틀을 마련.
7. 방역초소 통과 시 서행운행 협조! 이것 발생 지역이나 축산농가 방문 자제! 방문할 때는 차량과 사람도 소독! 해외여행 시 현지 농장 방문이나 동물과의 접촉 금지! 해외로부터 고기류 등 축산물 반입 금지! 귀국 후 5일 이내에는 축산농가 방문 금지! OOO 확산 방지를 위한 국민 협조사항입니다.

세로

1. 지형. 토지세.
2. 외국에 가서 학문을 연구하고 닦거나 직업, 문화 등의 체험을 하는 것.
3. 백두산에서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한반도의 척추라고 할 수 있는, 가장 크고 긴 산줄기.
5. 소화기관 운동이나 흡수 작용을 돕기 위한 약.
6. 의사가 병원 밖의 환자가 있는 곳으로 가서 진료하는 것.

〈Weekly 공감〉 92호(1월 5일자) '공감 퍼즐' 정답
가로 **1** 장학금 **3** 도봉산 **5** 토끼 **6** 신정 **7** 비타민
세로 **1** 장병 **2** 금도끼 **4** 산천어 **5** 토정비결 **8** 민생

〈Weekly 공감〉 92호 '공감 퍼즐' 당첨자
박기풍 · 광주광역시 서구 유촌동
박상수 · 전남 목포시 신흥동
박재옥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우성희 · 경북 포항시 북구 양덕동
이태준 · 대전시 서구 둔산동

알립니다

나만의 '기상사진'을 전시해 보세요

기상청은 세계 기상의 날(3월 23일)을 기념해 '2011 기상사진전' 작품을 공모한다. '내 손으로 담아낸 우리들의 날씨이야기'를 주제로,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한 아름답고 신비한 기상현상을 담은 사진 또는 기상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는 사진을 그 대상으로 한다. 당선작은 3월 22일부터 27일까지 전시회를 가질 예정이다.

접수 기간 | 2월 7일까지
출품 수 | 1인 2작품까지
접수 방법 | 기상청 홈페이지 및 디시인사이드(dcinside.com) 내 이벤트 응모
결과 발표 | 2011년 3월 중순경 개별 통보 및 기상청 홈페이지 게시

기상청 대변인 실 사진공모전 담당자 ☎ 02-2181-0362 www.kma.go.kr

실속형 직거래 농수산물로 행복을 나누세요!

국내 최대 온라인 농산물 직거래 사이트인 정보화마을 인빌쇼핑에서 설을 맞아 1월 12일부터 26일까지 15일간 '정보화마을 10주년 설 특별 사은전'을 실시한다. 이 기간 동안, 전국 정보화마을에서 농어민이 직접 생산한 농수산물, 전통가공식품, 지역특산물 총 7백여 개의 상품을 엄선하여 평상시 가격 대비 최대 38퍼센트까지 할인 판매한다.

기 간 | 1월 26일 오전 11시까지
장 소 | 인빌쇼핑 홈페이지(www.invil.com) 및 각 정보화마을 현지 판매
상 품 | 농·수·축산물(6백39개), 전통가공식품(33개) 등

정보화마을 인빌쇼핑 고객센터 ☎ 080-725-1100 www.invil.com

대한민국 선진화, 길을 묻다 ⑩

사람으로 아름답게 사는 일

박범신 작가·명지대 교수

조선 DB

우리는 지난 반세기 동안 개발제일주의, 경제제일주의에 입각해 불같이 살아왔습니다. 그 결과 한강의 기적, G20 정상회담 개최지가 되었지요. 우리가 이처럼 경제적 발전, 정치적인 민주화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불의 정신'으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질주하는 것처럼 살아왔습니다. 특히 1980년대는 거대한 산업화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달리지 않았으면 어떻게 해서 50년 만에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민주화 과정에서 국민의 희생도 많았지만 우리나라처럼 작은 희생으로 발전한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히말라야에 가면 다섯 가지 색깔의 깃발이 곳곳에 펼쳐져 있습니다. 산악인들은 그 깃발들이 자신을 보호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양적 세계관으로 보면 다섯 가지 색깔은 첫째, '불'입니다. 심장, 열정을 상징하죠. 둘째는 '물', 셋째 '흙', 넷째 '허공', 다섯째 '바람'입니다. 불이 너무 세거나 물이 너무 약하면 몸이 아프게 되지요. 즉 이 다섯 가지의 균형이 깨지면 신호가 옵니다.

우리나라는 국가와 사회시스템, 개인의 욕망이 한 덩어리로 '불의 가치'만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것은 빠르게 성장하는 데 굉장히 효과적이었죠. 하지만 이것은 일시적인 전략입니다. 잘사는 사람은 계속 잘살게 되고 못사는 사람은 계속 못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참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전략도 바뀌어야 합니다. 생명의 원천은 '물'에 있습니다. 물은 아무리 미세한 틈도 흘러 들어가서 마침내 수평을 이룹니다. '공평사회'를 뜻하지요. 둘째, 물은 '순환' 합니다. 흐르고 돌고, 다시 적십니다. 물은 한순간도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셋째 물은 '역동'적으로 흐르죠. 우리가 꿈에도 그리워하는 '공정사회의 이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것은 경제적으로 부자나라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원칙을 갖고 있어야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 원칙은 '물'입니다. 용서, 너그러움, 자연, 이런 것이 물의 속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불의 전략'으로 선진국의 문턱에 섰다면 앞으로 30년, 50년, 1백 년은 '물의 전략'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더 많은 너그러움, 더 많은 자애로움, 더 많은 사랑이 생기는 사회가 될 때 우리는 선진국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선진국은 모든 국민이 안락함을 느끼고, 정신적인 만족감을 느끼는 나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뒤떨어지고 조금 모자라도 우리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용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타인 역시 그렇게 대할 수 있을 겁니다.

정리·이미령 인턴기자

서울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2010년 10월 1일부터 29일까지 열린 대(對)국민 강연 '대한민국 선진화, 길을 묻다'의 세부 내용을 '공감코리아(www.korea.kr)'에서 발췌 요약해 연재합니다.

공감마당

1. 가장 관심 있게 읽은 기사와 그 이유
2. 지난주 기획특집에 대한 의견
3. 〈Weekly 공감〉에서 다뤘으면 하는 내용

홍서영 경남 양산시 소주회야로

1. '우수쇼핑인증 1st제도 시행' 기사를 반갑게 읽었습니다. 그동안 외국인을 상대로 한 바가지, 저품질의 상품 강요 행위 등이 있어서 아쉬웠는데, 이제 외국인 관광객 1천만명 시대를 맞이하는 현 상황에 맞는 좋은 정책인 것 같네요. 널리 홍보가 되고 제대로 정착이 되었으면 합니다.

2. 특집 '스마트워크시대'를 꼼꼼히 봤습니다. IT 기술의 발달로 인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덕분에 업무효율도 좋아지고 출퇴근 시간도 아낄 수 있게 됐네요. 또한 임대비용은 줄이면서 생산성은 높아지게 되어 저탄소 녹색성장에도 기여를 할 것 같네요. 앞으로 계속 발전할 모습이 기대됩니다.

3. 요즘 생활물가가 오르는 듯합니다. 작지만 큰 도움이 되는 알짜 정보들이 많이 실렸으면 합니다.

황인화 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1. '구제역, 정부차원 통합 시스템 가동' 기사를 주의 깊게 읽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구제역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며 예방접종에 수고하시는 방역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한숨과 눈물로 아픈 가슴을 달래고 있는 피해 축산 농가에도 안타까운 마음을 전합니다.

2. 정부가 국정지표로 정한 숫자가 단순한 수치가 아닌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희망과 꿈을 갖게 하는 정책으로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새해부터 오르고 있는 물가를 잡아 3퍼센트 선에서 억제하고 친서민 맞춤형 복지를 늘리고 고른 교육의 혜택과 실업자 구제를 위한 일자리 창출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3. 일반상식으로 알아야 할 시사용어를 몇 개씩 알려 주시고 농촌에서 이색농업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체험수기도 실어 주셨으면 합니다.

독자의견

〈Weekly 공감〉은 독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의견은 〈Weekly 공감〉 제작에 소중하게 반영하겠습니다. 아래의 설문에 의견을 적어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1월 20일(목)까지 gonggam@korea.kr로 보내주십시오. 의견이 게재된 분에게는 3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1. 이번 주에 실린 기사 중 가장 관심 있게 읽은 기사와 그 이유를 적어주십시오.
2. 이번 주 특집으로 다룬 'G20과 G20세대'에 대한 의견을 적어주십시오.
3. 〈Weekly 공감〉에서 다뤘으면 하는 내용을 적어주십시오.

"눈 내리면 아빠가 온다고 했어요"

"할머니 말씀 잘 듣고 있어"
아빠는 이 한마디를 남기고 잠시 슬비를 두고 떠났습니다.
2평 남짓 단칸방의 겨울.. 연탄이 줄어들 때마다,
어린 슬비의 마음도 무거워 집니다.
건강이 악화된 할머니는 빠듯한 정부지원금으로
어린 세 손자들과 버텨내야 할 겨울이 두렵습니다.

"엄마 얼굴 몰라요…"
엄마 얼굴을 그려오라는 숙제에 슬비는 고개를 떨굽니다.
슬비의 소박한 소원은 따뜻한 방에서 가족이 함께 사는 것

추운 겨울을 연탄 몇 장과 최저생활비로 버텨야 하는 아이들에게
당신의 따뜻한 사랑을 전해주세요

국내빈곤아동 후원신청 (월 2만원) **1599-0300** www.gni.kr

굿네이버스는 국내최초로 UN경제사회이사회에서 부여한 NGO 최상위 지위인 포괄적 협의지위를 획득한 국제구호개발NGO입니다.

굿네이버스

정부는 물가안정을 상반기 경제정책의 우선과제로 삼고 전방위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농산물의 경우 수급안정과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가격 급등을 차단할 계획이다.

서민물가 안정 종합대책 발표

공공요금 동결… 물가 불안 심리 잡는다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이 발표됐다. 정부는 상반기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를 물가안정에 두고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하기로 했다. 물가 불안심리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단기정책과 구조적 대책을 병행해 물가안정 기반을 공고히 다진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물가잡기 총력전에 나섰다.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경기회복에 따른 소비 수요 증가, 기상이변으로 인한 농산물 공급물량 감소 등으로 상승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물가를 안정기로 돌려놓는다는 방침이다.

관세 인하를 통해 국제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영향을 완화하고 공공요금은 기본적으로 동결한다. 대학등록금 인상률은 3퍼센트 미만으로 유도하고 재정과 세제상 인센티브를 강화해 민간과 공공부문의 물가안정 노력을 유도하기로 했다.

지속적인 물가안정 대응을 위해 '정부 합동 비상물가 대응체제'도 구축한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매주 주요품목별 동향점검과 대응책을 마련하고 부처별로 소관 품목에 대한 '민관합동 협의체'를 운영해 수급 및 가격동향을 점검한다. 또 부처별로 물가안정책임관(1급)을 지정해 물가안정에 대한 책임도 강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관세를 통한 물가안정을 도모한다. 설탕과 식용유 등 서민생활 밀접품목과 옥수수와 밀 등 국제곡물에 대해선 이미 관세를 인하했으며 최근 가격이 인상되었거나 인상우려가 있는

품목, 국제가격보다 비싼 품목을 중심으로 관세를 추가인하하기로 했다.

중앙의 공공요금은 원칙적으로 동결한다. 또 물가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기업의 물가안정 노력도 유도한다.

농수산물에 대해선 품목별 수급대책을 마련했다. 채소는 농협의 계약재배 및 정부비축 물량을 상반기 중에 최대한 방출한다. 축산물은 구제역으로 인한 도축장 폐쇄조치를 제한적으로 해제해 공급 부담을 덜기로 했다.

농수산물 계약재배·비축 물량 상반기 방출

장기적인 수급안정책도 실시한다. 계약재배의 규모를 확대하고 농업관측의 실효성을 높인다. 농협의 직거래를 늘리고 온라인 직거래 사이트도 운영하는 등 유통구조를 개선한다. 비용을 줄여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물가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지방공공요금 관리 실적을 평가해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재정상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한다.

버스운송사업 지원금을 조기에 집행하는 등 재정적 지원을 통해 공공요금 인상폭을 최소화한다. 또 지방물가 관리지침을 마련해 지방공공요금 인상 수준을 소비자물가상승률 범위 안에서 분산·조정한다.

최근 물가상승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꼽히는 대학등록금도 안정화시킨다. 국립대는 대부분 동결하고 사립대는 동결 또는 3퍼센트 미만의 인상을 유도하기로 했다.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등 주요 재정지원사업의 평가지표 중 등록금 인상률의 비중을 높이는 등 재정지원사업을 통한 안정책도 실시한다

일반 공산품에 대한 대책도 추진된다. 먼저 주요 품목에 대한 가격과 수급의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공산품과 원자재 가격 안정 테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가격 인상을 사전에 점검하고 인상폭도 최소화하도록 유도한다.

화장지, 기저귀, 타이어 등은 가격인하제품의 출시와 할인행사를 확대한다. 원자재는 2천2백억원의 원자재 구매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원자재 가격할인에 참여하는 기업을 늘려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완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물가불안품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특히 최근 가격이 인상되었거나 인상우려가 있는 서민밀접품목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한다. 담합, 리베이트 등 가격 인상을 유발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야기하고 있는 전셋값 상승세를 누그러뜨릴 대책도 내놓았다. 먼저 공급 물량을 확대한다. 봄 이사철에 맞추어 공공부문의 소형 및 임대주택을 조기에 공급한다. 올해 9만7천호의 소형 및 임대주택을 공급하며 공기를 단축해 공급시기를 최대한 앞당긴다.

현재 판교 순환용주택 중 1천3백 호를 임대주택으로 즉시 공급하기로 했다. LH 등 공공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준공 후 미분양물량(2010년 12월 현재 2천5백54호)도 전월세 주택으로 활용한다. 다가구의 경우 입주자 선정절차를 단축해 조기 입주할 수 있도록 한다.

민간 부문의 공급도 활성화한다.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다가구 주택·소형 오피스텔 등 짧은 기간에 공사를 마칠 수 있는 도시 내 소규모 주택건설을 촉진시킨다.

임대주택 공급·금융지원 확대해 전셋값 안정

이를 위해 사업자에게 저리의 자금을 특별지원하기로 했다. 가령 원룸형 도시형 주택의 경우 금리를 종전 4~5퍼센트에서 2퍼센트로 낮추고 대출가능액은 제곱미터당 47만원에서 80만원으로 확대한다.

전세자금 지원도 확대한다. 지난해 5조7천억원에서 6조8천억원으로 지원규모를 늘리고 주택기금의 서민 전세자금 대출 조건 중 '6개월 이상 무주택자' 조항은 폐지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지역적·시기적으로 집중되지 않도록 사업추진 시기도 조정하기로 했다.

갑작스런 주택 감소로 인한 주거불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또 재개발과 재건축 세입자를 위해 순환용 임대주택도 확대 공급하기로 했다. 가계 지출 중 점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통신비 안정책도 추진된다. 먼저 무료통화량을 늘린다. 스마트폰 요금제에서 제공되는 무료음성통화시간을 20분 이상 확대해 1인당 월 약 2천원 이상의 요금인하 효과가 돌아가도록 유도한다. G

글·변형주 기자

기름값 결정구조 원점에서 재검토

정부가 기름값 잡기에 팔을 걷어붙였다. 기름값 결정 구조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후속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국제유가가 오를 때는 즉각 상승하는데 내릴 때는 그만큼 하락하지 않는다는 '가격의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지를 규명하겠다는 것. 석유제품 가격결정 구조를 조사하기 위해 지식경제부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범정부적인 테스크포스팀도 구성하기로 했다. 유통구조 상의 문제를 점검해 제도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지난 14일 '물가안정대책회의'를 주재하고 "휘발유 등 석유제품 가격은 서민생활과 직결되고 서민들의 물가수준을 인식하는 주요 지표 중의 하나"라며 이 같이 밝혔다.

전날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에서도 정부는 석유제품 가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경쟁을 통한 가격안정화도 추진한다. 자가폴(정유사 주유소 이외의 독립주유소), 대형마트 주유소, 셀프주유소 등 원가절감형 주유소를 확대해 가격경쟁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금강 소송도 한강·낙동강에 이어 기각판결
적법성 논란 사실상 종식 4대강살리기 사업 탄력 받는다

4대강반대소송단이 제기한 4대강살리기 사업 취소소송이 잇따라 기각되고 있다. 지난해 12월의 한강, 낙동강 소송에 이어 금강 소송에 대해서도 법원이 기각판결을 내림으로써 4대강살리기 사업은 적법성 논란에서 벗어나게 됐다.
어느 때보다 춥고 눈 많은 겨울이지만 홍수와 가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생명이 살아나는 강을 만들기 위한 4대강살리기 사업은 4대강 본류와 지천 곳곳에서 계획대로 묵묵히 진행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 행정부는 1월 12일 4대강반대소송단이 금강살리기 사업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국토해양부장관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금강 하천공사시행계획 취소소송'에 대해 기각판결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 선고는 4대강반대소송단이 4대강살리기 사업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수계별 소송 중 지난해 12월에 판결이 선고된 한강, 낙동강 소송에 뒤이은 판결이다.

한강, 낙동강 소송에 이어 금강 소송도 정부가 승소함에 따라 4대강살리기 사업 추진에 한층 탄력을 받게 됨은 물론 4대강살리기 사업의 적법성 논란도 종식될 것으로 예상된다.

3백33명으로 구성된 4대강반대소송단은 지난 2009년 11월 26일 국가재정법, 하천법, 환경영향평가법 등 법령 위반 여부와 홍수 예방, 수질개선 효과 등 정책적 타당성 여부 등을 주요 쟁점으로 내세워 금강 하천공사시행계획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다.

4대강반대소송단이 제기한 소송이 잇따라 기각돼 4대강살리기 사업 수행은 더욱 힘을 받게 됐다. 사진은 금강살리기 사업으로 수변공간 조성이 끝난 대전의 둔산대교~대덕대교 사이 행복나눔마당.

재판부는 시민단체의 소송 제기 후 2010년 12월 6일까지 3회의 변론준비기일, 4회의 변론기일, 5명의 전문가 증인신문을 거쳐 변론을 종결하고 이날 기각판결을 내린 것이다.

재판부는 우선 판결문에서 "국가재정법, 하천법, 환경영향평가법, 문화재보호법, 한국수자원공사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한 법적 위반이나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홍수 예방, 용수 확보, 수질 개선,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사업성 등에 대해서도 "4대강살리기 사업이 충분한 필요성을 가지고 있고, 그 수단도 적합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 "법적 위반이나 절차상 하자가 없다"

재판부는 홍수예방과 관련해 "금강 본류에 대한 홍수예방대책의 필요성을 부인할 수 없고, 금강 본류의 정비로 말미암아 지천의 소통을 원활하게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용수확보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금강권역에서도 상당한 정도의 물 부족이 예상되므로 이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의 필요성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홍수예방, 용수확보와 관련해 유량 확보를 위한 보(洑)의 설치나 통수 단면적 확대를 위한 하상(강바닥) 준설도 적절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수질문제에 대해서는 "하수처리장 확충, 하수관거 정비, 가축분뇨처리시설 등 다양한 수질개선사업이 함께 추진 중이며, 수질모델링 결과에 의해서라도 '좋은 물'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금강 주요지점의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총인(TP) 등이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것으로 예측됐다"고 언급했다.

생태계 영향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다양한 수질개선과 생태계 보호대책을 포함하고 있어 생태계에 다소 변화가 예상된다 하더라도 사업으로 인해 얻어지는 이익을 능가할 정도의 생태계 파괴가 초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국토부 "국가적 역량 다해 아름답고 깨끗한 강 복원"

마지막으로 4대강살리기의 사업성에 대해서는 "이 사업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 생산 유발효과 등으로 상당 부분 실물경기의 회복에 기여하고 있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고, 이 사업은 단순히 일자리뿐만 아니라 금강 유역의 홍수예방, 수자원 확보,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복합 문화·생태공간 창조 등에 역점을 둔 다목적 사업"이라는 점을 언급했다.

국토해양부는 이날 기각판결에 대해 "대전지방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히면서 "4대강살리기 사업을 성공리에 완수하여 홍수와 가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아름답고 깨끗한 강을 복원하는 데 국가적 역량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금강의 금남보. 멀리 세종시가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아울러 "4대강살리기 사업이 미래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강 중심의 미래 국토창조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현재 4대강살리기 사업의 보 건설과 준설사업 공정률은 각각 72.5퍼센트, 66.4퍼센트로 정부는 금년 상반기에 보 건설과 준설사업을 끝마치고 하반기에는 수변생태공간 조성 등 4대강 본류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4대강반대소송단이 제기한 소송 중 마지막으로 남은 영산강 소송은 1월 18일 선고된다. G

글·박경아 기자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금강살리기사업 취소소송 개요와 기각판결 요지

소송 개요

원고 : 4대강반대소송단 333명

피고 : 국토해양부장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재판부 : 대전지방법원 행정부

주요 쟁점 : 국가재정법, 하천법, 환경영향평가법 등 법령 위반 여부와 홍수예방 · 수질개선 효과 등 정책적 타당성 여부

기각판결 요지

법령 위반: 법적 위반이나 절차상 하자 없음

홍수 예방 : 금강 본류 정비로 인해 지천의 소통 원활하게 함

용수 확보 : 물 부족 예상돼 보 설치와 하상준설 적절성 인정됨

수질 문제 : 다양한 수질개선사업이 병행되고 있으며 수질 리모델링 결과 수질 개선 예측됨

생태계 영향 : 다소 변화는 예상되나 사업으로 인해 얻어지는 이익을 능가할 정도의 생태계 파괴는 초래되기 어려움

사업성 : 일자리 창출, 생산유발 효과 등 상당 부분 실물 경기 회복에 기여

4대강살리기 사업 공정률

종합 현황 : 170공구 중 15개 완료, 154개 진행 중, 1개 미착공

전체 공정률 : 전 수계 46.9%, 4대강 본류 52.4%

보 건설 : 72.5%

콘크리트 타설 : 74.8%

준설 : 66.4%

2011년 1월 6일 기준

연합

아랍에미리트(UAE)에 파병된 한국 아크(Akh)부대 지휘관 최한오 중령이 지난 1월11일 UAE 알아인공항에 도착한 뒤 UAE 군 간부와 포옹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UAE 군사훈련협력단 아크부대 1백30명 출국

‘형제’ 파병으로 국익창출 신모델

아랍에미리트(UAE)와의 군사훈련 협력을 위해 1백30명 규모로 편성된 아크부대를 파견했다. 전투위험이 없는 비분쟁 지역에 상대국의 요청에 따라 우리 군을 파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크부대는 UAE에 우리 군의 우수한 교육훈련 경험을 전수하고 평화를 공유하는 ‘형제’ 부대로서 양국 간 교류와 협력 확대에 다리를 놓게 될 것이다.

아랍에미리트(UAE) 특수전부대의 교육훈련을 지원하고 연합훈련을 통해 우리 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높이게 될 UAE 군사훈련협력단 아크부대 본대가 1월 11일 전세기 편으로 출국했다.

국방부는 1월 10일 오전 경기 광주시 특수전교육단에서 김관진 국방부장관과 한민구 합참의장, 김상기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해 부대 장병·가족, 군 관계자 등 6백여 명이 참석해 ‘UAE 군사훈련협력단 창설 및 환송식’을 거행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김 장관이 대독한 환송 격려사를 통해 “UAE는 우리 군의 주둔을 위해 온갖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며 “맡겨진 임무를 충실히 완수해 우리 특전사를 선택한 UAE의 결정이 진정 옳은 것이었음을 확인시켜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이번 아크부대 파견은 기존의 유엔평화유지군과 다국적군 파병과는 다른, 새로운 유형의 파견”이라며 “전투 위험이 없는 비분쟁 지역에서 상대국의 요청에 따라 우리 군의 우수한 교육훈련 경험을 나누는 군사협력 모델이며 대테러 교육훈련에 중점을 두고 있어 양국 차원을 넘어 세계평화를 위한 군사협력이기도 하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아크는 아랍어로 ‘형제’라는 의미로, 파견부대와 UAE 특전부대의

친밀한 관계를 표현한 것이다.

아크부대는 특수전팀·고공팀·대테러팀·지원부대 등 총 1백30명 규모로 편성됐다.

아크부대는 지난해 12월 8일 국회에서 UAE 국군파견 동의안이 의결된 이후 지난 4주간 현지 소개교육, 대테러 및 특수작전 수행절차 숙달, 특공무술 등 파견에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을 마쳤다.

"특전부대 우수성 알리고 대한민국 국격 향상 기여"

초대 UAE 군사훈련협력단장 최한오 중령은 "'세계 최강 특전용사, 하나 돼 임무완수'라는 구호 아래 임무수행 과제를 완벽하게 숙달해 장병들의 사기가 최고 수준에 올라 있다"면서 "파견지에서 완벽한 임무수행으로 대한민국 특전부대의 우수성을 알리고 대한민국의 국격을 격상시키는 데 기여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앞으로 UAE 알 아인의 특수전학교에 주둔하면서 UAE 특수전부대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과 연합훈련 등 군사교류 활동을 하고, 유사시에는 UAE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임무도 수행한다.

UAE는 중동에서 가장 안전한 국가 중 하나이며 수도 아부다비에서 동쪽으로 1백60킬로미터 떨어진 주둔지 알 아인 지역 또한 지금까지 현지 주둔 중인 외국군에 대한 테러가 없었던 지역이다.

이번 아크부대 파견은 전투 위험이 없고 안전한 비분쟁 지역에서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국익을 창출하는 데 기여하는 새로운 개념의 시도다. 이 대통령이 환송 격려사에서 밝힌 것처럼 전투 위험이 없는 비분쟁 지역에서 상대국의 요청에 따라 우리 군의 우수한 교육훈련 경험을 나누는 군사협력 모델인 셈이다.

또 아크부대 파견은 다양한 분야에서 국익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UAE 측이 아크부대 파견을 전략적 협력 파트너로서의 신뢰와 협력의 시발점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방부는 아크부대 파견이 안보 협력 분야의 관계 강화는 물론 에너지 안보 및 걸프지역 평화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동시에 이 지역과 관련된 국가 이익도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중동지역 방위산업 수출의 전진기지로서 이 지역의 방위산업 수출 협력 확대를 위한 유리한 여건이 조성되는 것이다.

즉, 군사자문단·국방시스템 수출의 허브로 발전 및 한국군 예비역·민간 전문인력의 진출이 잇따르며 국가 차원의 경제 협력 확대에도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군사자문단·국방시스템 수출의 허브로

한편 파견부대 운용에 필요한 경비는 우리가 부담한다. 집행되는 예산의 대부분은 파견 장병들의 의식주와 편익증진(30퍼센트), 임무수행에 필요한 장비·물자 구입(40퍼센트), 지휘통신체계 유지와 수송 등에 사용된다.

나머지 교육훈련 지원에 필요한 각종 훈련장과 항공자산, 장거리 수송수단, 주둔시설 등은 UAE 측에서 제공한다. 이는 UAE에 주둔 중인 다른 선진국도 마찬가지다.

아울러 파견 규모가 1개 지역대 수준인 1백30명 정도이기 때문에 일부에서 우려하는 대북 군사대비 태세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하다고 국방부는 분석하고 있다.

"우리 특전부대 전체 규모로 볼 때 소수 병력이며, 부대 파견 자체가 곧 해외전지훈련 효과를 갖는 것은 물론 유사시에는 언제든지 복귀해 즉각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군 관계자가 밝혔다. G 글·이주형 (국방일보 기자)

조선DB

1월 10일 오전 경기도 광주 특수전교육단에서 열린 '아랍에미리트(UAE) 군사훈련협력단 창설 및 환송식'에서 파병 장병들이 임무 완수를 위한 다짐을 하고 있다.

추위야, 한판 붙자!

“겨울 하늘을 날고 싶다.”
보드 · 스키 타는 사람들은 매년 눈 내리는 겨울을 기다린다. 답답한 사무실에서 벗어나 겨울 하늘을 비상하는 쾌감을 맛보기 위해서다. 어린 시절 꽁꽁 언 동네 강 위에서 스케이트를 타던 추억에 젖어 아이스링크로 달려가는 이들도 있다. 또 빙벽을 오르는 등반객들, 얼음을 깨고 낚시를 하는 강태공들도 바로 오늘을 기다렸다.

영하 10도가 넘는 강추위 속에서도 겨울 스포츠 열기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스키·보드족은 겨울을 맞아 신바람을 내고 있으며, 아이스링크에는 스케이트를 타려는 이들로 넘쳐난다. 대중적인 겨울스포츠로 자리 잡은 스키와 보드는 경기도(곤지암리조트, 양지파인리조트, 지산리조트), 강원도(하이원리조트, 용평리조트, 보광피닉스파크) 등에서 즐길 수 있고, 스케이트는 서울 시내에서도 만끽할 수 있다. 서울 목동 아이스링크, 월드컵공원 스케이트장, 올림픽공원 스케이트장, 태릉 국제스케이트장 등이 있기 때문이다. 스키, 보드, 스케이트보다 더욱 짜릿함을 선사하는 빙벽타기는 특히 겨울철에만 즐길 수 있는 야외활동이다. 한국등산학교에서는 동계반을 통해 '빙벽 등반'을 가르쳐준다. 강태공의 진수를 맛보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얼음낚시를 권한다. 주로 붕어, 잉어, 빙어가 잡힌다. G

글·서일호 기자

1 강원도 설악산 토왕골에서 한국등산학교 동계반이 빙벽타기를 하고 있다.

2 경기도 일산의 매직 아이스링크에서 학생들이 스케이트를 타고 있다.

3 '한 마리 새처럼'. 강원도 평창 용평리조트에서 한 스노보더가 묘기를 펼치고 있다.

4 강원도 정선군 하이원리조트에서 한 스키어가 스키를 즐기고 있다.

국립수의학과검역원 구제역 상황실 24시

“내가 쓰러지면 동료가 더욱 힘들어진다”

방역 현장의 최일선 “이틀에 40시간 근무… 아파도 참아요”

작년 11월 26일 안동에서 처음 신고된 구제역은 2011년 1월 13일 현재 전국 50개 시군으로 확산됐다. 매몰처리 된 소·돼지 등의 가축이 1백50만 마리에 이른다. 국내에서 사육 중인 소와 돼지의 11퍼센트에 이르는 숫자다.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 중인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구제역 비상대책 상황실을 취재했다.

연일 이어지는 강추위 속에 민관군이 총동원되어 방역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사진은 2011년 1월 2일 천안시 수신면 구제역 가축 매몰 현장에서 출입 차량을 소독하는 모습.

지난 1월 11일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에 있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이주호)을 찾았을 때 함박눈이 퍼붓고 있었다. 밖에서 본 수의과학검역원의 건물은 흰 눈에 덮인 채 고요한 정적만 흐르고 있었다. 하지만 검역원 본관 2층에 마련된 ‘가축방역대책 상황실(구제역 비상대책 상황실)’에 들어서자 순간 딴 세상으로 들어온 듯한 느낌을 받았다.

바깥은 한파에 큰 눈까지 내리고 있었지만, 상황실 안은 근무자들이 내뿜는 긴장과 열기로 후끈거렸다. 상황실 근무자들은 쉴 새 없이 어딘가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도 양손은 컴퓨터 자판 위를 부지런히 움직였다. 상황실 전면에 걸린 대형 TV모니터에는 전국에서 발생한 구제역 현황을 빨간색 점으로 표시한 지도가 떠 있었다.

옆쪽 벽 앞에 놓인 흰색 칠판에는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현황과 예방접종 지역을 나타내는 표가 그려져 있었다. 상황실 사방 벽면에는 구제역 방역(防疫)에 관한 프린트물이 가득 붙어 있었다. 한 프린트물에 구제역 신고 현황이 시간대별로 적혀 있는 것이 보였다. 마지막 신고 번호는 155번. 지금까지 1백55건의 구제역 발생 의심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뜻이다.

상황실 구석에 놓인 두 개의 간이침대

상황실을 안내한 이병관 홍보담당 사무관은 “1월 13일 현재까지 양성판정 받은 가축의 90퍼센트가 매몰처리 되었다”며 “예방백신 접종 대상 가축 가운데 소는 68.4퍼센트, 돼지는 69.2퍼센트가 접종을 마쳤다”고 말했다.

“현재는 구제역이 전국으로 번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방접종에

온 힘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29일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확정 판결을 받은 그 순간부터 상황실이 가동되었습니다. 우리 검역원 직원들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실상 하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계속 출근하고 있습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가축과 축산 식품의 위생을 관리하고, 검사하기 위해 설립된 농림수산식품부 산하의 검역기관이다. 우리나라 영토를 드나드는 모든 동물과 축산물에 대한 검역과 검사를 비롯하여 반려동물과 주요 가축의 전염병과 인수공통 전염병에 대한 진단과 방역활동, 축산 식품의 안전관리, 동물 약품의 품질관리 등 여섯 가지 주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병관 사무관은 "검역원 전체 직원이 5백91명인데 이 가운데 5백6명이 구제역비상대책 상황실 요원으로 배치된 상태"라고 말했다. '구제역과의 전쟁'에 검역원 전 직원이 동원되었다는 의미다. 전국으로 퍼지고 있는 구제역의 확산을 막는 것도 벅찬데 고병원성 AI까지 가세하자 검역원 구제역 비상대책 상황실은 그야말로 초비상이다.

현재 상황실은 종합상황반, 역학조사반, 병성감정·혈청검사반, 방역지도반, 검역대책반, 유통감시반, 홍보반 등 7개 반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었다. 그중에 종합상황반은 상황실의 헤드쿼터(headquarters) 역할을 하는 곳이다. 이곳은 전국에서 걸려 오는 구제역 신고를 받아서 분석하고, 상부에 보고하고, 다른 반에 상황을 알려 신속한 대처를 하게 하며, 일선 검역 현장에 행동 요령을 지시하는 등의 일을 하고 있다.

이 가운데 종합상황반처럼 검역원 본원 내에 있는 반도 있지만, 역학조사반이나 방역지도반처럼 구제역 발병 현장을 누비는 반도 있다. 구제역 바이러스를 검사하는 혈청검사반은 별도의 건물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이곳은 취재진(외부인)의 출입이 허용되지 않았다. 건물 전체의 공기가 외부와 차단되는 특수 시설이 갖춰져 있다고 한다.

종합상황반은 20명이 2개조로 나뉘어 근무하고 있었다. 종합상황반의 손한모 수의사무관(질병관리과)은 "질병관리과 직원들이 종합상황반을 맡고 있는데 인원이 부족해서 다른 부서의 직원까지 투입된 상태"라고 말했다. 손 사무관의 설명이다.

"지금 직원들의 피로가 많이 누적되어 있어 걱정입니다. 2교대로 상황실을 운영한다지만, 사실상 이틀에 40시간을 근무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집에 가서 쉰다고 일에서 해방되는 것도 아닙니다. 인원이 부족하고, 본인이 맡은 업무를 다른 사람이 대체할 수가 없기 때문에 퇴근 후라도 사실상 업무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손 사무관은 "노력하는 만큼 빨리 구제역이 잦아들었으면 좋겠지만 확산 속도가 빨라서 직원들의 노력이 반감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힘들지만 민관군(民官軍)이 일심 합체가 되어 노력 중이기 때문에 조만간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경리 기자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설치된 가축방역대책상황실의 긴장된 모습. 상황실은 구제역이 확정 판결된 작년 11월 29일부터 운영되고 있다.

역시 종합상황반에 근무 중인 김석재 수의주사(질병관리과)는 "현재 감기가 심해서 좀 쉬고 싶지만 내가 쉬면 동료가 두 배로 힘이 들기 때문에 참는다"며 "몸이 좋지 않은 사람이 많아 감기 가지고는 이야기도 꺼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상황실 구석에 놓인 두 개의 간이침대가 상황실의 현재 분위기를 대변하고 있는 듯했다.

"1월 말이면 구제역 확산세 한풀 꺾일 것"

주이석 상황실장은 "혹한 속에서 검역원 직원들과 지자체 공무원들, 군인들이 최선을 다해서 방역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1월 말 정도면 확산기세가 한풀 꺾일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최초에 구제역이 발생한 안동과 경북 내륙 지역은 그동안 구제역이 한 번도 발생하지 않은 곳입니다. 그래서 농장주의 신고가 늦은 것 같은데 그것이 구제역 확산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대형 축산농가는 도축 출하차량과 사료, 분뇨, 각종 기자재를 실은 차량이 하루에도 수없이 드나드는 곳입니다. 또한 겨울이라 구제역 바이러스 생존 기간이 여름보다 긴데, 이러한 여러 상황이 겹치면서 구제역이 전국으로 확산된 것입니다."

주 상황실장은 "구제역은 사람과 동물 모두에게 전염되는 전염병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에게 옮기지 않는다"며 "예방접종을 받은 소나 돼지고기도 안전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국회에서 가축 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앞으로는 전염병 예방과 초기대응 등이 좀 더 효과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현재 방역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가축방역의 3대 조건이 신속한 신고, 정확한 진단, 강력한 이동 통제인데 지금의 방역 인원으로는 효과적인 대응을 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방역관련 인력 보강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G

글·이상흔 기자

'매몰 안정화' 거치며 침출수 안전 확보

전국 소·돼지 1천3백만 마리 백신 접종… 선제적 조치로 확산 차단

정부는 구제역 대응을 위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백신 접종을 전국으로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현재 전국에서 사육되고 있는 소·돼지는 약 1천3백만 마리로 모든 우제류에 백신을 접종할 것으로 예상된다. 백신은 두 차례 접종해야 하기 때문에 2천6백만 마리 분량이 필요하다. 정부는 1천1백만 마리분의 백신 도입계약을 완료했으며, 2월까지 1천5백만 마리 분량을 해외에서 들여올 계획이다.

조선DB

지난 1월 11일 전남 영암산림항공관리소 소속 헬기가 AI 예방을 위한 항공 방제작업을 하고 있다.

정부는 구제역 차단을 위한 최후의 보류인 구제역 백신을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 소·돼지 등에 대해 확대 접종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1월 12일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총리와 관계 장관이 참석해 구제역 대응을 위한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금까지의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 예방차원의 선제적인 대응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실시해 온 백신 예방접종을 전남·북, 경남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와 같이 선제적인 백신 접종을 통해서 구제역의 추가확산을 막고, 살처분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방백신은 현재까지 확보하였거나 도입계약이 완료된 총 1천1백만 마리분 외에 추가적인 소요량을 신속히 확보하기로 했다.

신속한 백신 예방접종과 함께 현재와 같은 방역 조치는 보다 강력하게 시행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상황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함께 국무총리가 직접 점검키로 했다.

현재 전국에서 사육되고 있는 소·돼지 등 우제류(발굽이 두 개인 동물)가 약 1천3백만 마리인데 모든 우제류에 접종할 것으로 예상된다. 백신은 두 차례 접종해야 하기 때문에 2천6백만 마리 분량이 필요하다.

정부는 1천1백만 마리분의 백신 도입계약을 완료했으며, 2월까지 1천5백만 마리 분량을 해외에서 들여올 계획이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선제적 백신 접종을 통해 구제역 확산을 막고 살처분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0년 12월 25일 시작된 백신 접종은 지난 1월 16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실시됐다.

고병원성 AI 확산 방지 대책

27일까지 전통시장 닭·오리 판매 금지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월 11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전남 및 경기도로 확산됨에 따라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Yellow)'단계에서 '경계(Orange)'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이는 2010년 12월 29일 충남 천안 및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AI가 지난 1월 11일까지 전남 영암·나주, 충남 아산 및 경기 안성 등 4개 시·도 6개 시·군에서 총 16건이 발생했고, 확산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위기경보 단계는 관심(Blue) → 주의(Yellow) → 경계(Orange) → 심각(Red) 순이다.

나주와 영암의 매몰처분 범위가 발생농장 반경 3킬로미터 이내로 확대되면서 AI로 인한 매몰처분 규모는 지난 12일 전국적으로 2백60만 마리를 넘어섰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충남 천안과 전북 익산에서 시작된 조류인플루엔자가 경기 안성에서도 발생하는 등 수도권을 향해 북상함에 따라 위기경보 수준을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AI가 추가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1월 13일부터 27일까지 15일간 전통시장에서 살아 있는 닭과 오리의 판매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매몰처분 대책

지자체별 지하수길 모니터링… 국유림 이용 확대

환경부는 가축매몰지역의 환경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사후관리단'을 구성해서 매몰지를 점검한다.

이에 따라 가축매몰지 주변지역의 지하수 수질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지역주민의 먹는 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매몰지역에 상수도보급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0년 11월 29일 이후 1월 11일까지 구제역, AI의 발생으로 인한 가축매몰지는 경북 안동지역을 포함하여 전국 53개 시·군에 2천2백59개소로 집계돼 기존에 발생했던 매몰지 9백66개소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제역·AI에 걸린 가축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방역 차원에서 긴급 매몰처리하기 때문에 구제역 등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매몰지가 많이 발생했고 '구제역 긴급행동지침'에 따른 매몰처리가 미흡했던 경우도 일부 생겼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 나타난 매몰지 밖으로 핏빛 침출수가 유출된 사례는 매몰 초기에 생석회와 사체가 반응하여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며, 안정화가 진행되면서 급감했다. 또 핏빛 침출수로 보도된 매몰지(파주, 영천 등)는 배수로가 미처 설치되지 않아 도로, 도랑 등으로 유출된 것이었다. 지하수나 상수도의 오염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북도는 사후대책반을 구성하여 매몰지 점검, 지하수질 모니터링 등을 추진 중에 있고, 경기도는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배수로 및 저류조 설치 등 매몰지 보완 작업을 하고 있다.

한편 산림청은 지난 1월 6일 구제역·AI 확산 차단을 위해 가축매몰 장소로 국유림을 제공하겠다고 밝혔고, 각 지자체의 국유림 사용 요청이 잇따르고 있다.

산림청은 지난 1월 13일 "경기 고양시·여주군, 강원 원주시·횡성군·평창군, 충남 보령시·진천군, 경북 안동시 등 8개 시·군으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아 모두 9곳 7천3백23제곱미터의 국유림을 제공해 가축 3만1천7백97마리를 매몰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허경태 산림이용국장은 "구제역 피해지역 지자체로부터 매몰 협조와 관련된 전화문의가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매몰지 제공요청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해당 지자체가 요청하면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처리하고, 긴급한 경우에는 국유림에 우선 매몰한 뒤 사후에 행정처리를 하도록 하는 등 구제역 차단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1월 11일부터는 조류인플루엔자가 심각한 전남지역의 AI 방제에도 나서 헬기 2대로 5곳 7백81헥타르에서 항공 방제를 시행하고 있다.

가축법 개정안 국회 통과

가축전염병 발생국 공개, 소독의무화 등 신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월 13일 해외 가축전염병의 국내유입 차단과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국경검역과 국내방역 시스템 강화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김학용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대표 발의한 1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농식품위원회 대안으로 마련된 것이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매몰 대책 및 시·도 가축방역기관 지원 대책 추가(제3조)가 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살처분·소각·매몰 등 가축 방역에 따른 주변환경 오염방지 대책 및 사후관리 대책을 추가하고, 살처분·매몰에 직접 관여한 자 등에 대한 심리적·정신적 안정을 위한 치료를 포함하는 사후관리대책을 마련하며 매몰 후보지를 미리 선정하여 관리하는 책무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또 해외 가축전염병 발생국가의 현황을 공개해서, 해외여행 시 이들 국가의 여행을 자제하도록 유도(제3조의 2)하고, 해외 가축전염병의 국내유입 차단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 방역관리와 축산농장주 등의 해외여행 후 입국 시 소독 의무화 등 제도 신설 (제5조)이 주요 내용이다. G

글·서일호 기자

조선DB

'그래, 네가 희망이다.' 구제역 확산으로 소, 돼지에 대한 살처분이 이어지는 가운데 1월 13일 경남 함양군 수동면 화산리 미동 한우농장에서 방역요원이 갓 태어난 송아지를 보살피고 있다.

"한우도 살리고 축산농가도 도와라" 온힘

구제역에 이은 고병원성 AI의 확산으로 깊어지는 축산농가의 시름을 덜기 위해 전국에서 총력전이 벌어지고 있다. 방역 현장에서는 공무원을 비롯해 군인·자원봉사자 등 방역요원들이 밤낮을 잊고, 휴일도 거르고 방역과 백신 접종·살처분에 사력을 다하고 있다. 한우를 살리고 축산농가를 돕기 위한 정부와 민간의 각종 지원책도 이어지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구제역 피해를 본 농장주에게는 ▲매몰처분 보상금 ▲생계안정 자금 ▲가축입식 자금 ▲중·고교 자녀 학자금 면제와 일부 세액 공제 등의 지원책을 마련해놓고 있다.

매몰처분 보상금은 가축시세의 1백 퍼센트를 보상한다. 다만 신고를 늦게 했거나 소독 등 명령을 어겼을 경우 감액할 수 있다.

생계안정자금은 가축입식 제한기간 중 축종별로 땅에 묻은 마릿수에 따라 최대 1천4백만원까지 지원된다. 낙농가는 생계안정자금(가축입식자금 포함) 대신 6개월분 원유판매 순수익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가축입식 자금 지원액은 실제 입식 마릿수×산지 값이다. 연리 3퍼센트, 2년 거치, 3년 상환 조건으로 가축입식 자금의 1백 퍼센트까지 가능하다.

NH보험은 축산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공제료 납입을 2012년 1월까지 유예해 주기로 했다.

공제료 납입 유예 대상은 2011년 1월 4일 현재 유효한 계약으로, 공제계약자가 '피해사실 확인서'를 행정관청이나 영농회장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한 경우다. 또 2011년 1월 4일 이후 실효된 계약에 대해서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첨부할 경우 2012년 1월 3일까지 부활하는 계약에 대해 부활 연체이자를 면제해 줄 예정이다.

피해 농가 자금지원책 속속 마련

삼성생명도 구제역 등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축산농가를 위해 보험료 납입과 대출금 상환을 6개월간 유예해 주기로 하고 2월 말까지 유예신청을 접수한다. 가축 살처분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은 보험료, 대출이자, 부동산 담보대출 등의 원리금을 연기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이후 나눠서 상환할 수 있다.

구제역과 고병원성 AI에 피해를 본 축산농가 자녀에 대한 지원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대는 축산농가 자녀의 1학기 등록금을 전액 면제해 주기로 했다. 등록금 면제 대상은 2011학년도 신입생을 포함한 재학생 가운데 매몰 처분된 축산농가의 자녀다.

자녀 장학금 지원과 정신적 피해 상담

경북대도 2011학년도 신입생과 재학생 중 구제역 발생 및 예방 살처분 축산농가 자녀들에게 특별장학금을 지급키로 하고 1월 중 피해 학생들의 신고를 접수한다. 또 순천향대도 구제역과 고병원성 AI로 피해를 입은 농가의 학생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증명서를 제출하면 특별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대구대도 2011학년 신입생과 재학생 가운데 구제역 등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 자녀일 경우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1월 17일부터 신청서를 접수한다. 지원되는 장학금은 피해 규모에 따라 전액과 반액, 3분의 1이다.

이 밖에 충북을 비롯한 광역자치단체들도 자체 장학재단 등을 통해 피해 농가의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대병원은 구제역에 걸린 가축 살처분에 따른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농민과 방역요원을 위해 홈페이지(www.snuh.org)에 정신건강 상담코너(Q&A)와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선별 검사(자가진단) 코너를 운영하고 있다.

구제역 파동으로 위축된 한우 소비 촉진을 위한 노력도 펼쳐지고 있다. 구제역이 인체에 무해한데도 쇠고기 기피 현상으로 한우 소비 감소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한우 살리기' 캠페인·원산지표시 일제 단속

농림수산식품부는 설을 앞두고 한우를 포함해 우리 땅에서 건강하게 길러낸 우수 품질 농수산물, 각종 품평회 수상작들을 모은 설날 명절선물세트 카탈로그를 제작·배포하고 있다.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전경련 회원사 및 공공투자기관, 지자체 등 6천여 곳에게 서한과 카탈로그를 보내 우리 농수산식품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 줄 것을 요청했다.

카탈로그에는 각종 농식품대전 수상 및 출품작과 농·수·축협, 산림조합, 지자체 등이 추천한 제품들이 소개되어 있다.

한우자조금과 한우협회는 연말연시, 설 명절 한우 소비촉진을 위해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오는 설 명절까지 약 한 달간 일정으로 한우 할인행사를 진행 중이다.

대표적 한우마을인 강원 영월군 주천면 다하누촌은 설을 앞두고 본점 앞 중앙광장에 가마솥 6개를 설치하고 24시간 동안 고아낸 한우 사골 국물을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등의 이벤트로 한우에 대한 관심을 살리고 있다. 명품 한우 브랜드를 자랑하는 횡성축협도 사람은 구제역에 감염되지 않는다는 것과 질병에 걸린 가축은 절대 유통될 수 없다는 점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한편 설을 앞두고 소고기 값이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철저한 방역을 전제로 도축장 폐쇄조치가 제한적으로 해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값싼 수입농산물이 국산으로 둔갑 판매되는 일을 막기 위해 1월 14일부터 설 전날인 2월 2일까지 소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 등에 대해 대대적인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G

글·박경아 기자

가축질병 신고 전용전화 1588-4060, 1588-9060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홈페이지 www.nvrqs.go.kr

유언비어·괴담에 속지 마세요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사용 촉진을 위해 정부가 구제역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괴소문이 있는데 이는 매우 무책임한 선동이다."

박선규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1월 11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및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정부가 구제역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식으로 문제들이 조장되는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이어 "이런 무책임한 선동은 피해 농민을 더 가슴 아프게 하고 확산 방지를 위해 애쓰는 공무원들을 서글프게 하는 말"이라며 국무회의에서 나온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말을 빌려 "구제역은 섭씨 50도 이상에서 가열되면 균이 죽는데, 사람에게는 온도와 관계없이 전파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오해하기 쉬운 구제역과 AI 관련 의문점에 대한 질문과 답변.

Q. 구제역 예방접종을 한 고기는 먹어도 안전한가.

A. 구제역은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는다. 구제역 백신은 바이러스를 죽인 백신이므로 접종하더라도 가축 몸속에는 구제역 바이러스가 존재하지 않는다.

Q. 구제역 예방접종을 하면 그동안 수입이 금지됐던 중국산이나 베트남산 등의 축산물 수입을 막을 수 없다던데 사실인가.

A. 국가 간 축산물 교역은 양국 간에 체결하는 축산물 수입위생 조건으로 정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예방접종과 함께 구제역 감염 가축에 대한 매몰처분을 동시에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축산물을 무조건 허용하지 않는다.

Q. 왜 돼지보다 소를 우선 예방접종 했는가.

A. 소가 돼지보다 감염 전파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다. 소는 10개 정도의 바이러스만 있어도 구제역에 감염되지만, 돼지는 8백~1천 개 정도의 바이러스가 있어야 감염될 정도로 차이가 크다.

Q.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는데 닭고기, 오리고기, 달걀을 먹어도 안전한가.

A.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면 발생농장 주변지역에서 사육되는 닭, 오리뿐만 아니라 식용란까지 살처분·폐기하고 이동통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AI에 감염된 닭고기 등은 시중에 유통될 수 없다. 또 닭·오리를 판매하는 재래시장에 대해 1월 27일까지 영업 중단조치가 내려졌다. 게다가 AI 바이러스는 열에 약해 섭씨 70도에서 30분, 섭씨 75도에서 5분, 섭씨 80도에서 1분간 열처리하면 사멸한다.

Q. 고병원성 AI는 사람으로도 전파가 가능한가.

A. 사람에게 옮기려면 우선 닭·오리에서 장기간 순환감염을 하면서 바이러스가 인체감염이 가능한 바이러스로 변이돼야 하고, 사람이 고농도로 바이러스에 직접 접촉해야만 감염되는데 그런 사례는 국내에서 발생한 적 없다.

*온(溫)맵시란? 여름철 노타이 차림의 쿨맵시 캠페인에 이은 겨울철 따뜻하게 옷입기(내복입기, 겹쳐입기) 캠페인입니다.

온(溫)맵시로 따뜻하게 실내온도 20℃!

고유가 시대 에너지 소비가 가장 많은 겨울철,
내복 착용만으로 체감온도가 3℃ 상승합니다.
온 국민이 내복을 입고 난방온도를 3℃만 낮추면 난방에너지의 20%가 절약되며,
대한민국 전체로는 1조8천억원이 절약됩니다.

대한민국정부

기획특집

21세기 광개토대왕들 세계를 향해 달린다

두근두근… 힘차게 울리는 세찬 심장 박동 소리가 들리는가.
때로는 배낭을 메고, 때로는 가슴 벅찬 꿈을 안은 채 세계로 향하는,
혜초의 꿈을 단박 실현하고 이준 열사의 비통함을 날려버린 글로벌(Global) 세대,
그린(Green) 세대의 심장이 뛰고 있다. 서울 G20 정상회의를 분기점으로 세계 최대의
경제영토를 가진 대한민국의 새로운 개척자로 나설 이들이 바로 G20세대다.
귀 기울여보라. 어떠한 굴함도, 그늘짐도 없는 G20세대 젊은이들의
세계를 향한 가슴 뜀이 들리지 않는가.

긍정적 자세로 한국을 넘어 세계를 무대로

‘글로벌 코리아’의 희망 세대가 떴다

새로운 세대가 등장했다. 역사상 최초의 글로벌 세대다. 긍정적인 자세로 난관을 극복하고 한국을 넘어 세계를 무대로 삼는다. 이들의 이름은 ‘G20세대’. 세계국가 대한민국의 주역들이다.

“우리의 미래는 젊은 세대에 있습니다. 지금의 청년 세대는 우리 역사에서 글로벌 세대로 일컬을 수 있는 사실상 첫 세대입니다. 세계를 무대로 뛰고 경쟁을 주저하지 않으며, 창조적 도전정신에 불타는 젊은이들을 우리는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청년들을 G20세대로 부르고자 합니다.”

지난 1월 3일 이명박 대통령은 신년 국정연설을 통해 새로운 세대의 등장을 알렸다. G20세대다. G20세대는 특정 연령대를 지칭하기보다는 서울 G20 정상회의라는 역사성을 배경으로 탄생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개발도상국 최초로 G20 정상회의를 유치한 것은 물론 세계적 의제를 주도하며 이끌어 낸 ‘서울 컨센서스’를 실현시킬 주인공들이라는 목표지향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세대라는 의미다.

G20세대의 가장 큰 특징은 ‘글로벌’이다. 세계무대에 두려움 없이 도전하고 세계 속에서 꿈을 꾼다. 활동 분야는 제한이 없다. 해외로 나가 배우고 봉사하고 일하면서 세계시민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다면 진정한 G20세대라고 부를 수 있다.

두려움 없이 세계무대에 도전

김난도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이와 관련해 ▲지구적 관점에서 세계를 조망 ▲한류세대로서 문화적 자부심이 충만 ▲다문화적 경험에 익숙 ▲탁월한 어학실력과 문화적 개방성 등을 G20세대의 특징으로 꼽았다.

글로벌 마인드는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한국이 주도해 합의를 이끌어 낸 ‘개발의제’와도 연관이 있다. 한국이 제안한 개발의제는

조선DB

2010년 10월 31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2010 서울 G20 정상회의 자원봉사자발대식'에 참가한 자원봉사자들이 활짝 웃고 있다.

"G20세대의 가장 큰 특징은 '글로벌'이다. 세계무대에 두려움 없이 도전하고 세계 속에서 꿈을 꾼다. G20세대의 G는 녹색을 의미하기도 한다. 21세기 녹색문명 시대의 새로운 가치와 윤리, 생활습관을 내면화하는 첫번째 세대가 그들이다."

선진국과 후진국의 동반성장과 공동번영을 지향한다. 개도국과 신흥국을 지원해 갈수록 벌어지고 있는 국가 간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개도국 국민들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자는 것이다.

정부는 개도국과 신흥국의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한국의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형 글로벌 개발 모델'을 전수하고 개발에 필요한 인프라와 인력 등 성장잠재력을 강화할 수 있는 개발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다극화되고 있는 새로운 국제질서 재편 과정에서 한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글로벌 리더십은 결국 사람에게서 나온다. 글로벌 마인드와 전문성, 도전의식, 세계시민의식을 갖춘 우수 인재들이 양성되고 이들이 세계무대로 적극적으로 진출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신년 연설에서 "글로벌 리더 양성을 위해 2만여명의 젊은이들을 개발의제의 실천을 비롯한 다양한 국제 활동에 파견할 것"이라며 글로벌 인재 육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세계시민으로서 소양을 갖추기 위한 교육도 강화한다. 세계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끌어안을 수 있어야 진정한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초중등교육과정을 개편해 타 문화에 대한 폐쇄성을 극복하고 지구촌 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전 교과에 걸쳐 유도할 계획이다.

도전정신도 G20세대를 대표하는 키워드다. 난관이 있더라도 인내하며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한다. 잘 닦여진 길보다는 남들이 가지 않은 길에 씩씩하게 발을 내딛을 줄 안다. 45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며 경제 영토를 전 세계로 넓혀가고 있는 한국의 차세대 경제 주역이 G20세대다.

실제로 G20세대의 '청년 기업가정신'은 최근 들어 더욱 뜨겁게 되살아나고 있다. 한동안 침묵하고 있던 청년 벤처창업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30세 미만 신설법인이 2천8백87개(11월 누적 기준)로 전년에 비해 무려 32퍼센트나 불어났다.

1인 창조기업도 2009년 20만 개에서 2010년 23만 개로 크게 늘었다. 새로운 벤처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것이 벤처업계의 중론이다.

하고 싶은 일을 즐길 줄 아는 젊은이

청년 벤처기업가들은 자신의 선택을 믿고 즐길 줄 안다. 20대의 젊은 나이에 별다른 경험도 없지만 하고 싶은 일에 거리낌 없이 도전한다. 성공을 확신하며 설혹 실패해도 경험과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대학생 신분으로 보청기 회사를 차린 유병곤 딜라이트 사장은 "해보지 않은 것, 신기한 것을 좋아한다"며 "가족들이 공부 열심히 해서 안정된 길을 가라고 창업을 말렸지만 젊을 때 하고 싶은 일을 못 하면 언제 하나 싶어 도전하게 됐다"고 말했다.

G20세대의 G는 녹색을 의미하기도 한다. G20세대는 자연과 환경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다. 21세기 녹색문명 시대의 새로운 가치와 윤리, 생활습관을 내면화하는 첫번째 세대가 그들이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녹색성장과 자연스럽게 맞물리면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성장과 환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며 국제사회의 녹색성장 부문을 주도할 수 있다.

G20세대는 공정사회의 주역이기도 하다. 이들은 편법을 동원해 앞서기보다는 공정한 경쟁을 통해 착실하게 성장하기를 바란다. 공정과 윤리에 대한 글로벌 스탠더드를 체감하는 최초의 세대 역시 G20세대다. G

글·변형주 기자

베이비붐 세대에서 G20세대까지

G20세대 "우리는 달라요… 글로벌 하죠"

6·25전쟁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경제와 사회의 변화상을 가늠하는 기준이 되는 새로운 세대가 속속 등장해 사회 변화의 단면을 보여 주었다.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을 이룩한 베이비붐 세대에서부터 글로벌 세계로 도약하는 지금의 G20세대까지, 우리 사회 변화의 핵심을 이룬 세대별 유형에 관한 고찰을 지금 시작해보자.

"꿈은 분야 최고의 전문가로서 상업광고(CF)에 출연하는 것, 불꽃 같은 삶을 통해 세상이 깜짝 놀랄 기획물을 만들어 내는 것, 주변 사람들이 나를 알고 있어 좋았다고 말해 줄 수 있는 삶을 사는 것… 좋아하는 것은 도전하고 실패하기, 블루오션, 닥치는 대로 독서하기, 화창한 날 자전거 타기, 댄스, 인물사진 찍기, 록 페스티벌 구경하기, 누군가 도와주기…"

공감하는가? 아니면 실없어 보이는가? 지금 당신이 속한 세대에 따라 쿨(Cool)하다고 공감하거나, 혹은 실속 없고 대수롭지 않아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자신의 꿈과 좋아하는 것에 대해 인터넷 교보문고의 저자 소개에서 밝히고 있는 사람은 <G세대 스펙여행>의 저자 김형섭 씨다. 그는 1979년생이다.

삼성경제연구소가 2005년 펴낸 <한국 2030 신세대의 의식과 사회 정체성>의 분류에 따르면 1979년생은 출생년도를 기준으로 세대를 나눌 때 이전의 386세대(1960~1969년 출생)와 다른 신세대(1970년 이후 출생)에 속한다.

저자인 이명진 전 연구원은 386세대 이전 세대에 대해 ▲한국전쟁 세대(1941년 이전 출생) ▲전후 세대(1942~1952년 출생) ▲유신체제 세대(1953~1959년 출생)로 구분했다.

일러스트·이철원

신세대는 다시 탈냉전 세대(1970~1978년 출생)와 월드컵 세대(1979~1985년 출생)로 분류됐다. 신세대는 386세대에 비해 탈권위주의적이며 자유분방하고 각종 사회문제에 대해 비교적 진보적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쯤에서 컴퓨터와 비유된 386세대에 대한 고찰을 아니할 수 없다. 386세대는 흔히 '80년대 학번(대학), 60년대 출생'을 말한다. 1990년대 들어 컴퓨터와 인터넷이 급속도로 보급되는 가운데 컴퓨터에 능한 신세대와 달리 문화 신조류에서 소외된 세대란 의미에서 당시 '386컴퓨터'에 빗대 지어진 세대명이다.

제2차세계대전 이후 세대별 이름짓기 유행

386세대와 그 바로 윗세대인 유신체제 세대까지 아우른 세대가 바로 지금 은퇴기에 접어든 베이비붐 세대다. 베이비붐 세대는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에서 배고픔을 딛고 일어나 높은 교육열로 대한민국의 경제신화를 창조한 세대다.

제2차세계대전 이후 태어난 미국의 베이비붐 세대에서 비롯된 명칭으로 나라별로 해당 연령대가 다른데, 한국의 경우 1955~1964년 사이에 태어난 약 9백만 명이 해당된다.

베이비붐 세대 이후 세대 분류에 있어서는 캐나다 소설가 더글러스 코플란트가 1991년 펴낸 《Generation-X》란 책이 분기점이 됐다.

코플란트의 X세대는 인스턴트 문화에 길들여진 1961~1981년 사이에 태어난 미국인들을 망라한 말이다. 이후 X세대란 말이 유행, 그 다음부터 사회학자에서부터 기업까지 다양한 연령대와 특징을 중심으로 한 알파벳 세대 명칭을 만들어 냈다. 이와 달리 우리나라의 X세대는 1994년경 한 화장품 광고에 쓰이면서부터 통용되기 시작해 신세대란 말과 혼용돼 왔다.

신세대, X세대에 이어 N세대가 등장했다. N세대는 1977~1997년 사이에 태어나 디지털 기기 다루기에 능숙한 세대를 말한다. 인터넷을 활용해 일방향이 아닌 쌍방향 의사소통을 하며, 컴퓨터를 선호하고 e메일에 더 익숙한 세대다.

G20세대, 서울올림픽 전후 태어나 적극적이고 당당

N세대와 유사한 Y세대도 나타났다. 베이비붐 세대가 낳은 2세들을 일컫는 Y세대 역시 컴퓨터를 자유자재로 다루는 세대를 말한다.

Y세대에 이어진 세대가 바로 G세대다. 부모 세대인 베이비붐 세대와 대조적으로 풍요 속에서 자라 부족함이 없으며 적극적이고 당당하다. 사전적 분류에 따르면 '1988년 서울올림픽을 전후로 태어나 글로벌 마인드와 미래지향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는 세대'다.

G세대란 이름은 '글로벌(Global)'과 '그린(Green)'의 영어 머리글자를 따서 만들어졌다. 부모의 집중적인 관심과 투자를 받으며 성장한 이들은 어느 세대보다도 인터넷 활용능력이 뛰어나고, 디지털 문화에 익숙하며 외국어 구사 능력 또한 탁월하다. 이들은 다른 사람을 의식하기보다 자신만의 특성과 개성, 개인적 행복감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며 낙천적이다.

그동안 밝고 당당한 G세대의 활약이 빛났던 무대가 바로 국제 스포츠 무대였다. 지난해 김연아가 여왕의 미소를 띠며 사상 첫 피겨 스케이팅 금메달을 목에 건 캐나다 밴쿠버 동계올림픽 무대에서는 모태범이 예상 밖 스피드 스케이팅 금메달을 획득한 뒤 태극기를 몸에 휘감고 덩실덩실 춤추는 여유를 보여 주었다.

지난해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여자 수영 금메달리스트인 정다래는 엉뚱한 행동에 독특한 화법으로 G세대다움을 과시하기도 했다.

G세대는 지난해 열린 서울 G20정상회의를 계기로 G20세대로 업그레이드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월 3일 신년사에서 "세계를 무대로 뛰고 경쟁을 주저하지 않으며 창조적 도전정신에 불타는 젊은 이들을 'G20세대'로 부르고자 한다"고 명명했다. 베이비붐 세대를 기반으로 당당하게 피어난 G20세대들의 활동무대는 더 광활한 세상, 새로운 세상으로 확장될 것이다. G

글·박경아 기자

"대통령님도 G20세대세요." 하버드대 경제학과 학생인 박지현 씨가 1월 11일 청와대에서 열린 G20후속대책 합동보고대회에 자원봉사 대표로 참석해 이명박 대통령과 담소를 나누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 자부심 소중한 경험

서울 G20 정상회의의 준비부터 성공적으로 막을 내리는 순간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방울을 쏟은 젊은이들이 있다.
자신의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해 서울 G20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와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해 숨은 곳에서 애쓴 이들
G20세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주역으로 성장할 것이다.

서울 G20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는 숱한 인력들이 수만 장의 밑그림을 그려 얻은 결과물이다. 바로 이러한 밑그림에 자원봉사를 통해 함께한 G20세대들이 있었다.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서울 G20 정상회의를 위한 자원봉사에 참여했지만 5천8백여명의 자원봉사자들 중 20대가 69퍼센트를 차지하면서 G20세대가 갖고 있는 적극성과 국가애를 그대로 보여 주었다.

"경제학을 처음 접하던 시절 G20 정상회의의 의미에 대해 배웠는데, 그 이후로 늘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서울 개최 소식을 듣고 참여를 결심했어요."

하버드대 경제학과라는 이른바 최고의 '스펙'을 가진 박지현(22)씨. 그는 서울 G20 정상회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기 위해 1년 휴학하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그는 "힘든 일도 많았지만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소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소중한 경험 중 하나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부심이다. 캐나다의 외신기자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미디어센터에 들려 "G20 정상회의는 이렇게 개최돼야 한다"며 대회 운영방식을 칭찬한 일이나, 말라위 기자들이 "한국의 경제성장에 놀랐다. 기회가 된다면 보다 많은 것들을 배워가고 싶다"며 감탄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는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다고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큰 성과는 여러 사람들을 만나 사회경험을 쌓을 수 있었던 점"이라고 그는 말한다.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호수 위 백조처럼 쉴 새 없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움직였어요. 홍보물 정리, 자료 복사 등 작은 일에도 상하 구분 없이 소매를 걷어붙이고 나서는 모습을 보며 업무에 대한 책임감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지난 1월 11일 G20정상회의준비위원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G20 후속대책 합동보고대회'에 그는 자원봉사 대표로 나가 G20세대의 당당함을 보여 주었다.

이날 이명박 대통령 바로 곁에 앉았던 그는 이 대통령이 "G20세대가 주인공이 되는 향후 대한민국은 밝을 수밖에 없다"며 "나도 G20 세대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좌중에 던지자 "대통령께서도 G20 세대다"라고 답변해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기도 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점점 개방화되는 국제시장 속에서 더 많은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브랜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 제2의 마크 주커버그로 성장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자원봉사 대표로 선정된 '하버드의 공부벌레'

박 씨는 대한민국이 한층 더 도약하기 위해 G20세대가 짊어진 몫이 크다는 '대견한' 생각을 갖고 있다.

"국격이 높아진 만큼 이전처럼 '성장'과 '발전'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눔과 봉사 같은 모습도 보여야만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민간 의전 지원요원들로 활약한 G20세대도 빼놓을 수 없다. 이들은 G20 정상회의 국별 의전연락관(DLO)을 도와 의전과 각종 행사 등 참가국의 모든 요청사항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무를 맡았다.

DLO는 G20 정상회의에 참가하는 국별 대표단을 전담하는 현직 우리나라 외교관들로, 방한 일정과 방한 중 담당국가 정상과 배우자의 전 일정을 조정하고 수행하는 민간 의전 지원요원을 의미한다.

미국대표단의 지원요원으로 활동했던 문나영(23·이화여대 국제학부 4년) 씨는 "G20준비위원회에서 마련한 의전 기준과 미국이 요청하는 기준이 달라 중간에서의 조정이 매우 힘들었다"며 "그러나 그 과정에서 외교에 대해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말했다.

국제회의나 의제 발표처럼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자리 배정, 시간 안배 등 작은 일들도 외교의 범주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세상을 향해 'G20'을 외친 목소리들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서울 G20 정상회의 홍보에 나섰던 대학생 홍보대사 '영 앰버서더'들은 지난해 7월부터 두 달간의 활동을 통해 서울 G20 정상회의의 의미와 한국의 역할을 대중에게 알리는 데 일조했다.

이들은 발대식장에서부터 플래시몹을 활용한 퍼포먼스를 펼쳐 '젊음이여! 세상에 G20을 소리쳐라'라는 슬로건을 대중에게 알리는 등 눈에 띄는 활동을 펼치면서 화제가 됐다.

7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선정된 60명의 영 앰버서더들은 팀 블로그를 중심으로 UCC와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등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SNS)를 통해 사회·경제·문화를 알리고 전 세계 누리꾼들과의 소통을 시도했다. 각종 이벤트나 설문조사를 통해 서울 G20 정상회의를 홍보하는 역할도 이들의 몫이었다.

일본팀 팀장으로 활동했던 최성택(22·중앙대 일어일문학과) 씨는 "더운 여름에 부채 배포, 설문조사 등으로 많이 돌아다녀야만 해서 무척 힘이 들었다"며, "국제적인 행사에 참여했다는 자부심도 가질 수 있었고 다양한 재능을 가진 영 앰버서더 팀원들과 만남을 이어갈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서울 G20 정상회의는 성공적인 개최로 마쳤지만 우리 사회에는 G20세대란 이름의 커다란 결실이 남아 있다. G20세대의 가슴에 남은 자부심과 당당함은 더 큰 대한민국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되어 줄 것이다." G

글·이윤진 객원기자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민간 의전지원 요원으로 활동한 문나영 씨(왼쪽)와 대학생 봉사대사 '영 앰버서더'들.

“결국은 영어 면접이 당락 갈라”

에미레이트항공 취업 윤현

“대학 입학 후 세계를 돌아다닐 수 있는 항공승무원이란 직업에 매력을 느끼게 되었지만 국내 항공사는 여러 가지 신체조건을 까다롭게 보기 때문에 취업의 벽이 높게만 느껴졌습니다. 이에 반해 외국 항공사는 복지, 근무 환경이 좋으면서 영어실력 하나만으로 합격할 수 있다는 정보를 접하고 해외취업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월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는 ‘G20 이후,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을 묻는다’라는 행사가 열렸다. 이날 윤현(31) 씨는 해외취업 경험담을 발표했다. 윤 씨는 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해외 항공사 공채 제도를 통해 2005년 에미레이트항공사에 입사했다. “대학교 3학년 때 휴학하고 영국 런던에서 어학연수를 했습니다. 영국에서 장애인 돕기 자원봉사를 하고 유럽을 여행하는 등 매우 유익하게 지냈습니다. 그때 얻은 영어실력과 국제 감각으로 외국 회사에 들어가게 된 것 같습니다.”

5년간 근무하며 1백20개국에서 온 동료들 만나

부산에서 태어났고 신라대 조소과(99학번)를 졸업한 윤 씨는 “국비지원을 받는 승무원 학원이 서울에만 있어 지방에서 해외 항공사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도움을 받기 어려운 점이 아쉬웠다”라고도 했다. 그는 아랍 에미레이트항공사에 근무하면서 1백20개국에서 온 승무원 동료들을 만났다.

2010년 에미레이트항공을 퇴사하고 해외 항공사 취업 준비학원과 영어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고 있는 그는 해외취업 시 어려웠던 점을 이렇게 밝혔다. “항공사 등 서비스 업종의 해외취업에서는 스피킹 위주의 영어면접이 당락을 좌우합니다. 한국 젊은이들이 해외에서 일하고 싶은 열정과 실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으나, 이에 비해 입사에 필요한 영어회화 실력이 부족하여 고배를 마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화 중심의 초등학교 영어교육이 중·고등 교육에 이르러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성인이 되어 해외취업을 위해 영어공부를 다시 해야 하므로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모됩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도와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웹 디자인 등 국내 취업 직종에는 국비 계좌제가 보편화되어 있으나,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한국을 널리 알리는 승무원직이나 전문 기술이 필요치 않아 비교적 쉽게 채용될 수 있는 서비스 직종에 대한 훈련에는 지원이 매우 약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어 윤 씨는 현재의 실업난을 뛰어넘어 세계를 품어 안을 수 있는 대한민국의 젊은이들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외취업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는 여러 제도들이 고안되었으면 한다고 했다.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공채에 개인적으로 참가하기 위해서 항공료, 숙박료 등 큰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실정이라 미취업자들에게는 금전적으로 큰 부담이 됩니다. 작년에 개최된 2010 해외취업 박람회 같은 행사를 정부 차원에서 진행하여 해외 일자리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해주었으면 합니다.” G

글·서일호 기자 / 사진·정복남 기자

“뉴요커의 삶 통해 꿈이 세계로”

웨스트 프로그램으로 뉴욕서 인턴 방수아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디자인공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방수아 씨는 웨스트 프로그램(WEST Program) 2기 학생으로 선발돼 2009년 8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해외 인턴을 다녀왔다. 웨스트 프로그램은 2008년 8월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어학연수와 인턴취업의 연계 프로그램으로,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다. 어학연수 5개월, 인턴취업 최장 12개월, 여행 1개월로 구성돼 있으며 언어뿐만 아니라 미국의 기업문화와 실무 경험을 동시에 쌓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현재 교육과학기술부 글로벌인턴지원단에서 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그녀는 뉴욕 맨해튼의 헌터컬리지(Hunter College)에서 어학연수를 거쳐 이후 6개월간 뉴욕의 권위 있는 레스토랑 가이드로 통하는 자갓서베이(ZAGAT Survey)와 세계 3대 미술관 중 하나인 메트로폴리탄 미술관(Metropolitan Museum of Art)에서 인턴십 체험을 했다. “자갓서베이에서는 웹디자인을,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는 박물관 전시품을 활용해 기념품 디자인을 했어요. 모두 전공에 도움이 되는 일들이었지요.”

서로 이끌어 주는 미국의 조직 문화 몸소 체험

막연히 뉴욕에 대한 동경에서 시작된 해외 인턴 생활은 즐거웠다. 때론 하루에 두 곳에서 일을 할 때도 있었지만 빡빡한 나날을 보내면서도 그녀의 활력이 된 건 꿈꿔 오던 ‘뉴요커의 삶’이었다. “현지에서 직장인처럼 생활했어요. 일을 할 땐 일에 집중하고, 5시에 퇴근하면 센트럴 파크에서 운동을 했어요. 주말에는 친구들과 만나 브런치 카페에서 수다도 떨고, 쇼핑하러 다니기도 했어요. 이따금 짧은 여행이나 공연 관람으로 재충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바쁜 인턴 생활 중에도 한 달에 2번씩 국내의 한 인터넷 사이트(www.ak1525.com)에 생생한 인턴 체험기를 연재하기도 했다. 인턴 생활을 통해 느낀 점도 많다. “경쟁적인 분위기보다는 서로 이끌어 주는 미국의 조직 문화를 몸소 체험할 수 있었어요. 상호 간 협력하거나 피드백을 통해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것이 인상적이었고요.”

무엇보다 그녀는 “해외 인턴 생활을 하며 ‘세계’라는 더 큰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말한다. “1년간 생활해 보니, 세계라는 무대가 도전해볼 만한 ‘만만한 것’처럼 느껴졌다”는 게 그녀의 얘기다. 아울러 해외 인턴 경험자로서 조언도 잊지 않는다.

“해외에서 인턴십을 하는 사람은 그 나라에서는 외국인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일꾼이기도 하고요. 인턴십 경험도 중요하지만 ‘로마에서는 로마법을 따르라’는 말이 있듯 그 나라에서는 그 나라의 문화, 관습 등 모든 것을 존중하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야 그 나라의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얻을 기회가 열리게 될 테니까요.

일이 능숙하지 못한 인턴임은 인정하되 일을 할 때는 그곳의 정식 직원처럼 애착을 갖고 한다면, 일 잘하는 인턴이라는 이미지뿐 아니라 한국인에 대한 좋은 인상도 남길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G

글·박근희 기자 / 사진·김승완 기자

“국제기구 진출 꿈 더 분명해져”

파라과이 해외자원봉사 김남호

“대학교 1학년 때 온 가족이 1년간 세계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때 우연히 KOICA(한국국제협력단) 홍보 영상을 만든 PD를 만났는데 그분을 통해 ‘해외 자원봉사’에 대해 알게 됐습니다. 이후 꼭 한번 도전하겠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오지에 가까운 파라과이 작은 시골마을에서 보낸 시간은 국제협력 분야에서 일하고 싶었던 제 꿈을 더욱 분명하게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김남호 씨는 ‘G20 이후,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을 묻는다’ 행사에서 해외 자원봉사 사례 G세대 대표로 경험담을 발표해 주목 받았다. 그는 23세이던 2008년 6월부터 2010년 8월까지 30개월 (국내 훈련 기간 포함) 동안 파라과이의 작은 시골마을로 자원 봉사를 다녀왔다.

한국국제협력단 국제협력봉사단원(World Friend Korea)의 자격이었다. 서울대학교 농산업교육과에 재학 중인 그는 이왕이면 전공을 살려 봉사하고 싶다는 생각에 파라과이, 그중에서도 영세농들이 대부분인 작은 시골마을을 택했다. 오지에 가까운 마을이었다.

“매우 낙후된 지역이었고 대부분 자급자족 형태로 농사를 짓고 있었어요. 제가 맡은 부분은 지역사회개발 분야여서 주로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소득증대사업 등을 했습니다.”

가기 전 군 복무 대체를 위한 4주간의 군사훈련과 5주 동안 하루 5시간씩 스페인어 공부, 파라과이 도착 후 또다시 현지 훈련 적응까지, 적잖은 훈련 아닌 훈련을 했지만 이후 대한민국의 23세 청년의 활약은 컸다.

WFK로 가 채소 재배·유통개선 도와

“자본이 없어서 종자와 농자재를 구매하지 못하는 농민들을 보니 안타까웠다”는 그는 ‘제대로 해보자’는 생각에 직접 현장지원 사업 기안을 짜서 KOICA에 제출, 승인을 받아 사업 진행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이것으로 종자와 비료, 농자재를 사들여 현지민들과 함께 본격적인 채소 다량 재배에 도전했고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그의 도전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현지민들에게 재배 작물을 직접 내다 팔 수 있는 유통환경을 조성해 상당한 소득도 가져다줬다. 그가 오기 전, 자급자족의 소규모 영세농들에겐 꿈같은 일들이었다. 이런 성과가 알려지면서 현지 매스컴에 그의 활동이 소개됐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뿌듯했던 순간은 “무기력했던 현지민들이 자신들이 가꾼 농작물을 팔면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봤을 때”라고 말한다. 해외 봉사 활동을 통해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로의 진출’이라는 꿈을 더욱 공고히 다지게 됐다는 그는 “아직도 취업 문제가 심각하지만, 반기문 UN 사무총장님이 활약 중인 것을 비롯해 국제협력 분위기 등 우리 세대들의 해외진출 기회는 그 어느 때보다 많아졌다고 본다”며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해외 봉사를 통해 민간 외교의 역할뿐 아니라 자신의 인생에 소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바란다”고 전했다. G

글·박근희 기자 / 사진·정복남 기자

“바이올린의 여왕이 되고 싶어요”

‘인디애나폴리스 콩쿠르’ 1위 강주미

“세계인들과 음악으로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이 매우 행복합니다. 저는 안네 소피 무터 같은 연주자가 되고 싶습니다. ‘바이올린 여왕’이 되는 게 꿈이죠.”

강주미(24) 씨는 ‘G20 이후,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을 묻는다’ 행사에서 예술가 대표로 경험담을 발표했다. 독일에서 태어난 강 씨는 1990년 독일 만하임 음대 예비학교에 만 3세로 최연소 입학했고 다섯 살 때 함부르크 심포니와 협연하며 공식 데뷔했다.

그는 베를린 한스아이슬러 음대를 거쳐 2004년 한국예술종합학교로 ‘역유학’을 왔다. 여기서 김남윤 교수에게 사사하며 각종 콩쿠르 대회를 휩쓸기 시작했다.

강 씨는 최근 몇 년 동안 세계적인 권위의 상을 잇따라 수상했다. 2010년 10월 수상한 인디애나폴리스 콩쿠르는 세계 3대 바이올린 콩쿠르였고, 한국 음악인으로는 처음으로 1위 타이틀을 차지했다. 2007년에는 티보 바가 3위, 2009년 독일 하노버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 2위, 서울 국제 음악 콩쿠르 1위를 수상했다.

2월 한예종 졸업 후 뮌헨으로 본거지 이동

그는 부모에게 예술가의 피를 물려받았다고 한다. 아버지 성악가 강병운 씨는 1980년대 유럽 무대에 진출했고 항상 ‘아시아인 최초’라는 타이틀을 달고 다녔다. 아시아인 최초로 독일 바이로이트 페스티벌 주역을 맡았고 베를린 오페라하우스 정단원에 입단했다. 강 씨의 어머니는 소프라노 한민희 씨다. 4남매 중 막내딸로 태어나 자연스럽게 음악하는 환경에서 자란 그는 어린 시절 LP가 가득한 방에서 음악에 묻혀 살았다. “4남매가 모두 악기를 배웠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바이올린을 좋아했습니다. 네 살 때 연주했던 바이올린 레퍼토리는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강 씨는 1998년 줄리어드 예비학교를 마치고, 고2 때 한국예술종합학교로 유학 와서 대학 1학년에 입학했다. “어릴 때부터 집에서는 한국말만 쓰게 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용어들은 이해하지 못해 2년가량 고생했습니다.”

7년간 다니며 예술사·전문사 학위 과정을 마친 한국예술종합학교는 오는 2월 졸업한다. 이후에는 본거지를 독일 뮌헨으로 옮길 계획이다. “클래식을 더 대중화하고 한국을 알리려면 외국에서 활동해야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국내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에서도 자주 공연을 할 계획이에요.” 그의 올해 공연 스케줄은 이미 꽉 찼다. “1월 말 미국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에번스필 오케스트라와 협연을 하고 4월에는 미국 8개 도시 투어를 합니다. 5월에는 한국에서 리사이틀을 하고 바로 이어서 일본에서 협연을 합니다. 2012년에는 인디애나폴리스 콩쿠르 1위 수상 특전으로 미국 카네기홀 연주도 잡혀 있습니다.”

올 9월에는 음반 녹음 작업에 들어간다. 유니버설 레이블에서 출시될 강주미 바이올린 솔로 작품집(무반주)을 위해서다. “레퍼토리 중 한 곡을 살짝 공개하면 에른스트 곡 ‘여름의 마지막 장미’입니다. 10분짜리 대곡인 데다 현란한 기교로 솔로 바이올리니스트 편곡으로는 웬만한 연주자가 하기에 부담스럽지만 자신 있습니다.” G

글·서일호 기자

손지애 대통령실 해외홍보비서관 인터뷰

"도전정신을 갖고 원하는 일을 하라"

G20세대들이 닮고 싶은 '롤 모델'로 꼽는 사람 중 한 명이 손지애 대통령실 해외홍보비서관이다. 15년간 CNN 서울특파원으로 활동한 손 비서관은 지난해 G20정상회의준비위원회 대변인으로 자리를 옮겨 세계 경제무대의 중심이 된 서울을 알렸고, 지금은 대한민국을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다. G20세대를 대신해 손 비서관을 만난 날 청와대 연풍문에는 소복소복 흰 눈이 내리고 있었다.

"곧 모교인 이화여대에 가서 신입생 대상 강의를 하는데, 아무래도 G20과 G20세대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바로 G20세대를 키우고 있는 당사자니까요."

탐스러운 흰 눈송이가 내리던 지난 1월 12일 청와대 연풍문에서 만난 손지애(48) 청와대 해외홍보비서관은 G20세대 얘기를 꺼내자 '키우고 있다'는 표현을 썼다.

15년간 세계적인 뉴스방송 CNN 서울특파원을 지낸 그가 지금 G20세대가 가장 만나고 싶어하는 '롤 모델(역할모델)'임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키우기까지 한다는 것은 처음 듣는 말이었다.

G20세대의 신선한 시각과 자신감에 감탄

"제 큰딸이 1989년생이거든요. 88 서울올림픽 무렵 태어난 전형적인 G세대, 이젠 서울 G20 정상회의를 경험한 G20세대죠. G20세대를 키우는 당사자로서 G20세대가 저를 롤 모델로 생각하는 것에 대해 재미있기도 하고, 더욱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그에 대해 가장 궁금해하는 점이 왜 CNN을 그만두었느냐 하는 것이라고 한다.

"좀 더 할 수 있었지만 서울에서만 15년, 그리고 북한 뉴스만 주로 다룬다는 점에서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남쪽에도 이야깃거리들이 많은데, 사람은 서울에 두고 뉴스는 북한 것인 상황에 한계를 느끼던 터에 마침 G20 준비위원회 대변인 제의를 받았습니다."

그는 지난해 2월부터 G20 준비위원회 대변인으로 활동하며 자원봉사자 선발 면접에도 참석해 그를 롤 모델로 삼은 '손지애 워너비(wannabe)'들을 기쁘게 하기도 했다.

"젊은 세대들은 자신의 미래에 길잡이가 될 질문들을 합니다. 물론 어떠하면 CNN 기자가 되느냐는 질문이 가장 많죠. 돌이켜 보니 '후회해 본 적 없느냐'는 질문은 한 번도 안 받아 본 것 같네요.(웃음)"

지금 G20세대들을 바라볼 때 그는 그들의 신선한 시각과 자신감에 경탄한다고 한다.

"역사를 전공하는 큰딸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한국인의 '냄비 근

성'에 대해 단점이라고들 말하지만 파르르 끓다가도 항상 일정한 수준으로 내려오지 않느냐,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에도 하루 이틀이면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도 오히려 장점이란 거죠."

베이비붐 세대에 속하는 손 비서관은 그 세대로선 흔치 않게 미국에 참사관으로 파견된 부친을 따라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4년간 미국에서 생활한 경험을 갖고 있다.

그후 국내에서 일반 중고등학교를 다녔다. 영어를 '모국어 수준'으로 하기 위해 죽자사자 매달린 노력은 그를 롤 모델로 삼은 이들 사이에 유명하다.

그런 그의 눈에 비친 요즘 세대는 자유로운 해외여행과 인터넷을 통해 국경과 공간, 언어의 제약을 뛰어넘은 세대다.

"저희 세대만 해도 우리 동네, 대한민국에 한정됐고, 해외 펜팔도 동경의 대상이었죠. 지금 세대는 이베이(ebay)에서 쇼핑을 하고 해외 친구들과 e메일을 주고받으며 인터넷에서 다국적 토론을 벌입니다. 국경도, 공간적 제약도 없는 완전히 새로운 세대죠."

손 비서관은 이러한 세대에게도 서울 G20 정상회의는 아주 특별한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우리 대통령이 의장으로서 G20 정상회의장 중앙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며 가슴 벅참을 느꼈습니다.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솟구치는 애국심에 저 자신도 놀랐어요. 젊은 친구들이 받은 영향은 더 말할 나위 없죠."

"G20세대에게 서울 G20 정상회의는 아주 특별한 계기가 됐다. 우리 대통령이 의장으로서 G20 정상회의장 중앙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며 우리나라가 잘살지만 선진국에 비해 조금은 뒤진 나라란 생각이 확 깨진 느낌이었을 것이다."

"젊은 만큼 모든 한계를 넘어 새로운 시작을"

손 비서관은 우리 국민이 불편을 감수하고 서울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는 모습, 참 좋은 일 한다 하는 주변의 반응, 한국을 진정한 호스트로 생각하는 외국 관리나 기자들을 보며 서울 G20 정상회의의 젊은 자원봉사자들이 크나큰 자부심을 느끼는 모습들이었다고 전했다.

"잘살지만 선진국에 비해 조금은 뒤진 나라란 생각이 확 깨진 느낌이었을 거예요."

이제 이들 G20세대에게 6·25전쟁 이후 세계사에 유례없는 역동적인 발전을 해 온 대한민국이 앞으로도 파닥파닥 뛰는 미래를 이어가야 한다는 과제가 주어졌다. 그는 이러한 G20세대에게 '선배 글로벌 세대'로서 충고했다.

"경계가 없다는 것은 선택할 것이 많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경계가 무너진 세상에서 내 길을 찾으려면 먼저 나에 대해, 내가 뭘 원하는지부터 잘 알아야 합니다. 도전정신을 갖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하라, 이것이 제 조언입니다."

"성공을 이웃과 공유하는 세계시민이 되길"

물론 모든 G20세대들이 앞뒤 안 보고 도전하고, 성공 모델이 돼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할지 모르는 친구들도 적지 않지만 "모르는 건 흉이 아니고, 모른다고 낙오자가 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지금 G20세대에게 필요한 것은 어떠한 한계도 규정짓지 않는 꿈을 갖는 것입니다. '위기를 넘어 다 함께 성장'이란 서울 G20 정상회의의 캐치프레이즈처럼 국내든 국외든, 모든 한계를 넘어 새로운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젊으니까 욕심 내세요."

손 비서관은 겁 없이 뛰어드는 세대를 위해 어른들도 할 몫이 있다고 말했다.

"우리 아이들이 앞뒤 안 보고 그냥 뛰어들게 할 수는 없습니다. 양질의 진출 기회를 만들어 주고, 성공에 대한 고정관념을 바꾸는 것이 우리 어른들이 할 일입니다."

그는 성공이란 하나만의 성공이, 성공한 누군가처럼 되는 것이 아니란 점을 지적했다.

"전부 하버드생이 될 필요 없고, 전부 해외봉사를 할 필요도 없어요. 지구촌 수장들의 회의인 G20을 계기로 우리의 생각도 둥근 지구처럼 펼쳤으면 합니다. 어느 방향을 봐도 갈 길이 있고, 어디가 앞이고 뒤인지 따질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7월부터 해외홍보비서관 직을 맡은 뒤 손 비서관은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리는 일에 전념하며 트위터를 통해서 G20세대를 비롯한 많은 이들과 소통하고 있다.

그의 트위터 '블루하우스지애(bluehousejieae)'의 팔로워는 2천명가량. 그는 인터뷰를 마무리하며 G20세대가 따뜻한 마음을 가진 세계시민이 되길 당부했다.

"세계를 내 안에 품고서 다른 이들과 주고받을 줄 아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특별한 봉사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어디서 뭘 해도, 성공을 이웃과 공유하는 빌 게이츠와 같이 따뜻한 세계시민이 되길 기대합니다." G

글·박경아 기자 / 사진·김승완 기자

도전정신으로 무장한 20대의 G20세대 CEO들은 업계에 적잖은 파란을 일으키며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다. 신현성 티켓몬스터 사장, 박희은 이음소시어스 사장, 유병곤 딜라이트 사장. (왼쪽부터)

“실패해도 젊은 시절에 하고 싶은 일 한다”

감성과 상상력으로 성공신화

젊은 감성과 상상력이 비즈니스 세계에 밀려오고 있다. 혹 실패해도 그것마저 좋은 경험이라 생각하는 도전정신이 그들의 무기다. 부족한 경험을 열정으로 대체하며 성공신화를 써 내려가는 청년 기업인들을 만났다.

▢ 최근 국내 유통업계를 달구고 있는 최대 화두는 ‘소셜 커머스’다.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이 유통방식은 엄청난 속도로 인지도를 높이며 차세대 전자상거래의 총아로 급부상하고 있다.

지난해 겨우 모습을 드러냈지만 현재 관련 기업이 1백50여 개에 달할 정도인데다 대기업까지 경쟁에 가세하면서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소셜 커머스는 일종의 공동구매 장터다. 소비자는 파격적으로 할인된 가격에 제품을 구입할 수 있고 판매자는 비용 대비 높은 마케팅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이 맞물리며 단기간에 폭발적인 호응을 이끌어 냈다.

차세대 유통으로 불리는 소셜 커머스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업체는 ‘티켓몬스터’라는 벤처기업이다. 지난해 5월 영업을 시작했는데 무려 2백억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기업의 창업주다. 약관 26세의 신현성 사장은 소셜 커머스라는 개념조차 생소했던 지난해 몇몇 친구들과 의기투합, 맨손으로 창업에 나섰다.

주위에선 신 사장의 창업을 뜯어말렸다. 미국의 명문 경영대학인 와튼스쿨을 졸업해 맥킨지에서 연봉 3억원을 받는데 굳이 불확실한 창업을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는 이유였다. 하지만 기업을 일으키겠다는 신 사장의 뜻을 꺾지는 못했다. 소셜 커머스라는 말조차 없던

때에 시작한 만큼 사업은 쉽지 않았다. 소셜 커머스를 통해 제품이나 서비스를 유통시키고자 하는 고객 기업을 찾는 것부터 문제였다.

첫 거래가 성사되면서 분위기는 순식간에 바뀌었다. 내놓는 상품마다 매진되는 '대박 행진'이 이어졌다. 티켓몬스터를 외면하던 판매사들이 이젠 티켓몬스터 앞에 줄을 서기 시작했다. 최근엔 업계 3위 기업인 '데일리픽'을 인수하며 본격적인 외형 확대에 나섰다. 티켓몬스터는 이번 인수를 계기로 서비스 지역을 15개에서 올해 50개로 대폭 늘려 매출 2천억원을 달성할 계획이다.

연봉 3억원 뿌리치고 창업 '대박'

페이스북으로 대표되는 소셜 네트워크 부문에서도 20대 젊은 창업주의 활약이 눈부시다. 성균관대 경제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박수왕 소셜네트워크 사장(25)이 그 주인공이다. 이 회사는 '아이 러브 캠퍼스'라는 애플리케이션(앱)을 운영하고 있다.

서비스 이름대로 학교와 학생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각 학교의 공지사항, 게시판, 교내 식당, 학교 건물 찾기, 학교 주변 상점, 도서관 잔여 좌석 수 등이 그것이다.

박 사장은 "학교 정보를 제공하는 앱이 없다는 점에 착안해서 뜻이 맞는 친구들과 함께 사업을 시작했는데 론칭 5개월 만에 20만 건이 다운로드됐고 정보를 제공하는 학교도 처음 4개 교에서 1백10개 교로 증가하는 등 기대 이상의 성과를 냈다"며 "주위의 만류가 적잖았지만 설사 실패하더라도 젊은 시절에 하고 싶은 일을 하기로 한 결정이 결과적으로 옳았다"고 말했다.

박 사장의 목표는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회사를 만드는 것이다. 수익을 내기 위해 욕심을 부리기보다 원칙을 지키며 차근차근 성장한다는 구상이다.

사회적 기업으로 창업해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 청년 CEO도 있다. 보청기를 생산하는 딜라이트의 유병곤 사장이 대표적이다. 경희대 국제경영학과에 재학 중인 유 사장은 학내의 사회적기업 동아리 출신이다. 고용노동부의 재능기부 프로젝트에 참여하던 중 정부의 도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부문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창업을 결심했다. 유 사장의 기억이다.

"보청기 가격이 너무 비싸더라고요. 필요한데 돈 때문에 보청기를 구매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의 고령자들을 위한 제품을 만들어 보자고 결심했습니다. 마케팅과 유통마진을 최소화해서 절감한 비용을 소비자에게 돌려 주자는 생각이었습니다. 시중 제품의 30퍼센트 수준인 34만원에 판매하는데 정부보조금을 받는 계층이면 거의 무료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월등히 저렴하면서도 성능은 뒤처지지 않는다는 소문이 나면서 주문이 급증했다. 유 사장의 표현대로라면 '어느 날 갑자기 확' 세상이 바뀌었다. 올해는 사업을 좀더 확장할 계획이다. 대량생산으로는 충족시킬 수 없었던 맞춤형 제품을 생산하기로 했다.

조선DB

조선DB

G20세대들은 자신의 일을 즐길 줄 아는 낙천가들이다. 소셜네트워크(사진 위)와 티켓몬스터의 젊은 직원들.

기능을 다양화한 제품도 구상 중이다. 유 사장은 "보청기를 포함해 노인들이나 장애인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품 전반으로 제품군을 넓혀나가고 싶다"며 "수익을 가장 잘 내는 회사가 아니라 사회가 필요로 하는 기업을 만드는 게 소망"이라고 강조했다.

"수익보다는 사회가 필요한 기업"

박희은(26) 이음소시어스 대표는 또래 젊은이들의 니즈를 포착해 창업에 성공한 경우다. 이음소시어스는 미혼 남녀를 위한 온라인 데이팅 사이트다. 이름 그대로 데이트 상대를 물색해 주는 서비스다. 다른 온라인 데이팅 사이트가 남성 위주인 데 비해 이음소시어스는 남녀 성비가 일대일에 가깝다. 그만큼 여성 회원이 많다는 얘기다.

음란물을 철저하게 차단하고 개인정보도 확실하게 보호해 준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여성 가입자가 급증했다. 마음 놓고 데이트 상대를 찾고자 하는 여성들의 요구를 예민하게 포착한 것이 성공으로 이어진 셈이다. 사이트를 개설한 지 1년이 채 안 됐지만 회원 수는 4만3천명으로 업계 1위를 달리고 있다. G

글·변형주 기자

2013년까지 연 5천명 이상 해외취업 알선

G20세대 맞춤형 프로그램 확대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정부는 그동안 추진되어 온 G20세대 해외취업 지원사업에 한층 속도를 올리고 있다. 정부가 청년들의 해외취업지원에 적극 나서는 것은 글로벌 인재 양성과 청년 취업난 해소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다.

정부의 G20(청년층)세대 해외진출 지원 의지가 어느 때보다 높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지난 1월 11일 서울 G20 후속 합동보고대회에서 "G20세대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해외봉사활동을 확대하고, 국제기구, NGO(비정부기구), 다국적기업 등에 우리의 청년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KOICA(한국국제협력단)나 기업의 해외 청년 인턴십 등의 프로그램과도 협력하여 G20세대들이 글로벌 지역 전문가로 성장할 기회를 주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정부의 G20세대 해외진출 지원 사업은 서울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인 2008년 4월 이미 정부는 국정과제의 하나로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 계획'을 수립하였고, 지금까지 이 계획을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정부는 9개 부처 합동으로 5년간(2009~2013년) 해외취업 5만명, 해외인턴 3만명, 해외자원봉사 2만명 등 총 10만명의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정부가 우리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것은 세계화 시대에 맞는 글로벌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와 청년 취업난 해소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이 같은 계획을 좀 더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10년 6월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이사장 유재섭) 산하에 '글로벌리더 양성 사업 추진단'을 출범시켰다.

인력관리공단의 집계에 의하면 정부가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 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2009년의 경우 1천5백명, 2010년은 2천7백명이 해외 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DB

코트라(KOTRA)가 2010년 3월 30일 주최한 '글로벌 채용 박람회'에서 외국기업 인사 담당자들이 해외 취업을 원하는 한국인 구직자를 면담하고 있다.

인력관리공단 정진영 해외취업국장은 "이러한 수치는 원래 목표(2008년 수립한 목표)보다 하향 조정된 것"이라며 "2008년 말 글로벌 경제위기가 닥치면서 해외 취업 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은 것이 목표 달성을 방해한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자 인력관리공단은 2009년과 2010년의 해외 취업 목표를 대폭 줄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2011년부터 2013년까지는 당초 목표대로 연평균 5천명 이상 해외취업에 성공시키겠다는 것이 정부와 인력관리공단의 의지다.

인력관리공단, 구인처 개척팀 신설

인력관리공단의 글로벌리더 양성사업 추진단은 출범 후 청년들의 해외 취업 활성화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한편, 공단 내에 별도로 '구인처 개척팀'을 신설해 양질의 해외 구인처 발굴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구인처 개척팀은 각 지역별로 담당자를 지정해 우리 청년들이 해외취업을 할 수 있도록 취업처를 적극적으로 발굴했다. 또한 해외 구인처가 요구하는 직종을 파악해 맞춤식 연수과정을 운영하여 취업률을 높이는 전략도 펼쳤다.

이런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10년 말 현재 해외 83개 기관의 1백 개 과정에서 3천1백78명의 우리 청년들이 맞춤식 취업 연수를 받고 있다. 인력관리공단은 해외 취업박람회도 개최해 우리의 구직자와 해외의 구인자를 연결하기도 했다. UAE항공처럼 우리나라 승무원 수요가 많은 항공사를 대상으로 직접 취업을 알선해 1백21명이 면접을 볼 수 있게끔 주선하기도 했다.

인력관리공단의 글로벌리더 양성사업 추진단은 앞으로 해외 구인 개척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해외 공관,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동포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취업률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기업과도 협조를 강화하여 해외에서 벌어지는 대형 프로젝트 사업에 G20세대가 참여할 수 있게 맞춤형 인력공급 프로그램도 확대할 예정이다. G 글·이상흔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의 G20세대 해외진출 지원 사업

문화체육관광부(문광부)는 'G20세대의 해외진출'을 돕고자 여러가지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문광부의 지원사업은 크게 ①전통예술 해외 레지던시 ②해외문화예술 봉사단 ③한국 알림이 사업 ④전략지역 전문가 연수 ⑤태권도 세계화 ⑥국제네트워크 구축 ⑦글로벌 스포츠 리더 육성 ⑧국제업무 전문인력 활동지원 등 8개 분야에 걸쳐 있다.

그 가운데 첫번째인 전통예술 해외 레지던시 사업은 레지던시 활동을 통해 우리의 우수한 전통예술을 알리고, 전통 예술인에게 해외 문화의 체험과 예술 활동의 기회를 주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레지던시 프로그램이란 작가가 특정한 지역에 일정 기간 머물면서 작품활동을 할 수 있게 지원해주는 것을 말한다. 연간 10명(혹은 단체) 내외의 규모로 진행될 예정이다.

해외 문화예술 봉사단 사업은 주로 우리와 문화 교류가 낮은 독립국가 연합(CIS) 지역에 한국 문화를 소개하고 문화 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다. 33세 미만의 청년 중 전통음악이나 무용 전공자에게 기회가 돌아간다.

한국 알림이 사업은 한국을 알리기 위해 대학생 해외봉사단을 파견하는 것으로 연 2회에 걸쳐 시행된다.

전략지역 전문가 연수 사업은 교육 연수 프로그램으로 콘텐츠 분야 관련 종사자가 지원할 수 있다. 본 사업에 선정된 사람은 해당국에 연수를 받으면서 해당 국가에 대한 마켓 현황과 콘텐츠 제작 사례 분석활동을 진행한다.

태권도 세계화 추진 사업은 태권도 세계보급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35세 이하의 태권도 전공자나 유단자가 지원할 수 있다.

국제네트워크 구축 사업은 국제 스포츠연맹이나 스포츠 대회 조직위원회 등에 인력을 파견하여 선진 체육행정 시스템을 익히게 하는 것으로 국제경기대회 메달리스트나 스포츠 외교 전문가 과정을 수료한 사람이 지원할 수 있다.

글로벌 스포츠 리더 육성 사업은 스포츠 전문 인력의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선수경력자나 지도자, 심판, 체육단체 재직자 등이 지원 가능하다.

마지막 국제업무 전문인력 활동지원 사업은 국제체육기구 진출을 위한 전문인력을 기르기 위해 추진된다. 선발된 사람은 각종 체육단체의 국제 업무를 익힐 기회를 갖는다. 문화체육관광부 mcst.go.kr (02-3704-9114)

해외 봉사·연수, 창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글로벌 리더 양성에 '한마음'

최근 정부와 함께 민간에서도 글로벌 리더 양성을 위한 지원이 활발하다. 자동차, 금융, 의료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해외연수 지원이 활발하고 젊은 CEO를 길러내기 위한 기업들의 창업 지원도 생겨나고 있다.

"몽골 울란바토르의 한 동네에서 단열재를 두르고 벽돌을 나르는 일을 했습니다. 겨울이면 영하 40도의 맹추위 때문에 단열재 두르는 일에 여간 주의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일정을 무사히 마치고 떠나는 날, 홈파트너 할머니께서 길을 떠나는 자식에게 하는 몽골 인사로 우리를 배웅해 주셨습니다. 그때 그 장면은 지금 이 순간까지도 '나눔'과 '땀'에 대한 가장 큰 선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한국해비타트의 몽골 울란바토르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가했던 충남대학교 최욱 학생의 소감이다. 비영리단체인 '한국해비타트'는 집짓기, 학교와 고아원 방문, 전통 공연 체험, 역사 유적지 탐방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문화를 체험하며 봉사하는 해외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1996년부터 시작된 한국해비타트의 해외 봉사 프로그램은 매년 1천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을 해외로 보내고 있다. 주로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해외 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포스코, 현대기아자동차그룹 등 국내 굴지의 기업들과 연계해 대학생들의 해외자원봉사를 지원하기도 한다.

국내 기업들의 'G20세대' 해외자원봉사 지원이 활발하다. 최근에는 글로벌 미래를 양성하기 위한 해외연수 프로그램이나 창업지원 프로그램까지 생기고 있다.

현대·기아자동차그룹은 2008년부터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 확대와 미래를 책임질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을 위해 '해피무브 글로벌 청년봉사단'을 창설·지원해오고 있다. 대학생 봉사단원들은 매년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기간 세계 각지로 파견돼 지역복지, 의료,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기아자동차(주)는 지난 8일 15~19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에코다이나믹스 청소년 원정대'를 새롭게 결성했다.

21명의 원정대원들은 이달 중 말레이시아 보르네오섬 사락왁 일대에서 생태 탐방 및 현지 자원봉사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다음 달에는 울릉도와 독도에서 해양 천연생태계 탐사를 진행하는 등 본격적인 국내외 생태 탐방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시 청년창업 우수사례로 선정된 기업 '나눔창업센터'는 온라인 쇼핑몰 창업을 위한 컨설팅·교육·물류 등을 지원해주고 있다.

정연국 기아차 국내영업본부장은 "미래 주역인 청소년들이 전 세계적 이슈인 환경 문제를 탐구하는 이번 프로그램 참가를 통해 친환경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해외원정을 포함한 대원들의 성장 과정을 기아차가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입사 전 해외연수 지원도 생겨나

미래에셋박현주재단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현재 7기까지 해외 교환 장학생을 선발해 지원하고 있다. 선정된 학생들은 미국, 유럽 등 선진국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 등 이머징국가에서 경제 공부와 함께 현지 기업에서의 인턴 활동 등의 기회가 주어진다.

또한 미래에셋은 초·중·고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해외연수 프로그램인 '글로벌리더 대장정'을 통해 5천1백98명의 학생들에게 중국 해외 현장학습의 기회를 제공했다.

최근 삼성의료원은 국내 최초 '전문의 조기 해외연수 지원'으로 의료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기존 기업들의 본사 직원 해외연수 지원에서 벗어나 '선(先)해외연수·후(後)근무'라는 파격적인 임용 방식이다. 선발된 전문의는 올해 4월부터 1~2년간 해외연수를 가게 되며 연수를 마친 후 소정의 과정을 거쳐 병원에서 근무를 하게 된다.

삼성의료원 김성 인사기획실장은 "해외환자 유치와 글로벌 경쟁

현대·기아차

현대·기아자동차그룹의 '해피무브 글로벌 청년봉사단'은 세계 각지로 파견돼 지역복지, 의료,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력 강화를 위해 가장 먼저 투자해야 할 사항이 핵심인재 육성으로 보고 이런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새로운 인재 육성 프로그램이 삼성의료원에 새로운 활력과 경쟁력을 불어넣어 줄 것"이라고 높은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 같은 기업들의 해외연수 지원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올해부터 우수 직원들을 세계 50대 금융사로 보내 그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방식으로 일하는지 배우도록 하겠다"며 "특히 아시아시장 공략을 위해 국내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의 교육을 대대적으로 지원하고 이들을 적극 채용해 국제금융의 인재로 키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두산그룹도 최근 글로벌 기업에 맞는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다른 어떤 경영활동보다 우선해 실현해 나간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젊은 CEO 양성에 기업도 앞장서

페이스북의 창업자 '마크 주커버그'를 꿈꾸는 젊은 창업자를 위한 지원도 늘고 있다. 먼저 대학들의 창업지원이 활발하다. 창업동아리는 물론 창업캠프까지 생겨나 다방면에서 대학생들을 지원하고 있다.

호서대학교는 '벤처전문대학원'을 설립해 인재를 육성하고 있으며 국내 최초로 신기술 창업보육센터 및 학생 창업보육센터를 설립, 교직원과 학생의 벤처 연구사업과 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 밖에 연세대학교, 충남대학교 등 전국의 대학들이 창업동아리 지원을 활발히 하고 있다.

SK텔레콤 오픈마켓 11번가는 지난해 8월 대학생 대상 e커머스 창업 및 인재 양성을 위한 'e-Biz 창업지원단'을 창단했다. 이를 통해 11번가는 서울대, 고려대, 숙명여대 등 전국 1백여 개 대학과 산학협력 제휴를 맺고 지난해 가을학기부터 '11번가 창업 아카데미'를 진행하고 있다. 창업을 위한 준비과정부터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판매 노하우까지 전달하는 것은 물론, 중소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창업 및 인턴십 기회를 제공한다.

SK텔레콤 11번가 총괄 정낙균 본부장은 "올해 2백여 개 대학으로 강좌를 확대할 예정이며 'e-Biz 창업지원단'을 시작으로 향후 대학생 창업에 대한 패키지 지원방식을 점차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사회적기업 '나눔창업센터'에서 온라인 쇼핑몰 창업을 위한 컨설팅·교육·물류 등을 지원해주고 있으며, 의류 도매마켓 플레이스 '바이앤몰'은 지난해 12월 쇼핑몰 창업을 계획 중인 20대 청년과 대학생들을 위한 창업 지원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했다. G

글·이제남 기자

"사회·문화·교육 업그레이드 선진국 진입 발판 만들었다"

지난 1월 1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6개 위원회의 'G20 후속 합동보고회의'가 열렸다. 'G20 성공 이후,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을 묻는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합동보고회의에서는 서울 G20 정상회의를 되돌아보고, 글로벌 일류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국가의 품격을 높이고 지구촌 공동번영을 선도하기 위한 비전과 실천과제가 논의됐다.

조선DB

지난 1월 11일 청와대에서 열린 G20 후속 합동보고회의 모습.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명박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이후 우리사회가 모든 면에서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G20세대의 정신으로 G20세대에 맞는 정책을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글로벌 리더십 발휘로 국가위상 제고"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위원장 사공일)는 합동보고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선진국과 신흥국 그룹 간 가교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진단했다.

의장국인 우리나라는 개도국의 개발 의제를 주요 아젠다로 제기하고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비즈니스 서밋 개최 등 코리아 이니셔티브(주창, 발안) 제시를 통해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로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사적 차원에서 G20의 리더십을 확인했고 ▲아시아·개도국 차원에서는 신흥국의 위상을 강화했으며 ▲국가 이익적 차원에서는 글로벌 역량을 과시하여 국가브랜드 제고와 국민자신감을 고취했다고 평가했다.

미래기획위원회

"적극적 개방으로 다가올 세계화 대비"

미래기획위원회(위원장 곽승준)는 'G20 이후,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과 전략'이라는 보고자료를 통해 '적극적인 개방 정책'과 '치밀하고

현실적인 대북 통일정책'을 강조했다.

위원회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세계화와 지식·경제의 파도를 넘어야 하며, 이를 위해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다문화 사회와 같은 적극적 개방 정책과 동시에 '북한의 도발 걱정이 없는 안전한 경제·사회 환경을 후대에 물려주는 것이 현 세대의 첫 번째 임무'라고 지적했다.

또한 사회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해 '따뜻한 시장경제'를 제시하고 중산·서민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사교육비 줄이기, 보육비 지원 확대, 사회 안전망 강화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아울러 시스템 반도체 산업, 미디어 콘텐츠 산업, 금융·의료 서비스 등을 미래 일자리 창출의 핵심 사업 분야로 제안하면서 집중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 G20 정상회의 개최성과가 보다 확산될 수 있도록 지도층을 중심으로 솔선수범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더 개방된 나라, 더 공정한 사회 만들어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위원장 강만수)는 업무보고에서 먼저 우리나라의 현주소를 평가했다. 위원회는 우리는 세계 7위의 수출규모(2010년 예상), GDP 15위(2009년 기준)의 경제 규모를 가진 국가로 발돋움하였으며, 글로벌 FTA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G20을 계기로 국가 이미지가 상승했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와 기회 보장 미흡,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경제활동인구 감소, 상대적으로 낮은 생산성과 세계 최장 수준의 근로시간, 경제적 위상에 걸맞은 개방성과 국제적인 기여가 부족하다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진단했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이들 문제점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글로벌 일류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①더 세계로 개방된 나라 ②더 균형되고 공정한 사회 ③더 지속가능한 성장 경제 체제를 향후 국가가 추진할 정책 아젠다로 제시했다.

국가브랜드위원회
"우리 문화의 잠재력을 국가 브랜드화"

국가브랜드위원회(위원장 이배용)는 서울 G20 정상회의로 높아진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국가브랜드 제고전략과 추진 과제들을 보고했다. 위원회는 '세계와 함께하는 품격 있는 대한민국'을 구현하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기본 방향이라고 제시하고, 이를 위해서는 해외봉사단의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해외봉사가 민간의 자율운동으로 확산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G20 등으로 우수성과 매력이 확인된 우리의 문화 자산 등 소프트 파워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이를 IT 등 첨단기술과 접목하여 적극적으로 국가브랜드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코리아 브랜드 커뮤니케이터 10만 명'을 확보하여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대한민국 인지도와 호감도를 계속 높여 나가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G20세대 육성을 위해 교육과정 개편 필요"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부의장 안병만)는 교육·과학기술 분야에서 국내외적인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G20세대 육성을 위한 세계시민교육 강화와 ▲다른 나라와 동반성장을 향한 과학기술 공유 확산이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보고했다.

G20세대 육성을 위해서는 준법의식, 기초질서 등 기본교육 강화와 함께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세계관 및 올바른 국가관 정립을 위한 국가교육과정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리의 국격(國格) 상승에 따라 우리의 교육·과학기술 발전 노하우를 전수해 달라는 나라가 많기 때문에 해당국의 수요에 맞춘 '학교교육+고등교육+직업교육+과학기술'을 패키지 방식으로 지원하고, 소프트 파워(교육프로그램 개발, 교사 파견 등)에 중점을 둔 지원방식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녹색성장위원회
"국민 생활의 녹색화로 녹색성장 내실화 "

녹색성장위원회(위원장 양수길)는 G20을 통해 확인된 녹색성장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더욱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건물·교통 등 생활공감형 녹색성장 정책을 통한 '국민 생활 녹색화' 사업을 추진하여 녹색성장을 내실화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보고했다.

기존 건축물들에 대해 녹색화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대중교통 고속화, 스마트워크 추진을 통해 녹색성장을 주도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외적으로는 녹색성장의 세계적인 확산을 위해서 글로벌 녹색 성장연구소(GGGI: 2010년 6월 설립)를 통해 녹색성장 확산과 동아시아 기후 파트너십을 비롯한 녹색 ODA(공적개발원조) 확대, '4대강 살리기 사업' 경험의 기후변화 대응모델 전파사업 등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법 제정 등 녹색성장 관련 제도의 도입과 보급으로 녹색성장 리더국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나가기로 했다. G

글·이상흔 기자

이배용 국가브랜드위원장

“나눔의 겸손한 자신감 가져라”

이배용 국가브랜드위원장은 G20세대에게 ‘주전자 정신’ 을 강조하고 싶다고 했다.
주전자 정신이란 주인의식, 전문성, 자신감을 가리킨다. 여기에 봉사정신이 연결되어야 자신감이
‘오만한 자신감’이 아니라 ‘겸손한 자신감’이 된다고 했다.

▣ 지난 1월 13일 서울 중구 저동 국가브랜드위원회 집무실에서 이배용(64) 위원장을 만났다. 상큼한 하늘색 옷을 입은 이 위원장은 취재진을 반갑게 맞아 주었다. 그는 “지난 11월 서울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은 물론 문화유산, 전통, 역사 등을 세계인에게 인정받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위원장님께서는 G20 이후 새로 명명된 G20세대가 어떤 이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글로벌화되어 있는 세대인 것 같습니다. 도전정신을 가지고 세계로 뻗어 나가 다양한 경험을 하며 당당하게 혼자 설 수 있는 사람들이죠. 또 주체의식을 가지고 당차게 자기 표현을 할 수 있는 세대입니다. 그러면서도 봉사하는 마음을 갖췄습니다.”

G20세대는 이전 세대와 어떻게 구분된다고 보시나요.

“G20세대는 88 서울올림픽을 전후해서 태어난 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한국인들은 먹고사는 게 힘들었지만 88 서울올림픽을 치르고 난 후에는 국제감각도 생겼고, 남들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도 더욱 커진 것 같습니다. G20세대는 이 같은 분위기를 잘 물려받은 세대죠.”

위원장님께서는 ‘주전자 정신’을 역설하시는 것으로 유명하십니다. 주전자 정신은 어느 곳이든 ‘주’인의식을 가지고,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전’문 분야와 ‘자’신감을 가지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G20세대는 당당하고 자기 표현을 잘 하지만, 이들에게도 저는 ‘주전자 정신’을 다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주인의식, 전문성, 자신감을 가져야 어느 사회에서든 필요한 인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역시 봉사정신이 연결되면 좋습니다. 그래야 자신감이 ‘오만한 자신감’이 아니라 ‘겸손한 자신감’이 되거든요. 주전자에 담은 물을 사랑과 헌신, 섬김과 나눔으로 남들에게 베풀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G20세대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처음 등장했지만, 우리 민족의 문화와 역사 속에 G20세대가 가진 역동성의 근원이 들어있지 않을까요.

“G20세대는 독립된 세대가 아니라 일종의 릴레이 주자입니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을 이어 나가는 세대죠. 이전에도 그러한 역동성을 지닌 세대가 있었고 G20세대에 이르러 더욱 진화한 것이며 앞으로 나타날 새로운 세대는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G20세대는 조상과 후손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해줘야 합니다. 이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건 ‘평화와 화합을 이루는 세대가 되라’는 것입니다. 세계인들과 정을 나누면서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 조상과 인류의 궁극적인 이상일 겁니다.”

G20세대에게 더 바라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자연과 환경을 더욱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G20세대들은 시멘트 건물 속에서 자란 이들이 많기 때문에 자연을 잃어버린 세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 더 자연을 체험하고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합니다. 자연과 환경도 조상들에게 물려받아 후손들에게 물려준다는 역사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국가브랜드위원회가 G20 개최를 위해 해온 일들은 무엇인가요.

“G20은 국가 브랜드 가치를 올릴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작년 9월에는 원로정상회의를 열었습니다. 전직 정상들이 모여서 대한민국이 의장국으로서 행사를 잘 치를 수 있도록 지지해 주는 모임이었습니다. 10월에는 인도네시아에서 ‘코리아위크’를 개최했습니다. 1주일 동안 한글, 한복, 태권도 등으로 교민과 현지인들의 호응을 얻어냈죠. G20 기간 중에는 창덕궁에 모인 각국 정상의 영부인들에게 제가 한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국가 브랜드 가치 상승에 대한 G20의 성과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G20이 끝난 직후 16개국 4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인지도가 75.3퍼센트로 나왔습니다. 이전보다 3.6퍼센트 포인트 상승한 것입니다. 이 같은 홍보효과를 경제적으로 환산하면 1조8천억원의 가치입니다. 한국에 대한 호감도는 60.6퍼센트로 나왔습니다. 이전보다 16.6퍼센트 포인트 상승한 것입니다. 특히 브릭스(BRICs) 즉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인들에게 더욱

*"G20세대에게 당부하고 싶은 건
'평화와 화합을 이루는 세대가 되라'는 것이다.
전쟁, 분열을 공존, 공생으로 만드는 평화의 사절단이 되어
세계인들과 정을 나누면서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 조상과 인류의 궁극적인 이상일 것이다."*

높은 인지도와 호감도가 나타났습니다. 한국 제품이 많이 수출되는 국가입니다. 또 의장국으로서 이명박 대통령님의 조화로운 리더십이 돋보였습니다.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협력을 잘 이뤄 냈습니다. 더불어 국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지난 1월 11일 열린 G20 합동보고대회를 통해 국가브랜드위원회가 보고한 내용 중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실 사업은 무엇입니까.

"한국의 경제, 기술력 등과 같은 하드 파워는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 관광 등과 같은 소프트 파워는 낮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국가 브랜드는 국격입니다. 품격 있는 신뢰 받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소프트 파워를 상승시켜야 합니다.

수십 년간 한국 문화와 역사를 공부한 저는 우리나라의 소프트 파워가 다른 나라에게 결코 밀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들이 우리 문화와 역사에 대해 먼저 알고 세계인들에게 그 우수성을 전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하실 계획입니까.

"먼저 우리의 찬란한 역사를 보석처럼 다듬어서 명품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스토리텔링을 잘 해서 세계인들이 감동할 수 있는 콘텐츠로 재탄생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전국에 퍼져 있는 우리 문화유산을 유네스코에 등재시켜야 합니다. 그래야만 세계인들이 알고 한국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나눔으로 기여해야 합니다. 물질은 물론 재능을 나눠줘야 합니다. KOICA와 협력해서 2012년까지 해외 봉사단을 5만명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세번째로 글로벌 시민의식을 더욱 함양해야 합니다. 결국 국가 브랜드는 국민 개개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친절함, 청결함 등을 통해 외국인들이 재방문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글로벌 시민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다문화를 포용할 수 있는 관용도 가져야겠죠.

네번째로 온라인으로 10만 명의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외국인, 해외 동포 등에게 한국의 좋은 점을 알리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블로거들, 커뮤니케이터들을 잘 관리해서 협력 체제를 만들어가려고 해요." G 글·서일호 기자 / 사진·한준호 기자

매경DB

종교 간 대화 분야 세계적 신학자 폴 니터 교수

“불교와 기독교의 대화와 협력이 모든 존재의 안녕과 평화 가져와”

세계적인 신학자 폴 니터 교수가 연말연시 7일간의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했다. 니터 교수는 방한 중에 기독교, 불교 지도자들과 함께 ‘종교 간 대화: 가슴을 열어 빛을 보다’ 토론회를 열었고, 종교 간 평화를 위해서는 불교와 기독교 간의 대화 이전에 기독교인들 간의 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폴 니터 교수(왼쪽)와 조계종 대종사, 진제스님. 한국 대표 선사와 세계적인 기독교 신학자의 만남이다.
폴 니터 교수는 “자신의 종교가 배타적으로 우월하다는 인식을 가진 사람은 폭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불교든 기독교든 자신의 종교만이 배타적으로 우월하다고 주장하면 반드시 폭력과 연결됩니다. 내 종교가 가장 우월하다고 믿는 것이 반드시 폭력과 결부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종교적 우월성이라는 믿음에 따라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신의 종교가 배타적으로 우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폴 니터(Paul Knitter·72) 미국 뉴욕 유니언신학대 교수는 "역사적으로 보면 기독교가 유일한 종교라는 의식이 폭력을 낳은 경우가 많았다"며 "어떤 종교든 자신의 종교가 최고의 종교라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말했다.

"일부 기독교인들 무례… 자비로운 마음으로 용서를"

종교 간 대화 분야의 세계적 신학자인 폴 니터 교수는 지난 2010년 12월 30일 한국을 방문하고 31일 대구 동화사 조실 진제 스님과 대담을 나누는 것으로 방한 일정을 시작했다.

새해 2일에는 부산 해운정사에서 수행 선승(禪僧)들과 좌담회를 가졌고, 지난 5일에는 서울 신정동 대한불교조계종 국제선센터 금차선원에서 국내 기독교 목회자 및 학자, 수불 스님, 미산 스님 등 불교계 선지식들과 함께 '종교 간 대화: 가슴을 열어 빛을 보다' 토론회를 가지는 것으로 7일간의 방한 일정을 마쳤다.

니터 교수는 최근 일부 기독교 신자들이 봉은사·동화사 등에 들어가 사찰이 무너지라고 기도한 이른바 '땅밟기' 사건을 매번 대화 때마다 가장 먼저 언급했다.

"이번 한국에서 종교간 대화의 경험은 나의 신앙을 풍요롭게 했고, 기대 이상으로 많이 배웠다. 불교와 기독교라는 두 위대한 종교 전통이 모든 존재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 대화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는 "봉은사와 동화사 사건의 근본 원인은 기독교만이 유일하고 참된 종교라는 기독교인의 확신과 관련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러나 이들의 행동은 예수의 복음에 따라 행동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일부 기독교인들의 무례한 행동을 불자(佛子) 여러분들이 자비로운 마음으로 용서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니터 교수는 "예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했고, 사랑받을 만한 이웃만이 아니라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이웃들, 심지어 나의 적이 될 수 있는 이웃들도 사랑하라고 가르쳤다"면서 "다른 종교의 성스러운 공간에 들어가 무례한 행동을 하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했다.

니터 교수는 종교 간 평화를 위해서 불교와 기독교 간의 대화 이전에 기독교인들 간의 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진보적이고 열린 기독교인들이 근본적 기독교인들과 대화해야 할 긴박한 필요성이 있다"면서 "일부 기독교인들의 잘못된 행동을 보면 동료 기독교인들이 이를 지적하고 이야기를 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니터 교수는 "만약 기독교인들이 불자들을 미워한다면 같은 미움으로 기독교인들을 대하지 말아주시기를 바란다"고 부탁했다.

또 그는 "부처와 예수는 모두 내게는 근본적인 분들"이라며 "부처는 저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를 어떻게 따를 것인지 알게 해주었다"고 했다.

니터 교수는 "평화와 정의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평화로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불자들로부터 배웠다"면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궁극적 실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지만, 여러 가지 방식으로 다른 종교들에서도 다른 모습으로 다가온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부처와 예수는 서로 다른 문화 전통에 있었지만 참된 실재와 진리를 심오하게 체험하고 내적 평화에 이르렀으며, 그 내적 평화를 모든 존재를 위한 사랑과 자비로 승화시킨 점이 공통적"이라고 말했다.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니터 교수는 "불교와 기독교가 모두 개인과 사회구조의 변화 관계를 인식하고 있지만 개인과 구조 중 어느 것이 우선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인식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불교는 개인의 탐욕이 사회구조적인 탐욕의 원인이기 때문에 수행을 통해 개인의 탐욕을 없애면 사회구조적인 탐욕도 없어진다고 보는 반면, 기독교는 사회구조적인 탐욕이 개인 탐욕의 원인이며 사회구조적인 탐욕을 바꾸지 않는 한 개인의 탐욕을 바꿀 수 없다고 본다는 것이다.

니터 교수는 "부처와 예수는 모두 고통의 문제에서 출발했고, 두 분 모두 마음의 변화, 인식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했다. 이를 불교에서는 '깨달음'이라 하고, 기독교에서는 '회개'라고 한다"며 "그러나 부처는 모든 고통의 원인이 우리의 집착과 탐욕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본 반면, 예수는 이 탐욕의 문제가 당시 유대교의 지배제도와 로마의 압제로부터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본 것"이라고 했다.

이 문제는 니터 교수의 방한 기간 동안 가장 논쟁거리였다. 니터 교수는 대구 동화사의 한 스님으로부터 "만약 부처님과 예수님이 완전한 마음의 정화가 되지 않은 채 사회의 정화를 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 것인가"라는 질문을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니터 교수는 "물론 자신을 정화하지 않고 사회를 정화한다고 나선다면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다. 먼저 해야 할 것은 자신

동아DB

지난 1월 5일 서울 조계종 국제센터에서 열린 종교 간 대화에서 폴 니터 교수가 토론자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길희성 서강대 명예교수, 니터 교수, 수불 스님, 효담 스님.

의 마음을 정화하는 것"이라면서도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는 것은 사회를 정화하는 행동 속에서도 이뤄진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그리스도인들과 불자들이 사회를 개선하기 위해 대화하고 협력하는 일이 더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니터 교수는 한국 불교의 간화선(看話禪) 전통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그는 "진제 스님으로부터 '부모에게 나기 전에 나는 무엇이었는가'라는 화두를 받고 깊이 생각했지만 많은 진보가 없었다"면서 "간화선 경험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지만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국 불교의 간화선 전통에 깊은 관심

그는 지난 5일 '종교 간 대화' 토론회를 마치면서 참석한 스님들로부터 간화선 수행을 권유 받기도 했다.

니터 교수는 "한국에서 종교 간 대화의 경험은 나의 신앙을 풍요롭게 했고, 기대 이상으로 많이 배웠다"면서 자신이 매일 아침 한다는 기도의 내용을 소개했다. "거룩한 부처님, 거룩한 가르침, 거룩한 스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그리스도, 거룩한 복음, 거룩한 교회에 귀의합니다."

니터 교수는 "이번 만남을 통해 겸허해지는 마음을 느낄 수밖에 없다"면서 "불교와 기독교라는 두 위대한 종교 전통이 모든 존재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 대화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불교와 기독교가 많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전통은 인간의 고통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 고통에 대한 관심이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한다"면서 "세상 모든 고통에 함께 응답하고 함께 일하는 과정에서 모두는 형제와 자매가 될 것이며 고통받는 이 세계를 다른 세계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G

글·이한수(조선일보 문화부 기자)

폴 니터 교수는 누구

종교 간 대화 분야의 세계적인 신학자인 폴 니터 교수는 1939년 미국 시카고에서 태어났다. 1966년 이탈리아 로마 그레고리안 대학에서 신학과정을 마치고 가톨릭 신부가 되었다.

1972년 독일 마르부크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36세 때인 1975년 사제로서의 신분을 떠나 학자로서 종교 연구에 힘써 왔다. 그는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달라이라마, 데스몬드 투투 대주교 등과 함께 평화평의회국제위원회 이사로 활동했으며 이슬람교·힌두교·불교 등 종교간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

특히 불교에 깊은 관심을 보여 티베트 불교의 계를 받기도 했다. 달라이라마로부터 받은 법명은 '연꽃 치유자(Lotus Healer)'다. 이번 방한 기간 동안에 대구 동화사 조실 진제 스님으로부터 '진아(眞我)'라는 법명을 받았다. 2년 전 출간한 〈부처님 없이 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었다(Without Buddha, I could not be a Christian)〉라는 책은 서구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니터 교수는 여러 나라를 방문하며 종교지도자들과 대화를 나누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

그는 "종교 간의 평화 없이 세계 평화는 있을 수 없다"면서 상이한 전통에 있는 종교들이 서로 대화할 것을 주장한다. 1980년대부터 내전을 겪는 엘살바도르의 평화를 위해 활동하면서 평화와 인권, 종교 간 평화 등에 대해 세계인들의 각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에 함께 방한한 그의 아내 캐티 코넬은 티베트 불교를 공부하며 수행하는 불자(佛子)이다.

청소년상담사 최동숙 씨·부평고 유승재 군

"꿈을 준 상담 선생님 덕에 서울대 합격 했어요"

조선DB

서울대 합격 후 최동숙 씨를 만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유승재 군.

"엄마 같은 상담사 쌤(선생님) 덕에 합격했어요. 제게 꿈을 주셔서 감사해요. 몸이 불편하고 가난이 못마땅해 방황하던 저를 끝없이 다독이고 용기를 주신 쌤이 안 계셨으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심리학과에 진학해 쌤처럼 상담공부를 할 겁니다."

지난 1월 5일 오전 10시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청소년상담지원센터 1층 상담실. 11대1의 경쟁률을 뚫고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수시모집(문과)에 합격한 유승재(18·부평고 3년) 군이 지난 2년간 자신을 자식처럼 대해 준 청소년상담사 최동숙(48) 씨를 만났다.

유 군과 최 씨는 2008년 10월 처음 만났다. 유 군은 고교 1학년이었다. 최 씨는 학교를 돌아다니며 청소년들의 고민을 들어 주는 상담사였다. 머리는 뛰어난데 학교를 종종 빠지고 늘 불만 가득한 표정을 짓고 있는 유 군을 지도하던 담임교사가 학교에 들른 최 씨에게 안내한 것이다. 당시 유 군은 가난한 집안 환경과 유전병으로 뛸 수 없는 자신의 몸 탓에 살고싶지 않은 심정이었다고 했다.

고1 때 첫 만남… 석 달간 1주에 한 번 상담

만남 첫날, 최 씨는 유 군에게 집과 사람 2명, 나무 한 그루를 그려보라고 했다. 유 군은 창문 하나 없이 문이 굳게 닫힌 집과, 입을 굳게 다문 사람 얼굴, 수백 개의 잎이 주렁주렁 달린 나무를 그렸다.

최 씨는 "그림을 보고 유 군이 주변의 통제된 환경에 갇혀 있다고 판단했다"며 "유 군이 단절된 공간을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해 친구가 돼 주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상담 프로그램에 맞춰 석 달간 1주일에 한 번씩 학교 앞 벤치·공원·삼겹살집 등에서 만났다. 시간이 지나면서 유 군은 "친구와 싸웠는데 제가 이상한가요?" "제 꿈을 실현할 수 있을까요?" "부유한 집 친구가 부러워요" 같은 마음속 얘기들을 최 씨에게 털어놓았다. 그럴 때마다 최 씨는 자식 대하듯 조언해 주며 유 군에게 자신감을 심어 줬다.

"승재야, 같은 세상이라도 네가 보는 관점과 주변에서 보는 관점은 달라. 넌 피해의식이 있어. 주변 시선을 신경 쓸 필요 없어. 분명한 건 네 갈 길은 정해져 있다는 거야. 적극적으로 살면 인생을 즐길 수 있어."

석 달간의 과정이 끝난 뒤에도 유 군은 수시로 최 씨에게 전화와 문자로 상담하고 때론 만나기도 했다. 유 군이 어려움을 호소할 때마다 최 씨는 "난 네 편이야" "네 갈 길을 잊지 마"라고 다독였다.

고2때 봉사활동… 고3엔 내신 1등급 변신

조금씩 유 군에게 변화가 찾아왔다. 고2가 되면서 장애인 단체에 나가 봉사활동을 했고, 각종 글짓기 대회에서 입상했다. 고3이 되어서는 공부에 매진, 내신 1등급을 받았다.

유 군에게 큰 시련이 닥친 건 중2 때다. 체육시간에 1백 미터 달리기를 하다 무릎 통증으로 풀썩 주저앉았다. 병원에서는 양쪽 무릎뼈가 서로 어긋나는 '다발성 골이형성증'이란 유전병이라 했다. 의사는 "평생 조심하지 않으면 앉은뱅이가 된다"고 했다.

이후 유 군은 달리기는커녕 오래 걸을 수도 없었다. 설상가상으로 과학자의 꿈을 이루기 위해 과학고에 지원했지만 떨어지고 말았다. 유학이나 검정고시를 준비하려 했지만 가난한 집안 형편 탓에 부모의 반대에 부딪혔고, 이후 부모와 말도 하기 싫어졌다고 했다.

부평고에 진학해서도 방황했다. 신나게 뛰어노는 친구들을 보면 심리적 박탈감이 커 어떤 때는 정말 자살 충동도 느꼈다고 했다. 이처럼 힘든 때에 최 씨를 만난 것이다.

최 씨는 "10년 넘게 상담사 생활을 하면서 '청소년들의 불안한 심리를 공감해 주는 것만으로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실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청소년상담지원센터는 청소년들의 고민이나 어려운 점을 들어주고 해결해 주기 위해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유 군이 상담사 최 씨를 만난 것도 동반자 프로그램의 하나이다. 센터의 이은경 상담지원팀장은 "지난해까지는 동반자 프로그램에 25명의 상담사가 활동했으나 올해는 37명으로 늘려 청소년 상담활동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G 글·이신영(조선일보 사회부 기자)

3월 도쿄 세계선수권 출전 준비 김연아

"올해도 연아의 해가 될 거예요"

G20세대의 대표주자 '피겨 여왕'이 돌아온다.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 챔피언 김연아(21 · 고려대)가 새해 들어 다시 날아 오른다. 한동안 공식 대회에 출전하지 않았던 김연아는 3월 일본 도쿄에서 열릴 세계선수권대회를 대비해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착실하게 훈련하고 있다.

2010년은 김연아의 피겨 인생에 영광스러운 한 해였다. 한국인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동계올림픽 피겨 스케이팅 금메달을 따며 대한민국에 커다란 행복감을 안겼다. 피겨의 역사까지 바꿔 놨다. 쇼트 프로그램과 프리 스케이팅에서 얻은 합계 점수 2백28.56점은 2004년에 신채점제가 도입된 이후 최고였다. 2위인 일본의 아사다 마오(2백5.50점)를 압도적인 점수 차이로 따돌렸다. 당시 미국 NBC 방송 중계 해설자는 "여왕 폐하 만세"라고 외치며 흥분했고, 영국 BBC 방송은 "경쟁자들은 꿈도 꿀 수 없는 어마어마한(monstrous) 점수"라고 놀라움을 표시했다.

상복(賞福)도 터졌다. 김연아는 지난 연말 미국 스포츠아카데미(USSA)가 시상하는 '올해의 선수(여자 부문)'로 뽑혔다.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투표를 한 결과 클리스터스(벨기에)와 세리나 윌리엄스(미국 · 아상 테니스), 린지 본(미국 · 알파인 스키) 등 세계적인 여성 스포츠 선수들을 따돌렸다.

USSA는 김연아와 남자 테니스 세계랭킹 1위인 라파엘 나달(스페인)을 비교하면서 "나달이 테니스를 지배했다면, 김연아는 피겨를 지배했다"고 소개했다. 남자 부문 '올해의 선수'는 남아공 월드컵 축구대회에서 스페인을 첫 우승으로 이끌었던 골잡이 다비드 비야였다.

김연아는 미국 스포츠 전문 잡지 스포츠일러스트레이티드가 선정한 '2010년 가장 인상적인 선수 10인'에도 이름을 올렸다.

매니 파퀴아오(복싱), 랜던 도노번(축구), 드루 브리스(미식축구), 케빈 듀란트(농구), 켈리 슬레이터(서핑), 팀 린스컴(야구), 숀 화이트(스노보드), 더스틴 존슨(골프), 알렉산더 오베츠킨(아이스하키)과 함께 선정됐다. 여자 선수는 김연아가 유일했다.

김연아는 앞서 작년 10월에도 아시아인 사상 처음으로 미국의 여성 스포츠재단이 선정하는 '올해의 스포츠 우먼'으로 뽑혔다. 여성스포츠재단(Women's Sports Foundation)은 미국의 전설적인 여자 테니스 선수였던 빌리 진 킹이 1974년 설립한 비영리 교육 재단이다.

김연아는 "2010년을 잊을 수 없을 것 같다. 동계올림픽 챔피언의 꿈을 이루었을 뿐 아니라 타임 선정 100인과 유니세프 국제 친선대사 임명 등 뜻깊은 일들이 많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연아는 2011년도 자신의 해로 만들 작정이다. 작년 여름 브라이언 오서(캐나다) 코치와 헤어지고, 새로 손을 잡은 피터 오피가드(미국)와 함께 새로운 프로그램을 다듬고 있다.

오피가드는 1988 캘거리 동계올림픽 페어 종목 동메달을 땄고, 미국 피겨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린 사람이다. 그는 또 김연아가 새 훈련장으로 삼은 미국 LA 인근 이스트웨스트 아이스팰리스에 소속된 코치이다. 오피가드 코치의 부인은 미국 피겨의 전설인 미셸 콴(29)의 두 살 터울 언니 카렌이다.

미국 스포츠아카데미 '올해의 선수'로 뽑혀

김연아가 오피가드 코치를 고른 이유는 콴과의 인연이 결정적이었다. 김연아는 세계선수권 5회 우승을 일궜던 콴을 어려서부터 우상으로 여겼고, 작년과 재작년 아이스쇼에 함께 출연하면서 친분을 쌓았다.

김연아는 오서 코치와 헤어지면서 정신적으로 혼란스러웠을 때도 콴에게서 많은 조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피가드 코치는 유명 선수를 맡고 있지 않아 김연아를 지도하는 데 집중할 수 있다. 김연아도 초등학교 4학년 때 미국으로 와서 피터 코치에게 레슨을 받은 적이 있다.

김연아가 3월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선보일 새로운 프로그램은 두 가지다. 쇼트 프로그램은 발레곡 '지젤', 프리 스케이팅은 아리랑을 비롯해 한국 전통음악을 편곡한 'Homage(경의 · 존경) to Korea'이다.

쇼트 프로그램곡인 지젤은 2006년부터 김연아의 안무를 담당했던 데이비드 윌슨(캐나다)의 작품이다. 김연아가 발레곡을 프로그램 곡으로 고르기는 처음이다. 윌슨은 "음악 자체에 풍부한 감정의 스

토리가 담겨 있다. 쇼트 프로그램이지만 프리 프로그램을 감상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오피가드 코치도 "쇼트 프로그램에 새로운 차원의 김연아 연기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예술적인 부분을 향상시키고 싶어하는 김연아의 희망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쇼트 프로그램 위해 발레곡 '지젤' 선곡

프리 프로그램은 김연아가 올림픽 챔피언이 되기까지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 준 팬들과 한국에 보내는 '러브레터'이다.

올림픽에서 우승하며 전 세계의 주목을 끌게 된 만큼 이젠 당당하게 자신이 누구이며, 한국의 문화가 무엇인지를 알려 주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오피가드 코치는 "김연아의 스케이팅 속에서 자유와 기쁨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런 감정들을 프로그램 속에 잘 녹여 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연아가 3월 세계선수권에서 경쟁해야 할 선수는 일본의 안도 미키, 아사다 마오, 미국의 알리사 시스니 등이다. 아사다는 작년 동계올림픽에선 김연아에 져 2위를 했지만, 곧이어 열렸던 세계선수권(이탈리아 토리노)에선 김연아를 제치고 우승했다.

2010~2011시즌 들어 극심한 부진에 빠졌던 아사다는 작년 말 일본 선수권대회에서 2위를 하며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다. 2009 세계선수권(미국 LA) 우승자였던 김연아는 이번에 통산 두 번째 정상을 노린다.

팬들의 관심은 역시 김연아가 언제까지 선수생활을 할지에 쏠려 있다. 많은 팬이 김연아가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까지 뛰길 바란다. 김연아가 작년 동계올림픽 때와 같은 지배력을 다시 발휘한다면 '올림픽 2연패' 도전도 기대해볼 만하다. G 글 · 성진혁(조선일보 스포츠부 기자)

‘백두대간 홍보대사’ 데이비드 메이슨 경희대 교수

“한국의 산은 세계인이 꼭 봐야할 名山”

산림청이 얼마 전 백두대간 홍보대사로 위촉한 이는 뜻밖에도 파란 눈의 외국인 교수였다. 백두대간의 가치와 멋을 세계인에 알리는 데 앞장서게 될 이는 한국 산이 좋아 한국에서 30년을 살아온 데이비드 메이슨 경희대 문화관광콘텐츠학과 교수다. 백두대간을 종주한 뒤 그 걸음걸음을 담은 영문 가이드 책을 펴낸 메이슨 교수의 유별난 한국 산(山) 사랑담이다.

김승완 기자

백두대간 홍보대사인 메이슨 교수 책상 위에 놓인 다기들은 그의 지극한 한국 사랑을 보여준다.

“한국의 산은 세계적인 수준의 문화·자연 관광지입니다. 브라질의 아마존강, 미국의 그랜드캐년과 같은 수준이죠. 특히 백두대간은 모든 사람들이 꼭 봐야 하는 한국이 지닌 세계적 관광지입니다.”

지난 1월 3일 산림청이 백두대간 홍보대사로 위촉해 우리 민족의 얼이 담긴 산악을 외국에 홍보하는 중책을 맡게 된 이가 바로 데이비드 메이슨(54) 경희대 문화관광콘텐츠학과 교수다.

메이슨 교수를 만난 경희대 연구실에서는 한국 문화와 더불어 사는 그의 모습이 엿보였다. 책상 위에 가득한 여러 종류의 다기, 선반에는 즐비한 수십 종의 녹차, 책장 위에는 한국에 관한 각종 영문 서적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산이 좋아 한국에 30년간 눌러앉아

메이슨 교수는 ‘한국인보다 더’ 한국이 좋고 한국의 산이 좋아 한국에 눌러앉은 이방인이다. 1981년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동양철학과 재학 중이던 메이슨 교수는 중국문화 체험차 대만을 찾았다가 낯선 나라 ‘한국’에 대해 듣게 돼 처음 한국을 방문했다.

“한국 문화는 중국의 것과 유사하면서도 자신만의 풍미와 독특한 스타일을 지닌 점이 매력적이었어요.”

무엇보다 메이슨 교수의 흥미를 끈 것은 생생하게 살아 있는 한국의 샤머니즘과

도가, 불가, 유교와 같은 종교적 전통이었다.

"일본이나 대만에서는 박물관 속에서만 존재하는 문화가 됐고, 중국은 많은 전통이 파괴됐지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런 전통과 문화가 풍부한 형태로 살아 있었고 저는 이런 문화를 탐색하고 싶었어요."

메이슨 교수는 대학을 졸업하고 1982년 한국에 왔다. 이듬해 중국이 외국인 관광을 허용하자 6주간 중국 여행을 떠났지만 중국에 정착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는 않았다고 한다. 이미 한국의 산과 사찰이 주는 경이로움에 푹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미국 미시간주 태생인 메이슨 교수는 10대 때 보이스카우트 활동을 통해 서부 록키산맥을 오르면서 큰 산을 동경하게 됐다. 동양의 종교와 전통에 대한 관심도 커서 결국 동양철학을 전공으로 택했다. 메이슨 교수는 한국에서 자신이 추구해 온 자연과 문화가 결합된 세계를 발견한 것이었다.

최초의 영문판 안내서 〈백두대간 가이드북〉 발간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속리산 법주사를 갔습니다. 웅장한 사찰이 아름다운 산을 배경으로 서 있었어요. 아름다운 산 속에 동양의 종교적 전통이 녹아 있는 결합은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한국의 산이 지닌 독특함입니다."

다른 나라에도 풍부한 정신문화를 지닌 '신성한 산'이 있지만 대부분 한 가지 종교로 점철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지리산이나 오대산, 태백산을 보세요. 여러 종교 활동이 있으면서도 이들 종교가 매우 평화롭게 공존하고 있어요. 이런 풍경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한국의 산을 세계에 알리고 싶은 그의 소망은 지난해 7월 발간된 백두대간에 대한 최초의 영문판 안내서 〈백두대간 가이드북(Baekdu-daegan Trail Guide Book: Hiking's Korea's Mount Spine)〉으로 결실을 맺었다.

"백두대간은 한 마디로 한국의 척추입니다. 모든 산이 백두대간에 연결돼 있다고 볼 수 있죠."

〈백두대간 가이드북〉은 메이슨 교수가 지난 2007년 한국의 산을 찾은 뉴질랜드 출신 산악인 로저 셰퍼드, 앤드루 도치와 함께 어떤 후원도 없이 시작한 '백두대간 프로젝트'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세 사람은 한국의 산에 대한 애정으로 의기투합해 발로 쓴 생생한 정보를 담기 위해 그해 9월부터 11월까지 10주간 백두대간을 종주하며 사찰과 게시판, 유적지 등 세세한 정보를 기록했다. 그러한 노력의 결실로 지난해 세 사람 공저의 가이드북이 탄생한 것이다. 한국어 이외의 언어로 백두대간을 소개한 최초의 저서였다.

"한국 문화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해주고 흥미도 느끼게 하는 방식으로 세계에 알리는 것이 제 특기입니다. 지금까지 웹사이트를 3개 운영하고 있고, 6권 저서와 많은 기사, 그리고 연구논문을 통해 한국 문화를 알리고 있어요."

사진 제공

2007년 백두대간 종주에 함께 나섰던 로저 셰퍼드, 데이비드 메이슨, 앤드루 도치(왼쪽부터). 이들의 종주 경험은 지난해 영문판 〈백두대간 가이드북〉으로 출간됐다.

산림청의 백두대간 홍보대사 위촉으로 메이슨 교수의 활동은 더욱 늘어나게 됐다. 산림청에서 발간하는 영문책자나 홍보자료 제작에 직접 혹은 자문으로 참여하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행사 및 세미나에도 참석하게 된다. 특히 유엔이 정한 '세계 산림의 해'인 올해는 '유엔사막화방지협약 제10차 총회(경남 창원, 10월 10~21일)'가 아시아 최초로 한국에서 개최된다.

산림청은 메이슨 교수가 백두대간 홍보대사로서 유엔사막화방지협약 총회와 연계해 우리나라 산림환경에의 관심과 노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백두대간 문화와 역사 담은 저서 준비

메이슨 교수는 다시금 한국 산에 대한 새로운 꿈을 준비하고 있다. 완성까지 4~5년을 예상하고 백두대간의 문화와 역사를 담은 저서를 준비 중이다. 메이슨 교수가 모델로 삼고 있는 책은 에드워드 번바움이 쓴 〈세계의 신성한 산(Sacred Mountains of the World)〉이다. 산악 분야 베스트셀러인 이 책에는 대륙별로 장(章)이 구분돼 있는데, 유독 중국과 일본만 별개의 장으로 다뤄지고 있다.

"한국은 지리산·태백산·오대산·금강산·계룡산 등 다른 어떤 산과 견주어도 떨어지지 않는 아름다운 산을 갖고 있지만 이 책에 빠져 있습니다. 근 30년을 한국에 살면서 제가 하고자 하는 목표가 바로 한국의 산에 관해 이 책처럼 별개의 장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G

글·남창희 객원기자

백두대간 홈페이지 www.Baekdu-daegan.com

초중고교 학생들이 직접 만든 연극 〈마음을 찾아 떠나는 여행〉의 막이 올랐다. '가고 싶은 곳'을 주제로 아이들은 꿈과 희망을 노래한다.

〈마음을 찾아 떠나는 여행〉 마침내 무대 올라

아이들이 그리는 '현실에서 행복찾기'

지난 14일 저녁 서강대 메리홀에서 연극 〈마음을 찾아 떠나는 여행 "하늘을 봐요"〉의 막이 올랐다.
전국 6개 지역 청소년 수련시설 방과 후 연극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연극이다.

"이 버스는 너희들이 원하는 곳 어디든 가는 드림 버스란다."
"드림 버스? 우린 시험 없는 나라에 가고 싶어요."
'가고 싶은 곳'이라는 질문을 바탕으로 아이들의 의견을 모아 구성한 연극 〈마음을 찾아 떠나는 여행 "하늘을 봐요"〉에는 요즘 학생들의 고민이 그대 로 담겨 있다.
아이들이 '드림 버스'에 올라타며 시험이 없는 나라에 가고 싶다고 외치는 장면에서 관객들의 고개가 끄덕여진다.

학생들이 직접 만든 이번 연극은 짤막한 에피소드가 모여 하나의 주제를 이룬 옴니버스식이다. 15분 내외의 에피소드 6개가 묶여 1시간 30분간 공연이 이어진다. 에피소드마다 10여명의 학생들이 출연해 총 72명이 무대에 등장한다.

전국에서 모인 학생들은 이번 연극에서 맘껏 끼를 발산하며 다양한 이야기를 풀어낸다. 달나라, 우주 등 아이들이 '가고 싶은 곳'은 다소 엉뚱해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현실에서 행복을 찾기 위한 학생들의 고민과 노력이 보인다.

무대에 불이 꺼지자 잔잔한 음악이 깔리면서 하나의 영상이 스크린에 나타난다. 한 아이가 둥둥 떠다니는 구름 속에서 손을 뻗어 잡으려고 하는 영상이다.

15분 내외 에피소드 6개 묶은 옴니버스 형식

점점 무대가 환해지며 30여명의 학생들이 자유롭게 무대 곳곳을 돌아다니기 시작한다. 허공을 바라보는 아이들은 모두들 어딘가 가고 싶어하는 눈빛을 하고 있다.

오프닝이 끝나고 각각의 에피소드가 이어진다. 엄마를 찾아 떠나는 아이 이야기 부분에서 가슴이 뭉클해지기도 하고 시험과 규율에서 벗어난 학생들이 자신들만의 꿈을 찾는 장면에서는 격려의 박수가 쏟아진다.

가장 두드러지는 에피소드는 충청북도 증평군 청소년수련관 학

생들이 만든 '생일파티'다. 고등학생들이 참여해 스토리가 탄탄하고 연기력이 돋보인다.

엄마가 없는 '경률'이라는 학생이 방황하다가 보고 싶은 엄마와 생일파티를 하기 위해 길을 떠나는 내용이다.

'생일파티'에서 불량배 역을 맡은 김준휘(16) 학생은 "이번에 연극을 처음 해보는 거라 새롭고 재미있었다"며 "연극을 하면서 다양한 친구들과 함께 어울린 것도 정말 즐거웠다"고 전했다.

볼거리가 화려한 것은 다섯번째 에피소드인 '드림 버스'다. 경기도 의왕시 청소년수련관의 초등학생들이 상상력을 발휘해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준다.

가고 싶은 곳 어디든 데려다 주는 '드림 버스'를 타고 학생들은 우주, 놀이동산 등으로 신나는 여행을 떠난다. 연극을 보던 또래 친구들에게서 공감의 웃음이 터져 나온다.

마지막 에피소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에서는 아이들의 탈출이 시행된다. 공부와 시험에 찌든 아이들이 새로운 꿈을 발견하는 이야기다.

어른들이 정해 놓은 꿈들은 풍선으로 표현했다. 아이들은 그 풍선을 다 터뜨리고 새로운 꿈을 밝힌다.

그 꿈은 학생들 스스로가 만든 꿈이다. 찌들어서 쓰러져 있던 중학생들에게 환한 촛불을 든 초등학생들이 하나둘 다가와 선배들을 일으키는 장면은 인상 깊다.

아이들은 새로운 꿈을 상징하는 촛불을 받아 들고 다 함께 노래한다. 때마침 하늘에서 내려온 수십 개의 전구 속에서 '아름다운 세상'을 노래하는 아이들의 모습은 반짝반짝 빛이 난다.

연극이 끝난 후 5백여명 관객들의 박수갈채가 이어졌다. '아이들이 만든 연극의 수준이 높아 놀랐다', '요즘 학생들의 고민이 담겨 있어 공감이 많이 됐다' 등 호평이 쏟아졌다.

연극에 참여한 성기훈(11) 군은 "평소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연기가 쉬워 보였는데 직접 해보니까 어려웠어요. 그러나 연극에 직접 참여하면서 배운 것도 많고 모든 더 열심히 하게 됐어요"라고 말했다.

다문화가정의 어린이도 있었다. 수줍음을 많이 타는 최규연(11) 양은 "연극을 이번에 처음 해보지만 정말 재미있었어요. 앞으로도 연극을 더 연습해서 좋은 무대를 보여주고 싶어요"라며 당찬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이번 공연이 이루어지기까지 정부의 든든한 지원이 있었다. 지난해 2월부터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는 방과 후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지원해 왔다.

문화부·여성부 든든한 지원 … 8개월간 교육 결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전국 96개 청소년 수련시설에 연극, 영화, 국악 분야의 예술 강사를 파견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방과 후 문화예술교육은 지금까지 전국 16개 지역에서 1천5백46명이 참여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같은 호응을 바탕으로 아이들이 서로 공감대를 넓히고 무대 경험도 만들어 주자는 의견이 모여 그동안 준비해 온 연극이 무대에 올랐다.

이대영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은 "이번 교육은 지역문화기반 시설과 연계한 방과 후 문화예술교육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참여 아동들의 잠재역량을 개발할 수 있었고 정서함양에 도움을 주었다고 본다. 또한 방과 후 돌봄의 기능도 병행한 일석다조의 효과가 발생한 문화예술교육 사업이다"라며 후원사업의 뜻을 전했다.

이 원장은 또 "지난해 약 8개월간의 교육을 통해, 아이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스토리텔링과 대본을 구성했다. 그들의 이야기로 연극을 무대에 올림으로써 참여자들은 그들 자신의 존재가치와 자존감을 회복하는 자리가 되었다"며 연극을 본 소감을 덧붙였다.

이번 연극을 진행한 이유정 '프로젝트 연' 대표는 "연극의 완성도도 높았지만 아이들이 직접 자신들의 이야기를 연극에 담았다는 것이 훌륭했다"며 "어린 초등학생들이 많은데도 집중력 있게 연습하고 열성적으로 참여해 놀랐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G

글·이제남 기자/사진·김승완 기자

첫 번째 에피소드 '마음을 찾아 떠납니다'에서 아이들이 마술놀이를 하고 있다.

에피소드 '드림 버스'에서 아이들이 놀이공원에 도착해 동물들과 즐겁게 어울리고 있다.

공원	구간	거리(소요시간)	특징
지리산	세석대피소~천왕봉	5km (4시간)	지리산의 대표적인 능선길을 따라 천왕봉까지 설경을 볼 수 있는 코스
	반선(뱀사골)~화개재~삼도봉~노고단~성삼재	18.2km (9시간)	얼어붙은 뱀사골 계곡과 주변의 큰 바위에 내려앉은 설경이 일품
	성삼재~노고단 정상	5.3km (3시간)	성삼재주차장을 이용해 능선길에 바로 오를 수 있으며 만복대 주변 봉우리의 설경이 장관
	피아골 표고막터~피아골 대피소	4km (1시간 50분)	계곡을 따라 탐방로 수목들이 눈에 덮여 터널을 이룸
계룡산	동학사주차장~동학사~연천봉~관음봉~삼불봉~동학사주차장	11.8km (7시간)	계룡산의 대표적 능선길을 따라 주변 봉우리들의 설경을 감상할 수 있음
	갑사~연천봉~전망대~은선폭포~동학사	8.2km (4시간 30분)	계곡 탐방로를 따라 눈꽃 감상이 포인트
설악산	소공원~중청대피소	10.9km (7시간)	천불동 계곡을 따라 양옆으로 펼쳐진 기암괴석과 설경이 아름다움
	소공원~비선대~금강굴	6km (5시간)	저항령 계곡의 설경과 금강굴에서 바라본 대청봉, 화채능선의 설경이 일품
	소공원~공룡능선~소공원	18.7km (11시간40분)	장거리이므로 희운각 대피소에서 숙박이 필수
	한계령~중청대피소	7.8km (6시간)	능선길을 따라 설악산의 아름다운 설경을 감상할 수 있음
	백담사~중청대피소	14.3km (7시간)	백담계곡을 따라 눈 덮인 사찰들의 설경이 일품
	장수대분소~대승폭포	1km (40분)	대승폭포와 주변 설경이 볼거리
	권금성	1시간	케이블카를 이용해서 오를 수 있는데 저항령, 울산바위, 공룡능선의 설경을 볼 수 있음
속리산	법주사	1시간	눈 내린 노송과 전각들이 아름다움
	화양동암서재~파천	3.5km (1시간 30분)	노약자에게도 무리 없는 평지탐방로
내장산	내장탐방지원센터~내장사	2.5km (1시간)	단풍나무에 내려앉은 눈꽃과 눈 덮인 내장사를 감상할 수 있음
내장산(장성)	백양사 일원	2km (1시간 30분)	아름드리 갈참나무와 진녹색 비자나무 군락이 어우러져 장관
내장산(장성)	백양사~약사암~백학봉~상왕봉~운문암~백양사	9km (5시간)	탐방로 양옆 나무 위에 쌓인 눈꽃이 아름다움

눈 덮인 숲에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이번 겨울을 맞아 설악산, 지리산 등 전국 국립공원의 아름다운 설경을 감상할 수 있는 대표 탐방지 40선을 추천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추천하는 설경 감상 대표 탐방지는 ▲문화재가 많은 유명 사찰 6개소 ▲소요시간 1시간 안팎의 평지 코스 3개소 ▲1~6시간 걸리는 단거리 코스 24개소 ▲7시간 이상의 겨울산행 장거리 코스 7개소 등 40개소다.

설경 속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는 사찰 탐방지는 지리산 화엄사, 가야산 해인사, 속리산 법주사 등 오랜 역사와 다수의 국보급 보물들을 간직한 사찰들이 선정됐다. 이들은 모두 차량 접근이 가능해 가족단위 탐방객에게 적합한 곳들이다.

평지 코스는 지리산 성삼재주차장~노고단~성삼재주차장 코스(5.4킬로미터, 왕복 2시간) 등과 같이 경사가 완만하거나 케이블카를 이용해 남녀노소 누구나 힘들이지 않고 다닐 만한 곳이 추천됐다.

또 단거리 코스는 덕유산 무주리조트~설천봉~향적봉~중봉(1.7킬로미터, 왕복 1시간)과 같이 주변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며 가벼운

공원	구간	거리(소요시간)	특징
계룡산	해인사	1시간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해인사와 주변 소나무림이 조화를 이룸
덕유산	무주리조트~설천봉~향적봉~중봉	1.7km(1시간)	무주리조트 곤돌라를 이용해 설천봉에 오른 후 덕유산 최고봉을 탐방하는 코스
	삼공리~백련사	8km(1시간 30분)	구천동 계곡을 따라 설경 감상
오대산	월정사전나무 숲길과 월정사	1km(1시간)	아름드리 전나무와 계곡의 설경 감상
	상원탐방지원센터~적멸보궁~비로봉	3.5km(3시간)	비로봉 정상에서 바라보는 인근 산줄기의 설경이 장관
	진고개탐방지원센터~노인봉	4km(3시간)	진고개 능선길을 따라 핀 눈꽃들과 주문진 겨울바다를 볼 수 있음
주왕산	상의탐방지원센터~1~3폭포~상의탐방지원센터	8.6km(3시간)	평지에 가까워 가족단위 탐방객이 무리없이 탐방할 수 있는 계곡 경관
치악산	행구동 지킴터~향로봉(치악평전)~행구동 지킴터	5.6km(3시간)	눈 덮인 소나무숲과 보문사, 치악산 설경을 감상
가야산	황골탐방지원센터~비로봉~구룡사	10.5km(5시간 30분)	치악산 최고봉 비로봉을 오를 수 있는 최단 구간
월악산	만수교~만수봉삼거리~만수봉~만수교	7.3km(4시간 30분)	계곡 탐방로 따라 설경 감상
북한산	북악공원지킴터~형제봉~대성문~보국문~정릉계곡	5.7km(3시간)	눈 쌓인 산성길, 북한산 주봉들과 정릉계곡 감상
	교현탐방지원센터~우이탐방지원센터	4.5km(2시간)	노약자도 쉽게 오를 수 있으며 탐방예약제 실시
	둘레길 흰구름길구간	4.1km(1시간 40분)	구름전망대에서 서울시와 북한산 전경 감상
소백산	희방사~연화봉	3.7km(2시간)	눈 쌓인 희방폭포와 희방사의 설경을 볼 수 있음
	비로봉~국망봉	3.1km(1.5시간)	드넓은 초원과 어우러진 설경이 장관
	천동~천동쉼터~비로봉~어의곡	11.9km(5시간 30분)	산행 난이도가 높지 않고, 상고대와 소백산 전체의 아름다운 설경을 감상할 수 있음
월출산	도갑지구~억새밭~도갑지구	5.4km(2시간 30분)	능선을 따라 이어진 억새밭에 오르면 탁 트인 설경이 펼쳐짐
	천황탐방지원센터~천황탐방지원센터	5km(3시간 30분)	월출산의 대표적인 탐방코스로 기암괴석과 어우러진 설경이 유명
변산반도	내소사와 전나무 숲	1시간	전나무숲이 눈과 조화를 이루고 내소사의 고즈넉함을 느낄 수 있음
	내변산탐방지원센터~직소폭포	4.4km(1시간 30분)	작은 숲길을 따라 봉래구곡, 직소폭포를 감상할 수 있는 코스

사연을 말해봐~

겨울산행을 즐길 수 있는 곳이 선정됐다.

본격적인 겨울산행이 될 장거리 코스를 선택하려면 숙박을 고려해야 한다. 내설악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는 설악산 백담사~중청대피소는 편도 14.3킬로미터로서 7시간이 걸리는데, 중청대피소에서 숙박하고 다음 날 설악동이나 오색, 한계령으로 내려갈 수 있는 장거리 코스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겨울산행의 진면목을 느낄 수 있는 장거리 코스를 탐방할 경우 안전을 위해 대피소나 공원 입구의 숙박시설을 꼭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국립공원 내 대피소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사전 예약을 해야 한다. 국립공원에서는 야간산행이 금지돼 대피소 예약을 했다면 예약당일 일몰까지 대피소에 도착해야 한다. 입실 시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예약이 취소되므로 도착이 늦어지면 각 대피소로 연락을 해야 한다.

겨울산행은 체력에 맞는 구간을 선정하고 추운 날씨와 눈으로 인한 고립이나 눈사태, 실족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충분한 준비를 해야 한다. G

글·박경아 기자 / 사진제공·국립공원관리공단

후연이 힘을 잃지 않았다면 담덕이 백제를 누르고 초원으로 진출하여 광대한 영토를 넓힌 광개토대왕이 되지 못했을 수도 있다.
일러스트·이철원

위기의 고구려에 위대한 그가 오다

담덕(광개토대왕)은 그늘진 백부(소수림왕)와 아버지(고국양왕)의 얼굴을 보며 자랐고, 무엇이 어른들을 그토록 힘들게 하는지도 알게 됐다. 후연의 최대 적 북위의 상승세는 국제관계의 균형을 뒤엎는 예상 밖의 결과였고, 고구려의 젊은 군주에게는 행운이었다.

고국원왕의 아들 소수림왕(小獸林王)은 백제와의 끝이 보이지 않는 전쟁을 전사(戰死)한 아버지로부터 상속 받았다. 서기 378년 백제군 3만명이 평양성을 공격했다. 왕은 겨우 성을 지켜 냈다. 아버지를 죽인 백제는 그에게 증오심을 주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 두려움도 남겼다.

어린 시절 소수림왕은 전연(前燕)의 침공으로 일어난 비극을 샅샅이 목격했다. 아버지 고국원왕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도망쳤고, 어머니와 할머니는 개처럼 끌려갔다. 죽은 할아버지 시신이 볼모가 되었고, 수도의 거의 모든 사람은 침략군의 노예로 전락했다(342년).

고난의 왕 노릇에 신물이 난 소수림왕

아버지 고국원왕은 그렇게도 고구려에게 몹쓸 짓을 한 전연의 모용황에게 굽실거려야 했고, 모든 것을 다 잃고 거지 신세가 됐지만 남은 재정을 털어 할아버지의 시신을 찾아와야 했다. 하지만 전연은 더욱더 강해졌고, 중원을 차지한 제국이 됐다. 자신이 왕태자에 책봉된 그해(355년) 할머니가 전연에서 돌아왔다. 그동안 저자세로 굴욕적인 재물과 인질을 바친 결과였다.

돌고 도는 것이 세상이었다. 370년 그렇게도 몹쓸 짓을 한 전연이 전진(前秦)의 일격을 받고 멸망했다. 중국 대륙에서 숙적이 사라지고 우방 전진이 그 자리를 메웠다. 이듬해 아버지가 전사하고 그는 운명에 떠밀려 왕으로 즉위했다.

이러한 소수림왕의 처지를 알고 있던 전진의 왕 부견(苻堅, 338~385년)이 불상과 승려를 보냈다(374년). 영혼의 상흔은 그를 불가(佛家)에 귀의하게 했다. 승려들이 오자 그는 초문사와 이불란사를 세워 머물게 했다. 불교신앙에서 고난을 견디는 힘을 기른 그의 영혼은 이미 부처의 경이로운 세계에 가 있었다.

하지만 고구려의 주변 여건은 점점 악화되었다. 378년 가뭄과 전염병이 고구려를 휩쓸었고, 이 틈에 거란이 북쪽 변경을 침범해 8개 부락을 박살내고 많은 사람들을 잡아갔다.

잡혀간 이들은 고구려의 북쪽 변경 초지에 살던 유목민이었다. 그

들은 고구려에 전마와 가축, 육류를 공급하고 기병 전력까지 제공하던 사람들이었다. 그 대가로 고구려는 생필품과 겨울을 넘기는 데 필요한 곡물을 정기적으로 공급했다. 하지만 계속된 가뭄과 흉년이 고구려의 경제력을 고갈시켰다.

유목민은 더 이상 고구려에 기대할 것이 없는 상황에서 거란이 다가오자 미련 없이 고구려를 떠났다. 소수림왕은 절망에 빠졌다. 남쪽에서 백제와 전쟁을 하고 있는데 잠재적인 기병 자원이 증발한 것이다.

나쁜 일은 겹치는 법. 중국 대륙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 383년 우방인 전진의 부견이 비수의 전투에서 동진(東晋)에게 대파 당했다. 그 후 전진은 급속도로 멸망의 길을 걸었다. 이듬해 전연 모용씨의 일족인 모용수는 흩어진 선비족들을 규합해 큰 세력이 됐다. 역사에서 이를 후연(後燕)이라고 한다.

우방을 잃고 다시 강력한 적을 맞게 된 소수림왕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고난의 삶에 지쳤고 왕 노릇에 신물이 나 있었다. 남쪽에 숙적 백제가 노리고 있는데 모용수가 다시 선비족을 결집했다. 절망은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 383년 11월이었다.

동생 이련(고국양왕)은 형으로부터 전쟁과 기아를 건네받았다. 고국양왕(故國壤王)의 형 소수림왕이 염려했던 대로 모용수는 세력을 급격히 확장했고, 이듬해인 384년 후연의 황제로 즉위했다. 고구려에는 가뭄과 흉년이 겹쳤고, 백제와의 싸움도 계속됐다. 388년 여름, 비가 오지 않아 몹시 가물었다. 가을걷이에 지장을 주는 재해였다.

"메마르고 얼어붙은 땅에서도 새싹이 돋아나게 마련이다. 고난의 고구려엔 위대한 군주가 될 담덕이 자라고 있었다. 담덕은 왕위에 오른 뒤 국제관계의 균형이 깨진 틈을 노려 백제를 찍어 누르고 초원으로 진출하여 광대한 영토를 넓힌 광개토대왕이 되었다."

이듬해 사람들은 어김없이 굶주렸다. 거기다가 그해 가을 백제가 남쪽 국경으로 쳐들어와 약탈했다. 390년 가을에도 이 악다구니는 되풀이됐다. 백제의 장군 진가모가 현재 개성 부근의 도압성을 공격해 쳐부수고 2백명의 사람들을 잡아갔다. 아쉽게도 분쟁이 끊이지 않는 백제와의 접경지역이 고구려의 최대 곡물 생산지였다.

비참한 시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거기서 태어난 자는 어디까지나 그 속에서 살아야 한다. 담덕(광개토대왕)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메마르고 얼어붙은 땅에서도 새싹이 돋아나게 마련이다. 고구려의 위대한 군주가 될 인물이 자라고 있었다.

4년 전(386년) 고국양왕은 아들 담덕을 왕태자로 임명했다. 담덕은 그늘진 백부(소수림왕)와 아버지의 얼굴을 보며 자랐고, 무엇이 어른들을 그토록 힘들게 하는지도 알게 됐다. 마음의 무게감으로 일찍 철이 들었고, 왕좌는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 천근과 같은 짐을 지는 자리임을 알았다.

담덕은 그의 백부나 아버지가 가진 모용선비(전연·후연)나 백제에 대한 공포심은 없었다. 직접 겪지 않았기에 갖는 자신감은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도 있었으나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니었다.

북위의 상승세로 행운 잡은 광개토대왕

공포란 마음의 상처이며 정확한 판단을 방해한다. 담덕은 태자 시절 아버지 고국양왕이 후연에 대해 소극적이고 백제에 대해 힘들어하는 것을 답답하게 느꼈었다.

직전 385년 11월 고국양왕은 현토와 요동을 우현의 모용농에게 빼앗겼다. 고구려가 그 지역을 점령한 지 6개월도 되지 않아 다시 잃은 것이다. 하지만 후연은 전연보다 강력하지 않았고, 일진일퇴의 적수였다. 후연의 선비족들은 이리가 개가 되듯이 중원에 들어와 몇 세대를 살면서 야성을 잃어 갔다. 이미 숙번(熟蕃: 중국화된 유목민)이 된 것이다.

그런 후연이 서북 초원에서 대두된 선비족 탁발부(北魏)와 마주쳤다. 탁발부는 문화 수준이 낮았지만 용감한 전사였다. 그들은 무한정에 가까운 인적자원을 외몽고에서 획득하여 전선에 투입했다. 야생성이 강한 생번(生蕃: 초원 유목민)이었다. 탁발부 북위와의 전쟁에 모용수의 마지막 남은 생애가 바쳐졌다. 그토록 강성했던 후연은 밀렸고, 고구려를 침공할 여력을 상실하기 시작했다.

후연의 최대 적 북위의 상승세는 확실히 국제관계의 균형을 뒤엎는 예상 밖의 결과였고, 고구려의 젊은 군주에게 더없는 행운이었다. 후연이 힘을 잃지 않았다면 담덕이 백제를 찍어 누르고 초원으로 진출하여 광대한 영토를 넓힌 광개토대왕(廣開土大王)이 되지 못했을 수도 있다. G

글·서영교(중원대 박물관장)

행복을 찾아가는 절집기행·서울

글·임연태 / 사진·이승현
클리어마인드 펴냄·1만3천8백원

봉은사 공양간에는 **숟가락이 몇 개 있을까?**

"절집에 들어서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그 나름대로의 의미를 갖고 있지만 누구도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돌 하나, 목재 하나, 그림 한 조각도 그냥 있는 것이 아닌데 그 존재의 이유와 가치를 설명해 주는 친절함은 만나기 어렵습니다. 절집에서 만나는 무수한 '유형'들은 교리적으로나 역사, 문화, 예술적으로 무한한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의미와 가치들을 상세하게 안내하는 책이 필요하다는 확신이 서는 순간,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지혜장과 나팔수, 이 책의 이야기를 끌고 나가는 부부입니다."

'절집기행을 떠나며'라는 제목의 작가 서문에 쓰여 있는 글이다. 작가가 이 책을 집필하게 된 동기가 잘 드러나는 부분이다. 20년의 불교기자 경력을 가진 시인 임연태는 가상의 부부 지혜장과 나팔수를 내세워 절집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하고 있다.

이 책은 봉은사부터 조계사까지 서울에 있는 17군데 절집이 소개되어 있다. 책을 읽는 이가 '내가 아는 절이 몇 개나 있나?' '내가 가 본 절은 몇 군데나 되나?' 생각해보게 한다. 이름을 들어보거나 가 본 적이 있는 절을 발견하면 반가울 것이고, 모르는 이름의 절을 보면서 '서울에 이런 사찰도 있었구나, 서울에 참 많은 절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 것이다.

"이 책은 종교책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좋은 기행서이자 역사서이다. 절에 가려면 산에 가야하고 절집에는 많은 볼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어느 절에 가려면 어디에서 내려서 어느 쪽으로 얼마나 걸어가야 하는지, 셔틀버스를 탈 수 있는지 없는지 친절히 알려준다."

〈행복을 찾아가는 절집기행·서울〉은 불교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쉽고 재미있는 불교 입문서가 될 수 있다. 신심이 깊은 불자인 지혜장이 불교에 문외한인 남편 나팔수와 함께 기행하는 형식의 책이기 때문에 그들의 대화를 통해 불교 관련 지식을 쌓을 수 있다.

저자는 절의 구조와 절에서 보이는 것들만 이해해도 불교 공부 절반은 하는 것이라고 했다. 절 이름이 '사'로 끝나는 것과 '암'으로 끝나는 것의 차이, 사찰에 있는 여러 건물 중 대웅전, 약사전 등 '전'과 산신각, 독성각 등 '각'의 차이, 최초의 절이 어떤 것이었는지, 우리나라 5대 보궁이 어디인지, 그리고 각종 불교 용어들에 대해 나팔수가 질문하면 지혜장이 답하는 식으로 설명한다.

이 책은 종교책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좋은 기행서이자 역사서이다. 절에 가려면 산에 가야 하고 절집에는 많은 볼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어느 절에 가려면 어디에서 내려서 어느 쪽으로 얼마나 걸어가야 하는지, 셔틀버스를 탈 수 있는지 없는지 친절히 알려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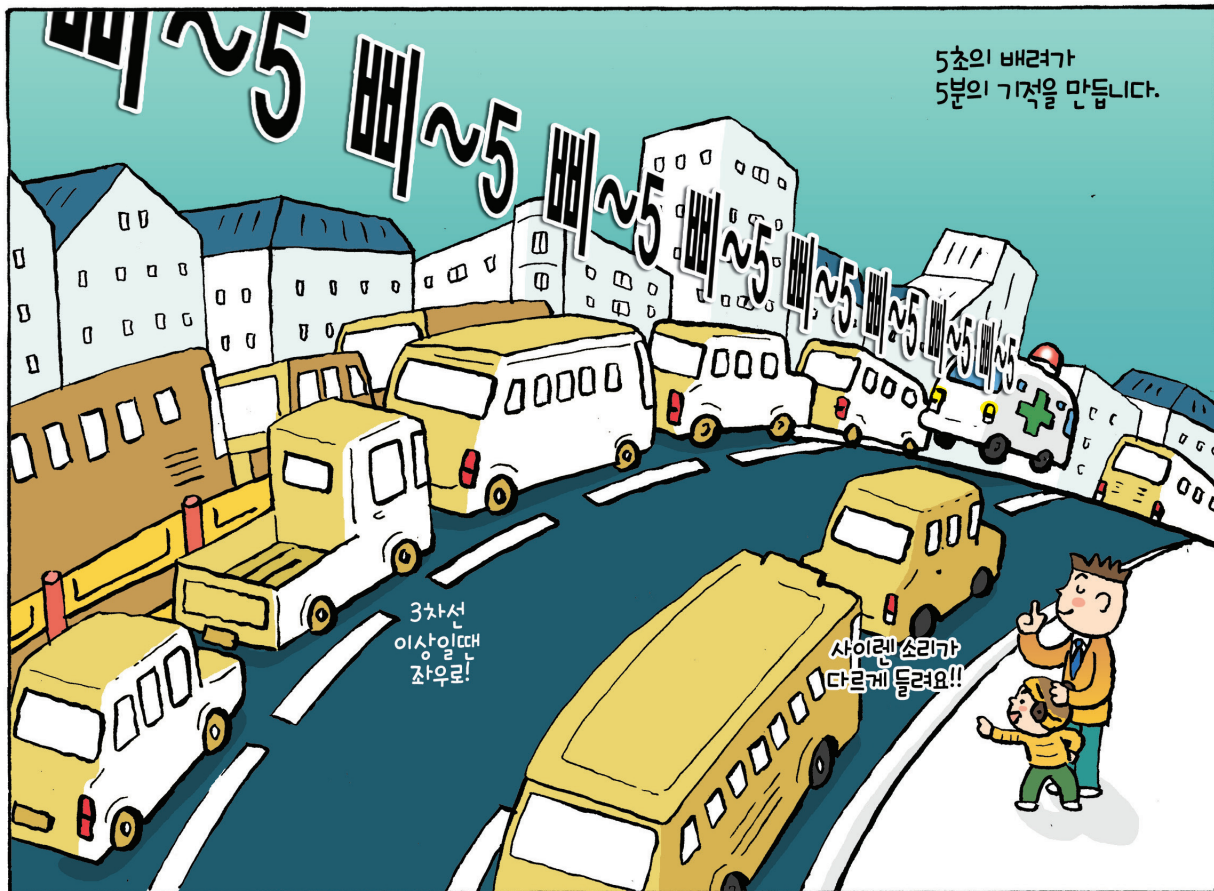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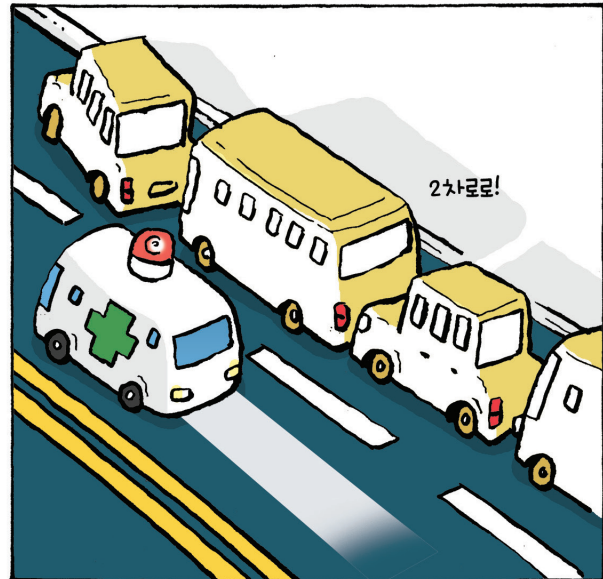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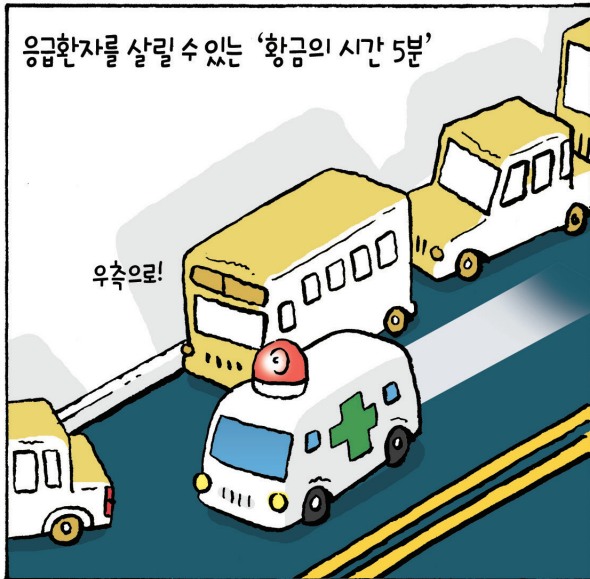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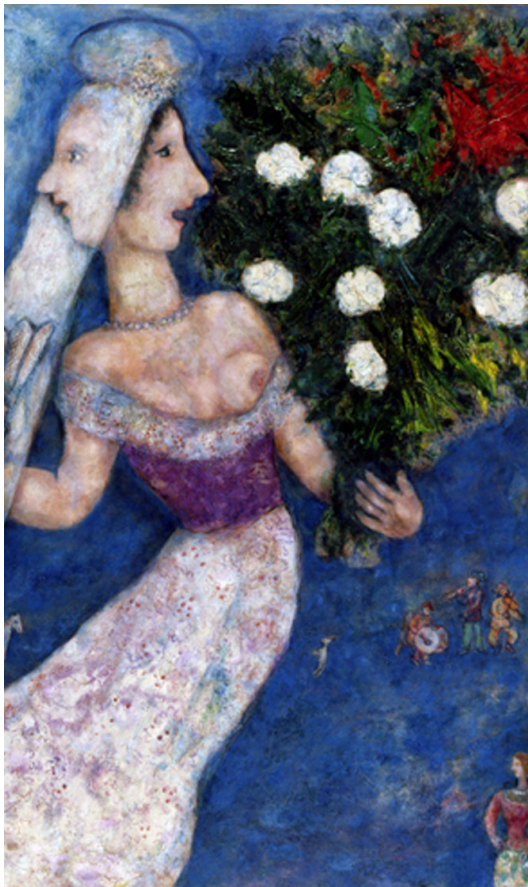
또한 이 책을 읽으면서 서울에 있는 사찰에 얼마나 많은 문화유산들이 곳곳에 숨어 있는지 다시 한 번 느끼게 될 것이다. 지혜장과 나팔수 부부를 따라 절 기행을 하다 보면 불당, 현판, 불상, 석탑, 부도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게 된다.

불자든 아니든 절에 가면 자신도 모르게 저절로 마음이 평온해지는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것이다. 절집은 그 존재만으로 우리에게 무언가 잔잔한 울림을 주기 때문인 듯하다. 그렇다면 절집에 대해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그 의미를 이해한다면 잔잔한 울림이 아니라 더 나아가 작은 행복 정도는 선사해주지 않을까 싶다. G

글·김선영(국립중앙도서관 사서)

일러스트·이우정

5분의 기적

구성 | 권우영
그림 | 안종만

바쁘더라도 응급 차량에 양보해 주세요. 우린 다 배웠잖아요.

샤갈전시본부

Copyright [ⓒMarc Chagall/ADAGP, Paris-SACK, Seoul, 2010 Chagall (R)] Bride with a Double Face 1927, Private collection, Paris

사랑과 평화 담아낸 색채의 마술

색채의 마술사 샤갈展 (Chagall: magician of color)

20세기 최고의 색채화가 마르크 샤갈(1887~1985년)의 걸작을 서울시립미술관에서 만날 수 있다. 전 세계 30여 곳에서 모아 온 샤갈의 명작 1백60여 점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보기 드문 기회이다.

마르크 샤갈은 98세의 긴 생애를 통해 어릴 적 동심에서부터 꿈, 사랑, 성경에 이르는 다양한 테마를 그리며, 화려한 색채와 형상으로 독창적인 회화세계를 구축했다. 이번 전시는 샤갈 미술의 최고 걸작들이라 불리는 1910~1922년 러시아 시기(청년기)의 작품들을 대거 선보인다.

김춘수 시인의 작품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의 모티브가 된 걸작 〈비테프스크 위에서〉(1915~1920년)도 만나 볼 수 있다. 물론 이번 전시의 최대 걸작은 〈유대인 예술극장 장식화〉(1920년)이다. 모두 7점으로 구성된 이 작품은 5년에 걸친 복원 작업 끝에 원형을 되찾았다. G 글·이미령 인턴기자

일시 2011년 3월 27일까지 장소 서울시립미술관 관람료 성인 1만2천원 청소년 1만원 어린이 8천원 무료입장 만 5세 미만,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3급 이상 장애인(동반 1인까지), 국가유공자 문의 1577-8968 (샤갈전시본부)

안숙선 김덕수의 공감

국악계 최고의 명인들이 한 무대에 선다. 우리 음악의 대중화와 현대화 작업을 통해 국악 발전에 힘써 온 두 명인이 서로의 음악세계에 대해 공감을 이룬다. 문굿, 삼도설정고, 삼도농악가락, 판소리, 판놀음 등 다양한 무대가 준비되어 있다.

일시 2011년 1월 29일 장소: 부평아트센터 해누리 극장 관람료 R석 3만원, S석 2만5천원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50퍼센트 할인 문의 032-500-2000

조선D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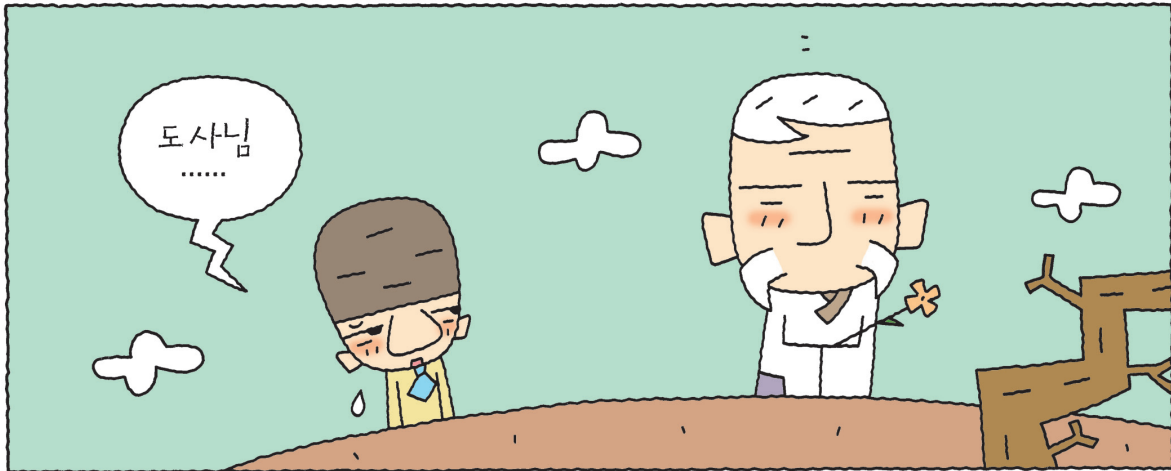
뮤지컬 영웅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의거를 그린 '영웅'은 뉴욕과 LA에서도 공연할 예정이다. 한국, 중국, 일본을 넘나드는 이국적 풍경뿐만 아니라 각기 다른 매력을 지닌 3명의 안중근 의사를 만나 보는 것 또한 흥미롭다.

일시 2011년 1월 29~30일 장소 안산문화예술의전당 해돋이극장 관람료 VIP석 8만8천원, R석 6만6천원, S석 3만3천원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50퍼센트 할인 문의 080-481-4000 www.ansanart.com

조선DB

후회만 하고 있다면…

글과 그림 · 최영순

벽돌을 쌓는다고 집이 되지 않듯이, 시간이 쌓인다고 삶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 에리스 로럴드 미리에리

청국장에 갈치속젓 '천국의 맛'

나는 먹는 것을 진짜 좋아한다. 한국에 와서 먹어 본 많은 음식들 가운데 특별히 좋아하는 것이 있다. 바로 청국장이다. 한국 사람들은 보통 외국인들이 청국장을 싫어한다고 생각한다. 처음에는 특유의 냄새 때문에 거부감이 들 수 있지만, 한 입만 먹어 보면 100퍼센트 반할 음식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다. 적어도 나는 그랬다.

5년 전 아는 오빠가 나를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모래내시장의 어느 식당에 데리고 갔다. 허름한 보리밥집으로 주인 아줌마가 전주 사람이었다. 그곳에서 청국장 보리밥을 시키자 반찬이 열 가지나 나와서 감탄했다. 나는 반찬 가짓수가 많은 집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잊을 수가 없는 갈치속젓! 보리밥에 야채랑 청국장을 비빈 후 갈치속젓과 같이 먹었는데 천국에 온 줄 알았다. 그 후 종종 그 집을 찾았고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았다.

전통 음식은 맛도 좋고 건강에 최고

나는 집에서도 청국장을 만들어 먹고 싶은 생각에 청국장 발효기를 사서 직접 만들어 보았다. 12시간 불린 콩을 푹 삶고 뜨거운 상태에서 종균을 비벼준 후 2일 정도 38~40도 되는 온도로 맞춰 놓으면 청국장이 만들어진다.

처음에는 끈적끈적한 균이 안 생겨서 몇 번 실패했지만 조금씩 기술이 좋아졌다. 만든 청국장을 종이컵에 나눠 보관하면서 하루에 한 컵씩 먹고 있다. 내가 즐겨 먹는 최고 건강식품 중에 하나다. 발효된 청국장은 그냥 먹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요구르트에 섞어 먹는데 맛이 괜찮다.

그런데 부작용이 하나 있다. 청국장은 장(腸)을 잘 청소하기 때문에 뱃속에서 계속되는 가스 생리 현상이 불가피하다. 방을 혼자 쓴다면 상관없지만, 누가 옆에 있으면 상당히 괴로울 것이다. 하지만 청국장을 지속적으로 먹으면 장이 적응해서 방귀가 덜 나온다는 것이 나의 경험이다.

한국에는 발효 음식의 종류가 다양하다. 청국장뿐만 아니라 홍어, 김치, 막걸리, 간장 등이 모두 훌륭한 발효 음식들이다. 특히 된장은 한국 발효 식품의 '진정한 명품'이다. 맛은 물론이고 된장에 항암효과, 간 기능 강화, 고혈압 저하 등의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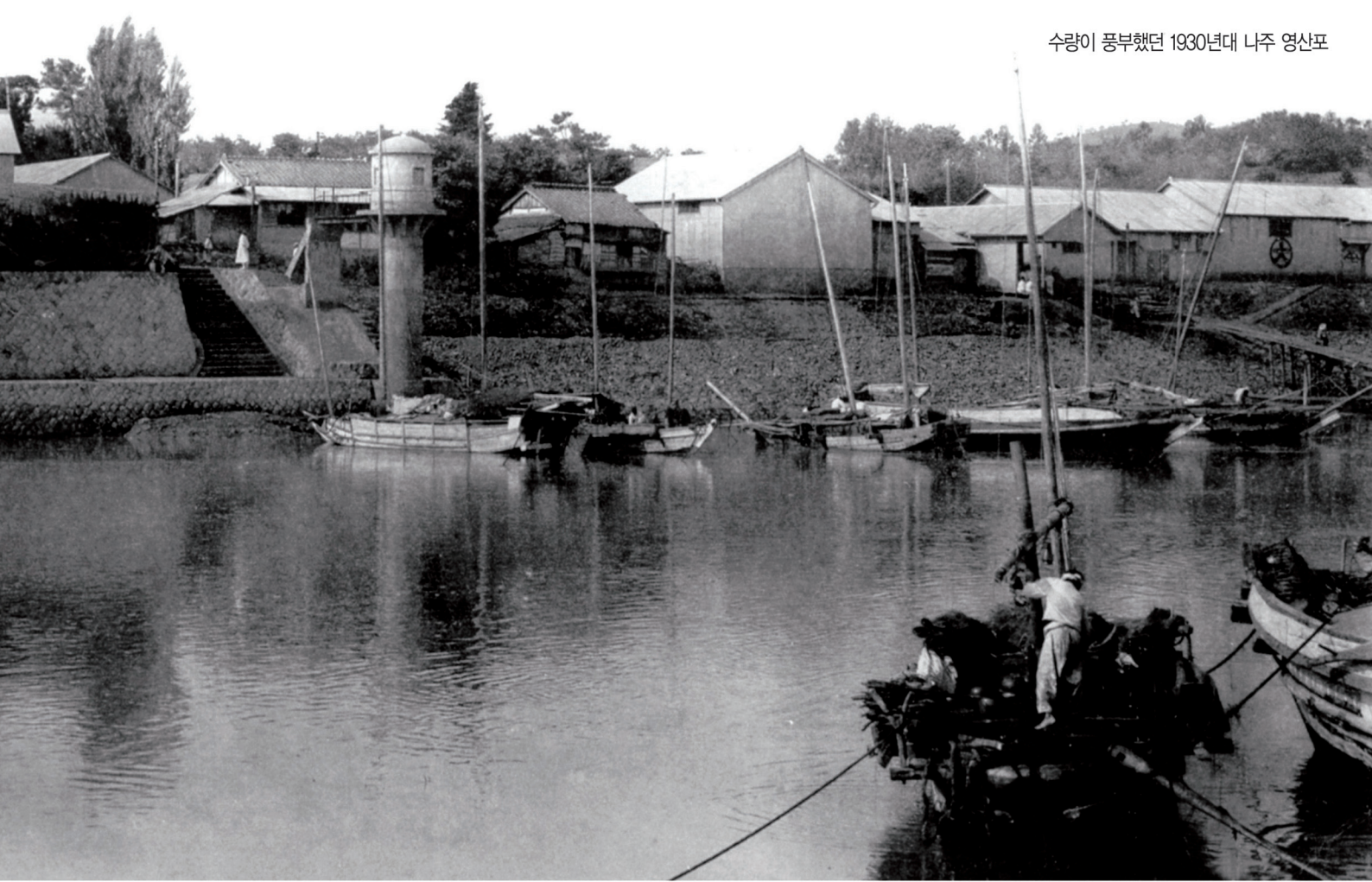
쥐에게 발암 물질을 투여해서 암에 걸리게 한 후 된장을 먹인 결과 된장을 먹이지 않은 쥐보다 암 조직의 무게가 약 80퍼센트나 감소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한국의 된장도 일본 미소 된장처럼 빨리 세계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리고 대표적인 발효 식품으로 막걸리를 빼놓을 수 없다. 막걸리는 단백질, 유산균, 아미노산 같은 영양이 풍부할 뿐 아니라 하루하루 갈수록 맛이 변해 가는 그야말로 살아 있는 발효주다.

종류와 재료가 다양하고 장에도 좋은 술이다. 무엇보다 막걸리는 '인간적인' 술이다. 일반적으로 술은 과음하면 몸에 좋지 않다. 하지만 막걸리는 마시면 배가 불러서 술을 덜 마시게 된다. 즉 술을 덜 마시게 됨으로써 몸을 보호할 수 있다.

요즘 막걸리 열풍이 분다고 하지만 한국 사람들이 막걸리가 얼마나 좋은 술인지 모르는 것 같아서 외국인인 내가 슬플 정도다. 와인에만 너무 매달리지 말고 막걸리와 다른 한국의 전통주에 대해서도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G

글·살미넨 따루 (전 KBS '미녀들의 수다' 출연자)

수량이 풍부했던 1930년대 나주 영산포

4대강살리기는 강의 원래 모습을 되찾아 주는 것입니다

4대강살리기 사업으로 제 모습을 찾기 시작한 금강세종시 구간

강에 퇴적토가 쌓이지 않았던 1930년대만 해도
내륙 깊숙이 배가 왕래할 정도로 수량이 풍부했습니다
4대강살리기는 퇴적토를 청소하여 우리 강을 치료하고
풍부한 수량을 확보하여 생명과 희망이 돌아오게 하는
우리강 제 모습 찾기입니다

강을 치료합니다

강바닥에 쌓인 퇴적토를 걷어내어
홍수와 가뭄으로 신음하던
강을 치료하게 됩니다

생명과 희망을 돌아오게 합니다

넉넉해진 강물로 인해 조류와 물고기등
주변 생태계가 풍요로워집니다

환경을 생각합니다

주변환경과 자연을 생각해서
환경을 보호하는 친환경 공법을
사용합니다

올 겨울을 따뜻하고 건강하게 보낼

8가지 에너지절약 비법!

겨울철 실내온도는 20℃

가디건(조끼) 입기

문풍지 부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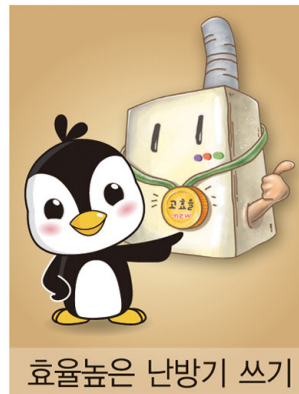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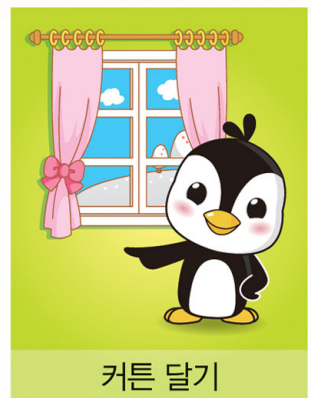
카펫트 깔기

커튼 달기

내복 입기

무릎담요 사용

효율높은 난방기 쓰기

덧신 신기

1℃의 비밀, 난방비 절약

실내온도 1℃를 낮추면 난방비 7%가 절약됩니다. 내복을 입고 난방온도를 3℃낮추면 난방비를 약 20%절약 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온도의 비밀, 20℃

겨울철 실내와 실외의 온도차가 크면 감기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므로 실내온도를 20℃~18℃로 설정해 다소 서늘한 느낌이 들도록 유지합니다.